

마이칼호수에서

마이칼의 넓지 않은 백사장에 한 여인이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응시의 거룩함은 다른사람에게도 전염되어 물결에 눈빛이 일렁인다. 깊은 영혼을 가진 눈빛과 신화의 깊이를 가진 호수의 물결이 만나는 순간 어두운 수심속에서 빛의 화살들이 일제히 시위를 당긴다. 그렇게 순간의 빛은 영원의 기억 속에 남았다. 영원이란 기억된 순간임을 빛살은 사람의 뇌리에 새긴다. 바다와 같은 호수의 품에 안기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과 마을을 감싸고 있는 숲이 돌아다 보인다. 물에서 바다가 그리운 만큼 바다에선 물이 그리운 것이다. 배에서 바라보니 숲이 호수에 제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다. 호수는 숲의 거울이 되어 하늘위로 솟은 만큼 물위에도 삼각을 겹쳐 마름모의 산을 만들고 있었다. 숲은 물위에 제 모습을 비춤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숲과 호수가 합작함으로써만 가능한 성취와도 같이 실상과 허상이, 존재와 반영이, 요소와 관계가, 실재와 해석이 함께 하고서야 세계는 비로소 새로워지는 것이다. 숲이 호수에 제 얼굴을 비춰 단장하듯, 여인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미모를 진화시키듯,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화두를 재발견하듯, 실재만이 아닌 해석에 의해 역사의 결은 만들어지고 찾아진다. 시베리아열차를 타고가던 작가 코엘료가 기차안에서 한 여행객으로부터 들었다는 모로코사막의 한 부족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의미깊다.¹⁾

이브가 에텐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뱀이 다가와 말했다.

“이 사과를 먹어봐”

신에게 가르침을 받은대로 이브는 거절했다. 그러자 뱀이 우겼다.

“먹어보라니까 그래야 네 남자의 눈에 네가 예뻐 보일 수 있어”

이브가 대답했다.

“그럴필요 없어 그에겐 나 말고 다른여자가 없으니까”

뱀은 비웃었다.

“정말 그럴까”

뱀은 믿으려하지 않는 이브를 데리고 우물이 있는 언덕 꼭대기로 갔다.

“이 우물 안에 그 여자가 있어 아담이 여기에 숨겨두었거든”

이브는 허리를 굽혀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아리따운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즉시 뱀이 권한 사과를 먹었다.

실재와 반영사이에, 실상과 허상사이에, 존재와 관계사이에 오해와 착각과 불화가 발생할 때 반영은 헛것이 되고, 허상은 조작이 되며, 존재는 관계에 지배당한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볼 뿐 아니라 거울자체를 봐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1921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우사김규식은 여운형, 나용균과 함께 극동민족대회 참가를 위해 러시아여행을 결행한다. 이는 꿈틀대는 유라시아체계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과정이자 실천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었다. 이 여행에서 우사가 처했던 관계와 맥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빈약한 사료의 행간을 읽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가 갔던 길을 밟아보며 나는 그저 김시습의 충고가 두려울 뿐이다.

領取鉤頭意 莫認定盤星 갈고리의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인정하지 말라

1) ,2006.7.7

누금은 무게를 나타내는 기호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게와 혼동하지 말고 무게를 알려거든 물건을 든 갈고리의 입장에 서라는 충고가 말이다.

유라시아의제의 출현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근대이전까지 전혀 다른 세계처럼 인식되어 왔다. 헤겔에게 세계사는 유럽사였으며 마르크스에 이르러 비로소 세계의 범위에 아시아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등은 아시아가 아닌 극동(Far East)이었다. 유럽으로부터 극동까지 유라시아대륙을 하나의 지정학체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차대전 이후부터이다.²⁾ 이같은 인식은 당시 운동가들에게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 김규식도 그의 논문에서 한반도 독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이것은 다른 운동가들의 민족해방이론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유라시아체계를 만들어갈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유라시아의제가 출현한 것은 1차대전 직후이다.⁵⁾ 첫 번째 유라시아의제는 1919년 미국이 제출한 ‘민족자결주의’였고 두 번째 유라시아 의제는 1920년 소비에트러시아가 제출한 ‘민족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였다.⁶⁾ 우사 김규식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 참여와 그 이후 미국행을 통해 미국의 유라시아의제를 경험하게 되며 1922년 극동민족대회의 참여를 통해 소비에트러시아의 유라시아의제를 경험함으로써 양대의제의 핵심에 서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두 번의 기회가 중요했던 것은 그의 필생의 숙원이 되는 좌우합작의 주체인 좌와 우를 모두 학습하는 기회였다는 것 말고도, 희망으로서 표방된 유라시아의제와 그것이 집행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변형된 현실의 의제를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체험은 향후 김규식의 독립운동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준엽, 김창순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1917년 말부터 1919년 초에 이르는 18개월 동안은

2) 1919 3월18일 러시아공산당제8차대회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 가운데 레닌은 ‘우리들은 일국가내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체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하나의 체계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Lenin, "Otchet tsentral'nogo komiteta 18 marta," Polnoe sobranie sochinenii, XXXVIII, p139; 소비에트국체법이론, G.I.Tunkin, 대광문화사, 1985, p31)

3) 계몽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바대륙에서 세계전쟁의 대포소리가 처음 진동하던 1917년 팔월에 파나마 운하의 개통식에 당하여 루스벨트는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인류역사는 이제로 붙어 새로운 시대 즉 태평양시대가 시작된다’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미국은 세계정책의 중심을 새로운 곳에 옮기는 것을 신중하게 준비하였다는 말이다.”(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10집, 북우 계몽우자료집1, 꿈속의 꿈, 하 p246~247)

4) 김규식은 모스크바에 있을 때 ‘아시아 혁명운동과 제국주의(The Asiatic Revolutionary Movement and Imperialism)’라는 글을 영어로 써서 ‘공산평론(Communist Review)’1922년 7월호에 발표했다. 그는 “극동의 상황에서 한국 문제가 결정적 핵심이라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조차 없다.”라 하고 “한반도는 그 지형적 위치, 역사적 관계와 전략적 이점 때문에 항상 극동정세가 선회하는 주축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력발발의 도화선이 되어왔다”고 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은 다른 민족해방운동이론에서는 보기 드물다. (Dae-Sook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91~105)

5) 하나의 체계는 요소와 관계와 구조 그리고 동력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동력은 전체계를 주도하는 요인이 된다. 유라시아체계를 이루는 이념, 전략, 전술, 지도자등 여러 요인 중 동력은 이념과 전략을 압축하고 있는 의제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개념들은 다른 기회를 빌어 소개되길 기대한다.

6) 이는 필자의 분류이다. 세번째 유라시아 의제는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현한 ‘국제연합’, 네번째 유라시아 의제는 1968년 베트남 전쟁과 함께 출현한 ‘민족해방’, 다섯번째 유라시아 의제는 1990년대 소련붕괴와 함께 도래한 ‘탈냉전’, 여섯 번째 유라시아 의제는 2001년에 등장한 ‘테러’이다.

이민족의 사슬에 묶여있었던 전 세계 약소민족에게 비상한 자극과 희망을 준 시기였다.⁷⁾ 국제사회가 약소민족의 처리에 관한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첫째, 볼셰비키 혁명 직후 레닌정부가 공포한 일련의 선언이다.⁸⁾ 우선 레닌정부의 ‘평화에 관한 법령’은 “다른 나라의 토지를 병합 또는 점령한다는 것은 병합당하는 민족의 확실하고 명백하며 자발적으로 표명된 승인이나 희망이 없는데도 크고 강한 나라가 작고 약한 민족을 마음대로 병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한 뒤 이러한 병합을 부인한다고 천명했다. ‘러시아인민의 권리선언’에서는 러시아 영토 안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 민족적, 종교적 특권과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이어 러시아 영토안의 모든 민족들에 대해 민족적, 종교적 특권과 제한을 철폐했으며 이어 러시아 국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자결권을 선언했다. ‘러시아 및 동방의 전 이슬람 근로자들에게’에서는 “오늘부터 제군의 종교적 관습, 제군의 민족적 및 문화적 제도들은 자유롭고 불가침인 것임을 선언한다. 자기의 민족적 생활을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받음이 없이 영위하라. 제군은 그 권리를 갖는다.”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구절들은 러시아 안의 피압박 및 무권리의 민족만이 아니라 그 밖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피압박민족들에게는 일종의 새로운 복음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다.⁹⁾

둘째, 1918년 1월 8일에 연두교서로 미국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919년 초에 파리강화회의에서 전후처리 원칙으로 채택된 윌슨대통령의 14개조항 가운데 5항인 ‘민족자결에 관한 선언’이다.¹⁰⁾ 네덜란드 출신 국제법학자인 그로티우스의 집단안보이론을 계승한 윌슨의 14개조항 중 5항은 “식민지의 주권을 결정하는 데에는 주민의 이익이 관계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식민지적 요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1차대전 직후 유라시아지정질서의 주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미국의 정책에서 고려대상은 혁명을 통해 역사상 전혀 새로운 체계를 출현시킨 레닌정부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된 것이 민족자결주의이다. 논리의 정합성으로나 선언의 과감성으로 볼 때 레닌정부의 선언들이 더 자극적이었으나 당시 형편으로는 레닌정부의 실력과 권위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약소민족의 관심은 자연히 미국정책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파리강화회의와 미국정부에 제출한 독립청원은 모두 무시됐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가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레닌정부의 민족자결론이 선행했음에도 파리강화회의를 통해 윌슨의 민족자결론의 실체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파리강화회의에 실망한 수많은 민족해방세력들이 1920년대 초반 왕성하게 소비에트러시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윌슨의 그것과 달리 이론과 전략과 조직, 자금등 의제를 현실로 변화시킬 실행가능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9년 3월2일에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코민테른은 아시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코민테른은 레닌이 1916년에 발표한 논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에서 출발한 것이다.¹¹⁾

7) ,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299

8) 평화에 관한 법령(1917년 11월8일), 러시아 인민의 권리선언(1917년 11월15일), 러시아및 동방의 전 이슬람 근로자에게(1917년 12월3일)등이다.

9) 반병률,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성재 이동휘 일대기, 범우사, 1998, p136

10) 1차대전이 인류에게 준 최대의 교훈은 전쟁을 되풀이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대전이 ‘전쟁을 그치기 위한 전쟁’(war to end war)이어야만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호응하여 1915년 영국 민간인에 의한 전쟁회피안(Proposals for the Avoidance of War)과 미국의 평화강행연맹(The League to Enforce Peace)등의 평화운동이 있는 후 1918년 윌슨 대통령에 의한 14개조의 평화조건과 영구평화의 4원칙이 제시되었다.(김정균.성재호공저, 제5개정판 국제법, 박영사, 2006, p242)

11) 레닌은 선진공업국가의 젖줄이며 계급투쟁을 둔화시키는 장본인인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Robert C. Tucker (ed.), The Lenin Anthology,(New York :

레닌에 의하면 ‘민족자결권이란 주로 정치적의미에서의 독립권을 압박하는 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분리하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다.’¹²⁾ 또한 민족자결을 실현한다는 것은 전민족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계급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계급이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는가가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서 투쟁의 내용과 그 결과가 좌우된다.¹³⁾ 레닌은 자결의 원칙을 민족국가 수립의 목적을 갖는다고 보는 부르조아적 이해와는 명백히 선을 긋고 그와 반대로 민족자결의 원칙은 사회주의에 의거하여 제 민족이 접근, 융합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⁴⁾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적 사회관계를 기초로 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자결의 원칙이 완전히 실현될 때 민족적제약과 민족적 편견을 제거할 수가 있으며 인류는 제 민족과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다. 러시아공산당은 러시아의 모든 민족통일을 위해서 투쟁하였다. 그 이유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익이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¹⁵⁾

레닌정부의 민족의 평등과 자결원칙의 추구는 소비에트러시아와 동방제국과의 조약속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1921년 페르시아와의 조약에서 소비에트정부는 아시아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했을 뿐만아니라 동방국민들에게 조직적이고 난폭한 행위를 초래한 제정러시아정부의 정책을 비난하였다.¹⁶⁾ 1921년 7월에 소비에트대사가 신임장을 제출했을 때 새로운 터키정부의 지도자 아타트루크는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소비에트러시아가 과거의 조약을 거부하고 자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¹⁷⁾

강대국이 타국내에서 자신에게 권리와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 조약을 자발적으로 파기하였던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¹⁸⁾ 러시아는 제1차대전 직후 협상국의 지지를 받아 독립한 폴란드의 키에프 침공에 맞서 전쟁의 와중에서 다급하게 코민테른 2차대회를 소집하였다.¹⁹⁾ 이 대회는 코민테른 역사상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되는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비로소 혁명논리, 혁명당, 혁명전술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레닌주의적 이해를 중간파매개의 논쟁적 형태로 공식화했다. 즉 이 대회를 계기로 레닌주의의 일반적 이론 및 조직적, 전략

W.W.Norton),1975, p204~274; , 위글, p300

12) 이리하여 그 새로운 제기에 있어서 자결의 원칙은 민족이 자기의 대외정책상의 지위를 결정하는 권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며, 민족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Lenin, "Sotsialisticheskaiia revoliutsiia I prevo natsii na samoopredelenie," Polnoe sobranie sochinenii, XXV II, 255.; G.I.Tunkin, 소비에트국제법이론, 대광문화사, 1985, p22

13) G.I.Tunkin, 소비에트국제법이론, p23

14)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주의가 목적하는 바는 소국가에의 인류의 세분상태와 각 민족의 모든 분립을 없애고, 각 민족의 접근 뿐 만아니라 각 민족을 융합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Lenin, "Sotsialisticheskaiia revoliutsiia I prevo natsii na samoopredelenie," Polnoe sobranie sochinenii, XXV II, 256.; G.I.Tunkin, 위책, p25

15) Lenin, "Sotsialisticheskaiia revoliutsiia I prevo natsii na samoopredelenie," Polnoe sobranie sochinenii, XXV II, 256.; G.I.Tunkin, 위책, p25

16) Dokumenty vneshnei politiki SSSR, III, p537. ; G.I.Tunkin, 위책, p26

17) 소비에트국가가 공표하고 또 거부한 조약가운데는 특히 1916년의 중국에서의 식민지주의적 공동행동에 관한 로일비밀협정, 1915년 터키분할에 대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간의 협정, 1907년의 이란에 있어서의 세력범위에 관한 로영비밀조약.협정등이 있었다. “Zarubezhnaia pechat' o revoliutsii v Rossii I sobytiakh v Sovetskoi respublike,” Mezhdunarodnaia zhizn', no.4(1967), p63[Citing Biulleten' NKID, no.91(September 10, 1921), p61~62]참조; G.I.Tunkin, 위책, p27

18) G.I.Tunkin, 위책, p27, 안창호등 친미파는 상해임정에서 코민테른 자금을 빌려오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에트러시아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하였다. 소련정부는 차르시대에 진 빛을 갠 것으로 선언한 ‘도둑놈의 정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19) Victor Serge, 1963, Memoirs of a Revolutionary : 1901~1941(Oxford University Press:London), p100; 전명혁, 1920년 코민테른2차대회시기 박진순의 민족식민지문제인식, 한국사연구134, 2006.9, p197.

적 원칙이 비로소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장을 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진출했던 것이다. 1920년 7월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된 코민테른2차대회는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등을 채택하고 결의하였다.²⁰⁾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는 조선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등 식민지, 반식민지국가들에게는 중대한 결정을 내포하고 있는 테제였다. 3.1운동과 5.4운동을 비롯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출현한 민족운동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위기를 초래했고, 점차 아시아의 민족운동이 세계의 혁명운동을 좌우하는 주요세력으로 등장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이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가 제출된 시대적 배경이었다.²¹⁾ 1920년 7월~8월 ‘민족·식민지 문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때 한국에서는 이동휘가 이끄는 한인사회당에서 박진순이 대표로 참석하였다.²²⁾ 민족·식민지 문제 소위원회에서 주목할 내용은 레닌과 인도출신 공산주의자 로이와의 논쟁이었다.²³⁾

로이는 소위원회에서 레닌과 식민지국가의 성격과 민족해방운동에서 민족부르조아지의 역할 그리고 동양제국의 혁명운동의 중요성등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벵골의 혁명적 민족주의자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로이는 인도의 국민회의당과 협력해야만 한다는 전망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였다. 그는 식민지 부르주아지의 상대적 허약함을 감안할 때 대중은 처음부터 사회혁명과 외국자본주의의 전복에 찬성하고 혁명정당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구조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혁명운동의 운명은 동방에서의 혁명과정과 전적으로 달려있다. 동방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 없이는 서방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세계혁명속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²⁴⁾ 로이는 “식민지의 부르조아민주주의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민족적 정신의 발전을 재촉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지만 이 민족적 정신이 대중의 계급의식의 각성을 방해할 것이다”²⁵⁾ 라고 하여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적극적 의미보다는 혁명적 당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소위원회는 로이의 견해를 일정부분 수용하여 레닌의 견해 중 식민지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운동’이란 표현을 개량주의적 민족운동과 구별하기 위해 ‘민족해방운동’ 또는 ‘혁명적 해방운동’으로 고치는 등 수정을 가하여 채택하였다.²⁶⁾ 식민지와 후진민족이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가

20) 제2차대회는 7월23일~8월7일 모스크바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었으며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 외에도 ‘러시아-폴란드전쟁에 관하여 세계프롤레타리아에게 호소함’, ‘코민테른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테제’, ‘프롤레타리아혁명에서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테제’, ‘코민테른의 가입조건’, ‘코민테른 규약’, ‘공산당과의 회주의에 관한 테제’, ‘노동조합운동, 공장위원회 및 코민테른에 관한 테제’, ‘농업문제에 관한 테제’등을 결의하였다. いいたども, 1985<コミンテル再考-第三シタナショナル史と植民地解放->(谷澤書房, 東京)p44~45; 전명혁, 위글, p198

21) 권희영, 코민테른의 민족·식민지논쟁과 한국의 민족해방운동, 역사비평, 1988, p187

22) 반병률에 의하면 “이동휘가 상해 임정에 참여한 얼마후인 1920년 초 러시아의 알렉세이 포타포트(Alexei Potapov)장군이 상해에 온 것을 계기로 소비에트정부에 파견할 특사 문제가 대두되자 이동휘의 주도하에 상해임정은 국무회의를 열고 1920년 1월22일 3인을 러시아 파견 외교원으로 선정했다. 이런 배경에서 박진순이 1920년 1월 중순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는 고려공산당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고 결의권을 행사했다.”

23) 로이(M.N.Roy, 1889~1954)는 민족독립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해 멕시코 체제 중 맑스주의를 공부하여 1918년 멕시코사회당 서기장에 선출되었다. 러시아혁명의 충격으로 그는 멕시코공산당 창립을 선언하고 코민테른 2차대회에 멕시코공산당 대표로 참가하였다. いいたども, 1985<コミンテル再考-第三シタナショナル史と植民地解放->(谷澤書房, 東京)p48; 전명혁, 위글, p199

24) Robert J. C. Young, 2001,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김택현 역, 2005,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서울), p234~235

25) ロイ, 1980<民族.植民地問題について補足テゼ 原案>いいたども編譯[民族.植民地問題共産主義-コミンテル全資料.解題](社會評論社東京), p37; 전명혁, 위글, p201

26) 레닌, 1920년 7월28일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 편집부편, 1989<코민테른자료선집>3, (동녘, 서울),

하는 문제에 대해 코민테른은 “선진국 프롤레타리아의 원조에 의해 후진국이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단계로 거치지 않고 곧장 소비에트체제로 이행하고 일정한 발전단계로 거쳐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²⁷⁾는 이른바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로이는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은 불가피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견해를 견지하였다.²⁸⁾

코민테른 2차대회 직전인 1920년 7월초에 쓰여진 박진순의 ‘혁명적 동방과 코민테른의 당면 임무’(이하 ‘당면임무’)는 1919년 4월 한인사회당 2차당대회의 계급노선과 국제주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면임무’에서 박진순은 이전논문인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운동’²⁹⁾에서 표명했던 식민지혁명 전략 가운데 몇가지 중요한 인식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동방에서 2단계혁명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민족주의자가 이끄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고, 두 번째 단계는 봉건체제에 예속된 농민대중에 의한 농업사회혁명이었다.³⁰⁾ 여기서 박진순은 이전의 혁명론을 수정하여 부르조아민족주의자에 대해 첫 번째 반제부르조아혁명단계에서 그들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인사회당의 상해임정 참여³¹⁾라는 현실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한인사회당의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한 전술이 수정되었음을 의미했다.³²⁾

p223

27) 로이, 1920년 7월28일 ‘민족식민지문제에 대한 테제’, 편집부편, 1989<코민테른자료선집>3, (동녘, 서울), p236

28) “프롤레타리아 공산당이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촉발시키고 지지할 때에는 그것은 진정한 혁명세력을 고무하여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 행동은 외국의 제국주의를 타도할 뿐아니라 소비에트권력을 점차 발전시켜 모습을 감춘 외국자본주의를 대체하여 현지 자본주의가 성장하여 인민이 계속하여 억압받고 착취 받는 사태를 지지할 것이다” 로이, 1980<民族.植民地問題について補足テゼ 原案>いいだも編譯[民族.植民地問題共產主義-コミンテル全資料.解題](社會評論社東京), p37; 전명혁, 위글, p201

29) 이동휘는 1919년 4월 25일에 박진순, 박애, 이한영등 3인을 사절단으로 선출하여 코민테른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레닌정부에 보내는 축하문과 코민테른에 제출할 보고서를 ‘조선에서 사회주의운동’을 갖고 1919년 7월 블라디보스톡을 떠났다. 일본제국주의와의 공동투쟁을 위해 민족부르주아지와 근로자가 통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인사회당은 최근의 대회(1919년4월)를 계기로 민족(토착)부르주아지와 귀족층과 분명히 절연하고 계급투쟁의 강령을 채택하여 ‘자유조선공화국’(Free Korean Republic)의 슬로건을 선언했다.

Пак Диншунь, 1919.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й” [Pak chin-sun, 1919. “The Socialist Movement in Korea” Communist International 7~8; Dae-sook Suh ed,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50~51; 엠.아.벨시츨 <ロシアにおける東方の國際主義者と民族解放運動の若干の問題(1918-1920年 7月)>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Р, 1969. КОМИНТЕРН И ВОСТОК [國際勞動運動研究所 編, 1971 國際關係研究所 譯 <コミンテルンと東方>(協同産業出版部.東京)]p62 ; 전명혁, 위글, p207

30) Chin-sun Pak (Dzhishun Pak), “The Revolutionary East and the Next Task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Communist International, nos.11~12(June-July,1920),2,315-20 in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p54 ; 엠.아.벨시츨 <ロシアにおける東方の國際主義者と民族解放運動の若干の問題(1918-1920年 7月)>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Р, 1969. КОМИНТЕРН И ВОСТОК [國際勞動運動研究所 編, 1971 國際關係研究所 譯 <コミンテルンと東方>(協同産業出版部.東京)]p82; 전명혁, 위글, p209

31) 박진순이 모스크바에 도착할 무렵 이동휘는 상해임정의 국무총리 취임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32) 박진순의 ‘당면임무’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한형권이 코민테른에 기고한 ‘동아시아 상황’은 한인사회당이 4월 당대회에서 채택한 ‘계급강령’을 완화 수정하여 ‘민족부르주아지의 혁명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제휴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부르조아적 성격을 지닌 상해정부에의 참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R(한형권), August 1920 “The Situation in East Asia”, Communist International 13, p2551~2560; 전명혁, 위글, p210.) 그러나 실제소위원회 연설에서 그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이 “단지 일본제국주의에 대해서만 그리고 외국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대토지 소유자인 자국의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도 향해지고 있다.”고 했다. E.H.카는 소위원회에서 페르시아와 조선의 대표(박진순)의 발언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에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 로이의 경고를 강하게 반복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いいだも編譯[民族.植民地問題共產主義-コミンテル全資料.解題](社會評論社東京), p50; 전명혁, 위글,

또한 박진순은 ‘당면임무’에서 농업혁명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아시아에서 산업프롤레타리아의 미약함 때문에 즉각적인 사회주의혁명이 곤란함을 인정하고 농업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사회로의 길을 제시하였다.³³⁾ 이는 레닌이 1920년 7월26일 ‘민족·식민지문제에 대한 소위원회보고’에서 언급한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박진순은 서방의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하에 자본주의를 경과하지 않고도 점차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로이와는 상반되는 견해였다.

박진순은 서방의 혁명은 동방혁명의 승리없이 불가능하고 동방의 제 민족은 서구프롤레타리아트의 원조없이 제국주의자에게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³⁴⁾ 이점은 로이의 ‘동방혁명중심론’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로이의 ‘동방혁명중심론’적 사고는 제국주의하에서 억압받는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식민지문제’를 바라보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박진순은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과 아울러 ‘서방과 동방의 공동투쟁’에 의한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농업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로이의 ‘동방혁명중심론’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박진순의 식민지해방전략은 레닌과 초기 코민테른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로이의 ‘동방혁명중심론’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다. 결국 박진순의 ‘동방과 서방의 공동투쟁론’의 제기는 레닌과 로이의 ‘식민지민족문제’인식에 대한 절충 또는 결합적 인식이었다. 박진순의 인식은 한인사회당과 1921년 창립되는 고려공산당노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⁵⁾

이후 극동민족대회회전후로 레닌을 만난 이동휘일행과 김규식일행의 회고에 의하면 레닌의 답변은 로이가 주장했던 좌경된 노선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동휘에 따르면³⁶⁾ 레닌은 공포수단은 쓰지말 것, 일본의 무산자와 결합할 것, 대중에게 선전으로 각오시킬 것의 일반적인 혁명이론 외에도 3.1운동에서 조선민중이 일본이 부설한 철도를 잘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조선운동에서는 민족운동이 첫 단계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다.³⁷⁾ 레닌과의 회담은 이동휘에게 있어서는 상해파의 입장이 옳았음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철수와 한형권의 회고에서도 이점은 확인된다. 김철수에 따르면 상해파는 이 단계에서도 타도 일본제국주의 민주혁명이라는 정강이 옳음을 주장하였고, 이르쿠츠크파의 사회

p214)

33) 말미에 박진순은 11개 항으로 구성된 ‘동방에서 코민테른의 임무에 관한 테제’(이하 ‘동방테제’)를 제출하였다. ‘동방테제’ 가운데 마지막 11번째 항목은 “동방에서 사회주의적 농업혁명의 기대 속에서 코민테른은 즉시 새사회 조직의 혁명적 방법의 정교화 즉 공산주의 사회, 동방에서 사적 자본주의의 잔인한 발전의 시기를 피하면서 농업의 질서에서 사회주의의 질서로 가장 고통없이 이행가능한 경제계획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Chin-sun Pak (Dzhishun Pak), "These on the task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in the East," Communist International, nos.11~12(June-July,1920),2,315-20 in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p57-59; 전명혁, 위글, p211

34) “혁명적동방이 자본의 심장에 필살의 일격을 가하는 바로 이 시기에 유럽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의 머리위에 타격을 주는 것처럼 바로 이와같이 그 행동을 조정하고 결합해야 한다.” Chin-sun Pak (Dzhishun Pak), "These on the task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in the East," Communist International, nos.11~12(June-July,1920),2,315-20 in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p55; 전명혁, 위글, p212

35) 전명혁, 위글, p216

36) 이동휘는 1925년 1월25일 레닌서거 1주년을 맞아 그에 대한 추도문을 러시아공산당 연해주당 고려부기관지인 ‘선봉’에 기고하였고, 거의 같은 때 국내동포에게 보내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레닌과의 대담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이영일, 이동휘 성재선생, p95 ; 동아일보를 통하여 사랑하는 내지동포에게(5),동아일보 1925년 1월22일자)

37) 동아일보 1925년 1월22일자

주의 혁명정강은 좌경이라고 반박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레닌은 상해, 이르쿠츠크 양파의 정강을 보고 “상해에서 세운 정강이 옳다. 식민지의 당이 어찌 바로 사회혁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르쿠츠크파의 좌경적 오류를 지적하였다는 것이다.³⁸⁾ 한편 여운형신문조서에는 김규식, 여운형일행이 레닌과 만나던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었다.

문: 조선의 운동에 대한 방침은 어떠했는가?

답: 조선에 있어서는 아직 공업이 발달하지 않고 또 계급의식이 유치함으로 계급운동은 시기상조이며 조선은 농업국으로서 일반대중을 후원지지하라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상해임시정부는 명칭만 너무 과대하고 실력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는 고로 임시정부의 조직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바있었고, 이외에 레닌으로부터 일본에서는 무산계급은 의회운동을 표어로 삼고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손잡고 그 운동을 추진하며, 조선에서는 임시정부를 지지후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시한바 있소³⁹⁾

다른날의 심문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했다.

문: 레닌등의 동방정책, 즉 민족해방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답: 나는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났소. 그때까지는 러시아가 조선에 공산주의를 그대로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했지만, 레닌은 조선은 이전에는 문화가 발달했지만 현재는 민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것은 잘못이고, 지금은 민족주의를 실행하는 편이 낫다고 했소. 이는 나의 이전부터의 주장과 일치하는 말이었소.⁴⁰⁾

여운형의 기억에 의하면 김규식, 여운형 일행을 만났을 때 레닌은 로이의 입장보다 본래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⁴¹⁾ 김규식뿐아니라 여운형과 일행은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와 한국독립운동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인데 레닌의 말은 최소한 이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몸담고 있던 독립운동이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운동과 상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운동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확언을 받았기 때문이다.⁴²⁾

이는 몽양 여운형이 당시 이르쿠츠크파에 속해 있었으나 그의 노선은 오히려 상해파와 가까웠음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 뿐아니라 레닌의 의중이 서로 다른 입장의 과벌에 의해 교차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같은 감상은 비단 조선의 운동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의 순박한 애국자였던 호치민을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로 변모시킨 결정적 계기도 민족·식민지문제에 있었다.

“나는 감정에 복받쳤다. 눈앞이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으며 가슴에는 열의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너

38) 김철수친필유고, p354~355

39) 여운형신문조서, 1929년 7월 8일, p413; 이정식, 여운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323~324

40) 여운형신문조서, 1929년 8월 6일. p544; 이정식, 위책, p324

41) 레닌은 코민테른 2차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코민테른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의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일시적으로 타협도 하고 더 나아가 그것과 동맹도 맺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융합해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코민테른의 테제로 채택했다. ; 한편 외무인민위원 G.V.치체린은 1922년 3월10일에 레닌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들의 국제강령은 모든 식민지인민을 국제적시도속에 끌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국제적시도의 새로움은 흑인이 타식민지인민과 마찬가지로 회의나 위원회에 구라과제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가하고 자기의 내부생활에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 있어야만 한다. 레닌은 이 편지에 관해서 ‘또 식민지 인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가하고’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언더라인을 치고 있으며 여백란에는 ‘그렇다’라고 써있다. (Reproduced in Lenin, "Pis'mo G.V.Chicherinu," Polnoe sobranie sochinenii, XLV, 36.; G.I.Tunkin, 위책, p24~25)

42) 이정식, 위책, 2008, p325,

무 기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방안에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많은 군중에게 연설하듯이 큰 소리를 질렀다. 열사들이여. 동포들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방에 이르는 길이다.”⁴³⁾

‘민족과 식민지문제에 대한 테제’는 향후 2차대전까지 소련을 유라시아지정질서의 주도자로 만든 의제였다. 1922년 11월 코민테른 4차대회에서 서구에서의 ‘노동자 통일전선’과 더불어 식민지, 반식민지 동양에서의 ‘반제 통일전선’ 슬로건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일어나는 혁명운동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자 손문이 이끄는 국민당과 아직은 규모가 작은 중국공산당이 통일전선을 이루는 1924년 국공합작으로 귀결되고, 식민지조선에서는 1927년 신간회의 창립을 가져왔다.⁴⁴⁾

여행자금

돈에는 사람관계가 숨어있다. 여운형의 '나의회상기'에는 우사일행이 장가구에서 몽골의 수도 고륜(울란바토르)까지 몽골상사회사의 콜맨이 제공한 자동차 세대를 세내어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⁵⁾ 몽골상사회사의 정확한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김규식은 1916년과 1918년 마이어회사의 직원으로 몽골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콜맨이 만약 마이어회사의 직원이라면 김규식과는 구면이었을 것이다.⁴⁶⁾ 오히려 콜맨이 김규식과 구면이었기에 이 여행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콜맨은 자동차를 빌려주었을 뿐 여행비용을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여운형이 고륜 도착 2일째, 콜맨을 찾아가 여행비용을 지불하였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몽골상사회사 지점으로 돌아온 나는 콜맨씨를 만나 계산을 마친 다음 고륜에 체재하는 사이의 숙소를 따로 정하였다.⁴⁷⁾

여운형이 콜맨에게 계산해준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김규식일행의 극동민족대회참가를 위한 여행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중의 하나가 여행자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자금은 소위 한국독립운동 최대의 논쟁거리가 된 코민테른자금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최대의 뉴스거리중 하나였던 레닌의 독립운동후원금은 레닌의 민족자결론과 윌슨의 민족자결론을 구분 짓는 징표이기도 했다. 말로만 치레를 하는가? 실지로 도우려하는가에서 자금은 말치레가 아닌 연대의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징표처럼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자금은 김규식, 여운형, 나용균일행이 참가하여 큰 충격을 받았던 이르쿠츠크군법재판에서의 자유시참변과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코민테른 자금을 받아온 것은 이동휘의 상해파-한인사회당이었고 자유시참변의 피해자들도 이들 상해파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식과 김학준은 ‘코민테른 자금은 이동휘 당의 생명이었다.’⁴⁸⁾라고 까지 말하였다. 이 말에는

43) William J. Duiker, HO CHI MINH, Hyperion. 2000 ; 역, 호치민평전, 푸른숲, 2001, p177

44) 전명혁, 위글, p196~197

45) 여운형의 '나의회상기'에는 여행준비과정 묘사의 마지막에 '자동차의 각종 부속품과 가솔린등을 자동차 책임자인 외몽상사회사의 콜맨씨가 누락없이 준비하였다'라고만 쓰고 있으나 서중석은 '자동차 세대를 세냈다'라고 했다.(이정식, 위책, p670; 서중석, 우사연구회, 우사김규식통일.독립의길가다2, 논형, 2007, p33)

46) 서중석, 우사연구회, 위책, p33

47) 여운형, 나의회상기제3편 赤色區人都市 庫倫, 중앙, 1936.5; 이정식, 위책, p678

이동휘의 상해파공산당이 코민테른자금을 쥐고 있었고 그만큼 코민테른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성과를 앞질러 성취했다는 인정과 함께 돈을 생명으로 할 만큼 이론과 조직, 운동이 결여되었다는 비판도 숨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동휘의 비서인 박진순의 예에서 보듯 당시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의 이론적 수준은 한인공산주의세력내에서는 코민테른으로부터 가장 먼저 검증을 받은 것이었고 그 결과가 자금의 지원으로 연결된 것이었다. 조직면에서 보면 자유시참변시 상해파소속 빨치산부대는 당시 이르쿠츠크파를 후원하던 시베리아의 불세비키강경파도 인정했듯이 강고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금문제가 독립운동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인식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이며 스스로를 파당의 한 측에 세우는 교묘한 편당일 수 있다. 극동민족대회 개최소식이 알려지기 전 이동휘와 여운형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이 또한 코민테른자금문제 때문이었다. 상해임시정부내각에서는 불세비키정권과의 관계 수립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특히 보이틴스키가 임시정부에게 자금원조를 할 의도가 있다는 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임시정부 내각은 한형권, 여운형, 안공근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동휘는 자의로 한형권만을 보냈던 것이다.⁴⁹⁾ 이에 대해 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한형권은 1919년 겨울 임시정부 최고 간부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소비에트정부에 조선독립운동의 원조 및 교섭을 위한 대표로 선정되었던 자로서 그때 나 이외에 안공근도 함께 선정되어 세명이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동휘는 야심이 있어 임시정부 당국 및 우리대표에게 비밀로 하고 한형권 한사람만 모스크바에 밀파했소. 한형권은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노동정부에게 교섭한 결과 임시정부원조금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우선 60만원을 받았으나 모두 금화여서 무거웠기 때문에 20만원을 모스크바에 보관시키고 40만원을 가지고 귀환 길에 올랐소. 그런데 우연히 고려공산당 대표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있던 김립과 치타에서 만났는데 이에 두사람은 공모하여 이 자금은 임시정부에 교부할 필요없이 우리 동지들끼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한형권으로 하여금 다시 모스크바에 가서 맡겨 두었던 2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소.

여운형이 언급한 이동휘의 ‘야심’이 임시정부를 분열시켰을 뿐 아니라⁵⁰⁾ ‘고려공산당마저 이른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갈라져 버리게 했다.’⁵¹⁾는 것이 이정식의 평가이다. 이정식은 이어 말하길

‘200만 루블중 60만루블만을 받은 후 김립이 배달사고를 일으켜 140만 루블은 받지 못했으니 참으

48)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p44~45

49) 안창호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1월23일 9시경에 국무총리 래방하야 왈 아국, 즉 러시아에 파원으로 선정한 여운형군을 보내면 아령한인의 인심을 수습하기에 곤란한 즉 정지하자 함에 다시 생각하자 하다.”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도산안창호전집, 제4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p846) "1월 31일 토. 이총리 래방 왈 아국에 밀파원 한형권을 파송하였노라 하고 여운형군을 절대로 파송치 않겠노라 함으로, 여 답왈 국무원에서 기결사안을 독단히 정지시킵이 불가하니 다시 국무원에 제의함은 가하다 하다.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도산안창호전집, 제4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p862)

50) 이에 대한 이정식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이동휘와 김립은 한형권을 파견하기 전부터 임정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국무총리 명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보이틴스키의 충고를 듣고 사임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단 자금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임시정부가 필요치 않았다. 이동휘는 오로지 불세비키와 제휴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를 무너트리는 일만이 진정한 독립운동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이승만, 안창호, 이동녕등은 미국과 유럽나라들을 상대로 한 독립청원운동 아니면 실력양성운동을 주장하고 있었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이정식, 위책, p294)

51) 반병률, 김립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2집(2005년 봄호), p63~102

로 황당한 일이다. 이동회의 책사 김립은 너무나 근시안 적이었다. 김립이 지은 죄악은 레닌정부와 국제공산당이 품고 있던 조선운동가들에 대한 이미지를 땅속으로 떨어친 것이다. 레닌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의 금피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김립, 한형권, 이동회등은 첫걸음에서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조선사람들의 신용을 추락시켜 버렸다.’⁵²⁾

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코민테른자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민족대회 개최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동회의 상해파는 이 대회가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하는 대회임을 알면서도 최팔용, 장덕수의 제안으로 상해파의 재정을 맡아보던 김철수를 통해 김규식, 여운형, 나용균, 김상덕, 정광호, 장덕진등 6명의 여비를 대주었다.⁵³⁾ 당시 이 여행의 주도자였던 여운형이 속해 있었던 이르쿠츠크파의 경제사정은 열악하여 이러한 비용을 댈 형편이 안되었다.⁵⁴⁾ 코민테른 자금은 3번에 걸쳐 한국독립운동진영에 지원되었고 이중 우사일행의 여행자금은 2차코민테른 자금이였다.

1차코민테른자금

19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인사회당 제2차 대회에서는 한국혁명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당대회에서 결의된 ‘극동의 조선인들과 모스크바와의 소비에트 정부 사이의 관계 정립에 관한 문제’⁵⁵⁾의 해결을 위해 이동회는 1919년 4월 25일에 박진순, 박애, 이한영등 3인을 사절단으로 선출하여 코민테른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레닌정부에 보내는 축하문과 코민테른에 제출할 보고서 ‘조선에서 사회주의운동’을 갖고 1919년 7월 블라디보스톡을 떠났다. 그러나 박애와 이한영은 도중에 장질부사에 걸려와병했으며 박진순만이 한 볼셰비키 지도자의 도움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⁵⁶⁾ 그는 1919년 11월 하순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코민테른에 가입하고 한인사회당 명부를 코민테른 당국에 제출했다. 코민테른은 그를 따듯이 환영하고 운동자금을 주었다. 김학준은 이 당시 박진순의 행적에 대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1919년 8월5일에 모스크바를 떠나 극동으로 여행하던 중 김철훈등의 이르쿠츠크파에 강탈당했다. 그사이 이르쿠츠크에서 코민테른 극동서기국 책임자 슈미야츠키의 지원아래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를 전로한인공산당으로 확대한 김철훈과 오하목등은 전로한인공산당이 러시아 전 한인의 공산당임을 내세우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강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진순은 하는 수없이 그 돈을 빼앗기고 1919년 11월에 빈손으로 상해에 도착했다.⁵⁷⁾ 이동회는 이런 배경에서 임정 국무총리로서 코민테른의 신임을 얻고자 했다. 그리하여 박진순을 다시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으로 파견했다.⁵⁸⁾

52) , 위책, p294~295

53) 김철수, 김철수친필유고, p354. 나용균은 김철수가 간사장인 2.8구락부의 대표였다; 한편 또다른 자금원으로 보천교도 있었다. ‘상해파고려공산당원이었던 최팔용, 장덕수가 보천교 차경석을 직접 만나 극동민족대회 참가 비용 1만원을 원조 받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대사연구소편, 1999, 遯耘 金鏗洙, p14)

54) 여운형은 자기가 속한 이르쿠츠크파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에 있었음을 일본경찰의 신문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해파는 풍부한 선전비로써 활동을 하였는데 반하여 우리들은 하등의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주재하고 있던 국제공산당의 보이틴스키에게 사정을 호소했는데 그는 상해파의 태도를 증오하고 우리들에게 동정을 보내어 지부 선전비로 매월 약 100원 정도 교부해 주었소.”(이정식, 위책, p290)

55) M.T.김, 1979. *Корей ск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이준형 역, 1990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역사비평사, 서울)] p130

56) 반병률, 위책, p238~239; 김학준, 위글, p301

57) 김학준, 위글, p302

58) Dae-sook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183 ;김학준, 위글, p302

위의 말대로라면 박진순이 1919년 8월말 모스크바를 떠났다가 돈을 빼앗긴 채 11월 상해에 도착하였고 이동휘가 11월 다시 파견한 것으로 된다. 이는 시간상으로도 사리에 맞지 않아 오류임이 분명하다. 전명혁에 의하면 1919년 11월 5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한 박진순은 12월 2일 코민테른 집행국 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고 한인사회당을 코민테른에 가입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⁵⁹⁾ 이 회의에는 지노비에프, 부하린, 카라한등 집행국 성원들과 더불어 조선의 박진순과 아제르바이잔의 나리마노프, 페르시아의 가이달한, 중국의 유소주 그리고 동방 각 국가, 민족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⁶⁰⁾ 이후 박진순은 1919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제7차 소비에트대회에 한인사회당 대표로 출석하여 조선의 상황을 전하고 한인사회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더불어 카라한을 비롯한 소비에트러시아 및 코민테른지도자들과 널리 접촉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⁶¹⁾ 그러나 자금을 운반한 인물은 박진순이 아니고 박애와 이한영이었다. 1919년 5월 한인사회당 당대회의 결의에 따라 당대표로서 박진순과 함께 파견되었던 박애와 이한영이 1920년 3월 귀환하면서 모스크바로부터 선전자금으로 받아온 것이다. 이들이 이르쿠츠크에서 풀어보니 액면가로 총400만 루블이었는데 짜르시대 당시 발행한 화폐가 200만루블, 2월혁명이후 두마(Duma)에서 발행한 화폐가 150만루블, 소비에트정부에서 발행한 화폐가 50만루블이었다. 그러나 박애와 이한영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볼셰비키들의 요구에 따라 200만루블은 이르쿠츠크에서 소련정부외교인민위원회 시베리아 전권위원인 가풍에게, 100만루블은 극동공화국의 북경주재 전권위원인 유린에게 넘겨줘야 했다. 결국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머지 100만루블(7,500 멕시코 달러)만을 이한영이 상해로 가져오게 되었다.⁶²⁾ 이것이 레닌정부로부터 우리 독립운동이 접수한 1차자금이었다.

2차코민테른자금

임정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코민테른자금은 2차자금이었다. 상해임정은 1920년 1월 22일 한형권, 여운형, 안공근 3인을 러시아파견 외교원으로 선정하였다. 한형권에 따르면 자신이 이 계획을 제안하였다 한다. 즉 그가 하얼빈에서 한중 합작신문인 ‘극동보’의

59) 劉孝鐘, 水野直樹, 2001, 《코민테른과 朝鮮-코민테른文書資料に基づく若干の考察》, 靑丘學術論集18, p201; 전명혁, 위글, p208. 이인섭과 김규면은 도착일시를 11월말 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인섭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 1968년 2월5일자; 김규면, 노병 김규면의 비망록에서, p8). 한편 김준엽, 김창순이 지적했듯이, “박진순이 한인의 공산당은 오직 상해의 공산주의자그룹임을 모스크바당국과 코민테른에 승복시켰다는 것은 이동휘파로서는 특기할만한 외교상의 공로라 아니할 수 없다.”(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p188)

60) 和田春樹, 劉孝鐘, 水野直樹, 2001, 《코민테른과 朝鮮-코민테른文書資料に基づく若干の考察》, 靑丘學術論集18, p201; 전명혁, 위글, p208

61) 和田春樹, 劉孝鐘, 水野直樹, 2001, 《코민테른과 朝鮮-코민테른文書資料に基づく若干の考察》, 靑丘學術論集18, p200; 전명혁, 위글, p208

62) Li Donkhi(이동휘)/Pakdinshun(박진순), “Narodnomu Kommissaru Inostr annykh Del. : Ubazhaemii Tovaritch Chichrin”, 1921년 10월 16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49, p13;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 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78. 한편 이광이 1921년 4월19일자로 ‘일꾸쓰크 공산당 고려중앙집행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한영이 북경의 유린에게 110만루블을 ‘任置하고 大洋 7천원 及 其後 3천원을 교환휴대하고 상해로 先到하여’라고 했는데 총금액 110만루블-대양1만원을 상해로 옮겼다고 하여 10만루블이 더 많다.(리광, 보고3호, 1921년 4월19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41, p2참조.) 당시 중국에서는 은화인 스페인달러와 멕시코달러가 중국화폐인 대양大洋, 소양小洋과 함께 통용되었는데 환율은 대체로 1:1이었으며, 1920년대 전반 쌀 1석의 값은 대략 대양15~17원이었다 한다.(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전인갑 박사 교시) 따라서 100만루블이면 쌀 500석에 해당한다.

책임자로 있을 때 러시아의 포타포프 중장이 중대사명을 띠고 상해에 온다는 소식을 러시아 어신문을 통하여 알았다는 것이다. 그는 곧바로 상해로 가서 포타포프를 만나 “일제타도를 위한 병력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니, 임시정부에서 정식대표를 파견하라는 권고를 해주었다고 한다. 한형권의 요청에 따라 포타포프는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주었고, 한형권이 이 문건을 번역하여 국무총리 이동휘에게 전달하고 대표 파견문제를 상의하였다. 마침내 이동휘가 주도한 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여운형과 안공근 자기가 대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⁶³⁾ 한형권의 회상은 거의 매일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안창호일기에서도 교차 확인된다. 즉 이동휘는 1920년 1월 16일 안창호를 방문하고 포타포프와의 교섭문제를 논의하고 2월 1일에는 이동휘가 안창호와 함께 포타포프 장군을 대동여사大東旅社에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 하였던 것이다.⁶⁴⁾

이동휘는 여운형의 러시아파견을 반대했는데 반대 이유로 내세운 “아령 한인의 인심수습 곤란”은 아마도 1919년 2월에 여운형이 노령을 방문하고 노령인사들의 상해행을 권유하고 다닌 일, 그 결과 이동녕, 조완구, 조성환등 국민의회 비주류 특히 기호파 인물들이 상해로 가서 상해임정을 주도한 일로 인하여 여운형에 대한 노령의 여론이 여전히 매우 비판적임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⁶⁵⁾

한편 한형권은 여운형이 몽골을 경유해서 가자는 안에 반대하고 당시 봉쇄되어 있었던 유럽 행로가 뚫리면 가자고 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혼자 떠났다고 회상하였다.⁶⁶⁾ 안창호등 친미파는 상해임정에서 코민테른 자금을 빌려오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에 대하여 전혀 다른 해석을 하였다. 소련정부는 차르시대에 진 빚을 갚지 않기로 선언한 ‘도둑놈의 정부’로서 그 정부의 돈을 갚다가 ‘신성한 독립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던 것이다.⁶⁷⁾ 그러나 1920년 4월말 이동휘를 지지하는 임정 4인조인 김립, 윤현진, 김철, 이규홍은 김립의 제안에 따라 한인사회당 간부인 한형권을 임정특사로 모스크바에 파견하였다.⁶⁸⁾

한형권은 외몽골의 수도 고를을 거쳐 노령 트로이츠크코프에 도착했고, 그날부터는 국민의 대우를 받아 특별차와 적위군의 호위를 받으며 이르쿠츠크를 거쳐 5월말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는 소비에트정부의 외무인민위원회 아시아외교담당 카라한(Kharahan)차석과 교섭을 벌인데 이어 수상 레닌 및 외무인민위원장 치체린(Chicherin)과도 세계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한국혁명의 현상과 일본의 앞날 및 중국의 현황을 문서로 보고한

63) , 혁명가의 회상록: 레닌과 담판, 독립자금20억원 획득, 삼천리6, 1948년 10월호 참조; 임시정부의 대외교와 국민대표회의의 전말, 카톨릭청년, 1948년 8월, 9월합병호 p69

64) 안창호일기, 1920년 1월 16일자, 2월1일자 참조

65) 반병률, 위책, p241

66) 한형권, 혁명가의 회상록: 레닌과 담판, 독립자금20억원 획득, 삼천리6, 1948년 10월호 참조

67) 도둑놈의 정부란 인식은 특히 미국과 친미파세력들로서는 당연한 결론이었다. 짜르전제정 시대와 케렌스키 임시정부시절에 미국에 진 부채와 볼셰비키 정권 수립이후에 소련정부가 몰수한 소련내의 미국인들의 재산, 그리고 소련내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종교적자유등의 소위 미소간 ‘현안문제’는 루스벨트가 1941년 제1차 소비에트 의정서를 체결하고 대독전에 임하는 소련에 무조건원조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이주천, 개진 초기 루스벨트의 대소정책과 제1차 소비에트의정서, 전북사학19.20집(1997.5), 전북대학사학회,1997,p662참조)

68) 친미파의 반대에 부딪히자 임정4인조라 불리던 이들은 1920년 4월경 총장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은밀히 2천원의 여비를 마련하여 한형권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1천원 이상의 예산지출은 재무총장인 이시영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재무차장 윤현진의 이름으로 5백원씩 4번 지출하여 2천원의 여비를 마련하였다.(김철수, 김철수 친필유고, p351) 한형권은 상해임정의 특사신임장과 밀서 그리고 이동휘가 극동공화국대통령 크라스노체코프에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1920년 4월 말경 상해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안창호일기, 1920년 1월 26일자, 28일자, 31일자; 이영일, 이동휘 성재선생, p77)

뒤 정식으로 2백만루블 차관을 요구했다.⁶⁹⁾ 소비에트정부는 약 1개월 뒤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응락했다. 이 과정에 박진순이 많이 도왔다.⁷⁰⁾

이 가운데 40만 루블을 박진순과 한형권이 받았다. 한형권은 임정특사자격이었고, 박진순은 한인사회당의 국제공산당 파견대표로 제2차코민테른에서 선출된 극동집행위원 자격이었다.⁷¹⁾ 40만 루블은 1상자 5사람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화 20부대씩 7상자로서, 1948년 한형권의 회고에 따르면 이는 1948년 당시 화폐로 4억원 상당이었다 한다.⁷²⁾ 또한 금화 4만 루블이면 소 1,200마리의 가격이였다.

소비에트정부의 외무인민위원회 아시아외교담당 카라한(Kharahan)차석은 한형권이 상해로 돌아갈 길은 큰돈을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모험적이므로 우선 약 20뿌드⁷³⁾금전을 갖고 갈 것을 제의했다. 당시 소비에트러시아의 국고에는 순금전만이 있었다. 이 20뿌드 중량의 금전은 약40만 루블에 해당됐다. 한형권은 이 금전을 특별열차에 싣고 호위병 4명과 함께 1920년 10월경 모스크바를 떠났다. 그는 도중에 옴스크등지에서 며칠 머문 뒤 베르흐네우진스크⁷⁴⁾에 도착하는 즉시 상해로부터 온 임정 국무원 비서장 김립을 만났다. 김립은 임정에 내용이 일어나 현상유지도 어려운 형편이라 설명한 다음 한형권이 떠난 뒤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자신이 모스크바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상해를 떠나 모스크바로 가던 길이라고 말했다. 한형권은 임정의 원상회복이 급선무이니 그의 정부에 대한 보고서와 40만루블을 갖고 상해로 가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은 모스크바로 돌아가 160만루블 잔액을 받아 상해로 가겠노라고 했다. 그리하여 한형권은 모스크바로 떠났고 김립은 그 돈을 갖고 외몽골과 북경을 거쳐 1920년 12월에 상해에 도착했다. 한형권이 모스크바에 돌아와보니 상해로부터 그와 임정을 혈투는 편지들이 레닌정부에 쌓여 있었고 레닌정부는 나머지 금액의 지불을 거부하였다.⁷⁵⁾

소비에트러시아정부가 차관을 약속했을 때 한인사회당은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금이 도착할 무렵인 1920년 9월 김립은 국무원비서장을 사임했고, 이동휘는 임정과 결별직전이었다. 1920년말 자금이 도착한 후 이동휘와 김립은 모스크바자금을 배경으로 상해임정의 개혁을 위해 진력하였으나 자신들이 의도한 임정개혁이 이승만을 비롯한 다른 임정간부들의 반대로 좌절되자 모스크바 자금을 상해의 한인공산당 간부들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박진순의 회고에 따르면, 40만루블이 자신의 책임하에서 코민테른에 가입한 한인사회당으로 지급된 것 인만큼 당연하다는 것이었다.⁷⁶⁾ 그러나 한형권이 임정간부들의 반대로 하여 비밀리에 파견되긴 했지만 그가 한인사회당이 아닌 임정특사 신임장을 가지고 간

69) 한형권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제출하였다.

1. 귀 러시아소비에트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2. 귀국과 한국은 제국주의 침략주의자 일본을 타도하는 통일전선을 협진하여 있으므로 귀 정부는 귀 적위군이 가진 무장, 기타 군수품을 한국독립군에게 공급해 줄 것. 3. 우리 혁명정부에는 운동비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상당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으니 귀 정부는 계속적으로 차관을 승낙하되 제1기 금액 2백만루블을 지출하여 줄 것.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p176 ; 김홍일, 자유시사변전후, 사상계, 1965년 2월, p120)

70) 김학준, 위글, p305

71)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78

72) 반병률, 위책, p300

73) 1뿌드(puds)-250파운드

74) 베르흐네우진스크(Verkhneudinsk)는 현재의 울란우데(Ulan Ude)로 시베리아철도 노선상으로는 치타와 이르쿠츠크사이의 역이다. 울란우데로부터 바이칼호를 오른쪽 옆에 끼고 이르쿠츠크까지 운행하게 된다.

75) 김학준, 위글, p308

76) Pak Dinshun', <V Prezidium Krestintema : Dokladnaia zapiska>, p1: 반병률, 위책, p301

점. 임정4인조가 비밀리에 마련한 여비 5천원이 임정자금이었다는 점은 이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기엔 무리가 있다. 한인사회당과 임정, 지하혁명운동과 통일전선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상의 혼선이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의 김립과 한형권의 코민테른 자금에 대한 판단은 한인사회당의 통일전선운동노선에 내재했던 한계의 단면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40만루블 가운데 6만루블은 활동비로서 한형권에게 지불되었고⁷⁷⁾ 나머지 34만 루블중 12만루블은 한인공산당 중앙위 대표로 온 김립에게 넘겨졌다. 김립은 자금의 일부인 8만루블을 소지하고 상해로 먼저 왔고, 나머지 4만루블은 세브란스 출신의사이며 한인사회당원으로서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태준에게 운송을 위임하였다.

한편 34만루블 중 22만루블은 박진순에게 넘겨졌다. 박진순은 이중 19만루블을 자신이 갖고, 박애에게 2만루블을, 이용에게 5,000루블을, 1921년 2월 치타에서 회합한 박애, 계봉우 권화순에게 5,000루블을 분배하여 운송케 했다. 이 돈들의 최종수령자는 다음과 같다. 김립의 8만루블은 1920년 12월경 상해의 한인사회당에(환차손:24,000루블), 이태준의 4만루블은 분실,⁷⁸⁾ 박진순의 19만루블은 1921년 3월 상해의 한인사회당에 전달되어, 김립과 박진순에 의해 상해로 운반된 총자금은 25만 4,300멕시코달러였다.⁷⁹⁾ 박애, 계봉우등의 3만루블은 김규면이 보관하다 자유시참변 때 흑룡주공산당위원회명의로 압수당했다.⁸⁰⁾

1921년 11월 한형권이 3차자금을 받아오기 전까지 코민테른 2차자금은 상해파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재정부장 김철수가 김규식일행에게 준 여비는 2차 코민테른 자금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차코민테른자금

임정은 1921년 중반 모스크바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외무차장 이회경을 주러시아대사로서 안공근과 함께 파견하여 나머지 차관 160만루블의 확보를 위한 양공산당의 경쟁에 끼어들

77) Pak Dinshun', <V Prezidium Krestintema : Dokladnaia zapiska>, p1 : 곧바로 치타로 가서 김규면과 이용을 만나 협의한 후, “만주에서 이동하여온 조선독립군”을 “빨치산군대와 연합시키는 사업준비에 부족품을 보충하는데 소용하라”고 하면서 4만루블을 건네주었다. 김규면, 노병 김규면의 비망록에서, p37~38 참조 : 반병률, 위책, p301

78) 반병률의 저서인 이동휘일대기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이태준은 북경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몽골로 들어갔으나, 1921년 2월 초 백위파 운게른 스테른베르크(Roman Fyodorovich Ungern-Sternberg)의 백위파부대 소속 일본군 장교들에게 발각되어 비참하게 처형되고 말았다. 결국 한인사회당 간부인 조응순에게 자금운송의 책임이 맡겨졌다. 마침내 조응순은 2월말 치타를 떠나 몽골을 거쳐 상해로 모스크바자금을 운송하는데 성공하였으니, 3월30일 무렵의 일이다.(반병률, 위책, p301) 그러나 이후의 연구성과등을 볼때 분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9) “Doklad: O Resul'atakh Robot Komissii po Vyiasneniiu Finansobykh Raschtov Kor.-Kom. Partii/ Shakh, Organizatsii”, 1922년 8월18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p.59.;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78

80) Li Donkhi(이동휘)/Pakdinshun(박진순), “Narodnomu Kommissaru Inostr annykh Del. : Ubazhaemii Tovaritch Chichrin”, 1921년 10월 16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49, p9-16 ; 김철수/이동휘, ”Denezhyi Ochot o Prikhode I Raskhode/ po Sosctoioniu 26 Maia 1921 g.”, 1922년 5월 31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p.31 ; Karakhan, "Chita Iansonu iz Karakhana", 1922년 6월 2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p.33. ; “Doklad: O Resul'atakh Robot Komissii po Vyiasneniiu Finansobykh Raschtov Kor.-Kom. Partii/ Shakh, Organizatsii”, 1922년 8월18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p.59.;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77~478 참조

었다.⁸¹⁾ 3차자금 20만 달러는 한형권이 소비에트러시아정부 외무인민위원장인 치체린과 교섭하여 결렬된 임시정부의 '내부정리'를 위한 운동비로 받아낸 것으로 당초 약속했던 200만 루블의 일부였다.⁸²⁾ 한형권은 국민의회의 파리기화회의 대표였던 고창일의 협력으로 독일의 베를린주재 소비에트러시아대사관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고⁸³⁾ 유럽을 거쳐 상해로 돌아왔으니⁸⁴⁾ 이때가 1921년 11월경이다.⁸⁵⁾ 한형권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세력이 각축을 벌였다. 상해파 역시 옛 한인사회당원인 한형권이 자파에게 자금을 내놓을 것을 바랐다. 임시정부는 앞서의 40만 루블은 이미 소진되었으니, 새로 가져온 20만달러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임시정부에도 고려공산당에도 자금을 내놓을 수 없게 된 어려운 처지에 빠진 한형권은 결국 자금을 함께 운반한 고창일 및 윤해등 국민의회 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국민대표회주비위원회에 자금을 쓰도록 했다. 임정측은 김립과 한형권이 자금을 내놓게 하기 위해 테러단을 조직하였다.⁸⁶⁾ 이와 함께 상해임정은 1922년 1월 26일자로 이동휘와 김립에 대한 성토문을 냈고⁸⁷⁾ 김상옥을 시켜 윤해의 암살을 시도했으나 마침내는 김립을 암살하였다.⁸⁸⁾

이처럼 김규식일행의 여행이 준비되던 1921년 말의 상황은 코민테른 자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긴장이 조성되어 있던 시절이었다. 결과로는 김규식일행도 문제의 코민테른 자금의 일부였던 여비를 사용한 셈이다. 코민테른자금논쟁은 향후 민족해방운동과정에서 운동자금에 대한 관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념과 전략, 조직등 운동의 골간이 튼튼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동자금은 운동의 동력이 아니라 질곡이 될 수도 있다. 당시 이론과 조직등 모든 면에서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동휘는 이 돈으로 중국본토와 만주, 시베리아, 일본 그리고 국내에까지 코민테른 동아총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는 코민테른2차대회에서 언급된 로이와 박진순의 '동방혁명중심론'과 연관된 조직건설과제였다고 판단된다. 이동휘는 우선 몇몇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⁸⁹⁾ 이동휘는 이어 1921년 5월에 일본공산주의자를 상해로 불러들였다. 곤도(近藤榮藏)였다. 곤도는 이동휘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曠民공산당(일명 동경공산당)의 조직준비에 착수했다. 이동휘는 이어 국내와도 접촉했다. 상당액의 자금이 상해회의에 참석했던 이봉주를 통해 국내공산주의자들에게

81) 이상재에게 보낸 편지, 1921년 7월 29일, 이화장소장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16, p181;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보낸 편지, 1921년 12월 우남문서16권 p201; 이시영이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 1921년 11월23일, 우남문서17권, p501

82) 한형권, 臨時政府의 對俄外交와 國民代表會議의 顛末, p71

83) "Ustinyi Doklad Tov. Ana po Voprosu o Vremennom Revoliunnom Koreiskom Prabitel'stve v Shankhae, ot 29 Aprelia Sego Goda", 1922년 5월 18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65, p.46.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81.

84) 한형권, 臨時政府의 對俄外交와 國民代表會議의 顛末, p71

85)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재무책임자인 김철수가 김립으로부터 건네받은 약15만 달러의 지출명세서에 따르면 한형권을 접대한 것이 1921년 11월25일과 28일 두차례인데 한형권이 이 무렵 상해에 도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C.S.Kim. Accountant and Member to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의 보고(영문 ,제목없음).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p.55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81)

86) "Voprosy: Predellozhennye Kommissiei po Obsledovaniuu Voporosa Finansovogo Razoru-zheniia Korkompartii-Chlenu Ob'tseka-Li-Don-Khy", 1922년 8월 15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및 연구센터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p.55 ;반병률, 위글, p481

87) 김정주, 조선통치사료7, 한국사료연구소, 1971, p99~101

88) 김철수, 친필 김철수유고, 역사비평5, 1989여름호, p354.

89) 이정식,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p44~45

게로 흘러들어왔다.⁹⁰⁾ 이동휘는 이어 만주와 간도 일대의 무장독립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원조했다.⁹¹⁾

동아총국과 관련 주목되는 것은 ‘김씨’이다.⁹²⁾ 중국공산당 창당멤버인 장국도張國燾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코민테른이 파송한 사람들은 보이틴스키와 양명차이(楊明齋)뿐이 아니었다.⁹³⁾ 나는 코민테른이 보낸 김이라는 조선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보이틴스키와는 관계가 없는 듯 했다. 내가 듣기로 그는 황계민(黃介民:항일구국단 단장)과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상하이에 있는 한국임시정부와 접촉을 했다. 김씨는 자기가 극동의 여러나라에 공산당을 조직하기 위하여 ‘40만루블’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⁹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씨는 소련에 공산주의가 실시되었으므로 그 나라에서는 돈이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몰수된 거창한 양의 금으로 여러나라에서 공산당을 조직하도록 하고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방법은 자기들의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를 바라고 있던 조선정치망명객들에게는 효과적이었는지 모른다. 중국의 구식혁명가들도 이 방법을 지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비웃었다. 이 당시 천두슈(陳獨秀)는 나에게 말하기를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지 않고, 노동대중속에서 당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오로지 돈에 의존해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혁명을 시작한다는 생각은 웃음거리로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⁹⁵⁾

이는 진독수의 조선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며, 사회주의운동뿐 아니라 독립운동 진영 전체가 경청할 만한 경고임에 분명하다. 김규식 역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격렬하게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중심에 바로 ‘돈’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위의 비판은 이동휘보다 보이틴스키에게 더 필요했으며 심지어 진독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비판이었다. 한편 코민테른자금에 대해 더 절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르쿠츠크파였으나 이르쿠츠크파는 은근히 비켜서서 심판관노릇을 하였다. ‘당의 기초확립’이란 비판에 가장 취약했지만 논고에 가까운

90) 국내로 들어온 자금은 공산주의 이외의 일에 소비되어 말썽을 일으켰다. 최팔용등 문화운동자들이 주로 출판과 문화운동에 이 돈을 썼던 것 같다. 이것이 ‘공산주의 선전비의 낭비사건’ 또는 ‘사기공산당사건’이었다. (이정식,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p44~45)

91) 이와관련하여 김준엽, 김창순은 “무장독립단에 대한 이동휘의 관심과 지원은 끊임없었다. 이것으로 보면 이동휘의 공산주의란 것은 확실히 파격적인 요소가 많았다. 민족진영의 독립운동가들과 구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르쿠츠크파로부터 민족주의자라는 지탄과 사상의 순수성을 의심받은 것은 차라리 자업자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썼다. (김준엽,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p239)

92) 이정식은 김씨를 김만겸으로 보았고 반병률은 김립으로 보았다.

93) 동아총국의 결성은 김립과 박진순이 주도한 베르호네우진스크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었지만 이미 국제공산당에서 보이틴스키에게 위임된 사항이었다. 1920년 12월 중순 상해의 진독수집에서 보이틴스키를 비롯 한인 대표로서 여운형, 진독수, 그리고 일본에서 온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등 6,7명의 아시아혁명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총국(또는 극동공산당동맹)을 조직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오스기는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의 혁명가들을 평하여, “조선의 동지는 명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중국의 동지(진독수)는 벌써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자였으나 아직 공산당의 ‘철의 규율’이라는 감정에 물들지는 아니하였다”고 평하였다. 오스기 자신 역시 무정부주의자로서 극동공산당동맹이나 국제공산당동맹에 가입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보이틴스키가 주도한 동아총국의 결성도 실패하고 말았다. (개조, 1923년 7월호, p111; 이해환편, 조선독립혈사(菊露社, 1946), p17~19)

94) 베르호네우진스크에서 김립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극동대표로 선출된 박진순 그리고 한형권과의 회합에서 동아총국을 조직하기로 하였다면 김립의 활동 역시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병률, 위책, p318). 1920년 말 원세훈이 “한계 대러시아 외교까지도 상해의 김모일인의 손에 전권이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 것도 이러한 심중에 무게를 실어준다.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201참조)

95) Chang Kuo-t'ao, The Ris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1921~1927), 1권 p122~123

비난전을 시작하면서 이 논쟁에 불을 지핀 것도 이르쿠츠크파였다. 이르쿠츠크파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츠키는 “한인부 위원들이 협잡배이니 신문에 공포하라”는 명령을 극동부에 내렸다.⁹⁶⁾ 동양비서부의 이런 방침에 호응하여 이르쿠츠크파와 연합한 국민의회파의 기관지 ‘자유보’의 주필인 최의수⁹⁷⁾가 한인사회당간부들이 모스크바자금 40만루블을 낭비하고 있는데 김립이 중국인 기생을 첩으로 들이고 호화향락생활을 하고 있으며, 김하구는 간도에다 토지를 샀다는 등등의 비방. 중상 기사를 실었다.⁹⁸⁾ 이 기사내용은 상해임정 당국자들을 비롯한 우파계열 인사들에 의해 이동휘와 한인사회당 간부들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고, 김구의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후일 많은 저서와 그들에 비판없이 인용되기에 이르렀다.⁹⁹⁾ 김준엽에 의하면 여운형이 김만겸, 안병찬등과 이르쿠츠크파에 가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돈문제였다.¹⁰⁰⁾ 돈의 출처는 상해파였으므로 분명 저울에 달린 갈고리의 떨림은 상해파를 향하고 있었지만 저울의 눈금은 이르쿠츠크파를 향하고 있었다. 이르쿠츠크파가 해석과 논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규식일행은 여행자금을 제공한 상해파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행길

김규식일행은 극동민족대회 참석을 위해 장가구에서 몽골의 수도인 고륜(울란바토르)을 거쳐 이르쿠츠크로 여행했다. 이들이 거쳐간 행로는 이미 1년전 한형권이 거쳐간 행로이기도 했다. 1920년 1월 22일 상해임정은 한형권, 여운형, 안공근 3인을 러시아파견 외교원으로 선정하였을 때 여운형이 몽골을 경유해서 가자는 안에 반대하고 당시 봉쇄되어 있었던 유럽으로 가는 해로가 뚫리면 가자고 하여, 한형권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혼자 떠났다.¹⁰¹⁾ 이제 여운형은 자신이 반대했던 한형권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다.

그런 길이 김규식, 여운형의 여행길로 유명해 진 것은 뉘니뉘니해도 1936년 뛰어난 필력으로 쓰여져 발표된 여운형의 여행기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편한 길인 기차길을 택하지 않고 풍천노숙의 고난을 택한 것은 백위군의 반란과, 일본스파이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다.¹⁰²⁾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길은 김규식에겐 두 번이나 통행한 익숙한 길이었다. 김규식의 자필이력서에 의하면

“1916년에 상해 천진 및 홍콩의 미국-스칸디나비아계 큰 회사인 마이어회사(Myer & Co.,Ltd)의 장가구부지배인으로 입사했고 1918년에는 우르가(고륜)로 돌아가서 새 지점을 개설하여 그곳 지배인이 됨. 얼마 후 천진으로 되돌아와 Fearon Daniel Co.,Inc(미국계회사)의 수입부에 입사하여 중국 각지에

96) 高麗共產黨の沿革, p12; 반병률, 위책, p316

97) 최의수는 본래 한인사회당계열이었다가 국민의회로 전향하였다.

98) 이인섭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1968년 1월18일자); 반병률, 위책, p316

99) 김구, 백범일지, p200

100) 1920년 말경 코민테른 자금이 상해에 도착했을 때 국내자금의 할당에 있어서 김만겸은 자신이 생각했던 인물들에게 자금 지급이 안되자 김만겸 여운형 안병찬등은 이동휘에게 코민테른 자금 사용용도를 요구하였다.(김정주편, 조선통치사료 제7권, 한국사료연구소, 1971, p166) 그러나 이동휘는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김립등 자신의 동료들을 두둔하였다. 그리하여 김만겸, 여운형, 안병찬등은 이때부터 결정적으로 이르쿠츠크파에 가담하게 되었다.(김준엽, 김창순, 위책, p303)

101) 한형권, 혁명가의 회상록:레닌과 담판, 독립자금20억원 획득, 삼천리6, 1948년 10월호 참조

102) 한형권이 1920년 4월 이 길을 택했을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백위파 옹호론의 전선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보다 1년전인 1919년 모스크바외교를 위해 박진순일행이 출발했을 때는 연해주와 러시아사가 백위파에 의해 장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1~2년전에 비하면 훨씬 안전해졌지만 공식적으로 일본군대가 철수하고 백위파가 전멸한 상태에서도 일본 스파이들의 활동은 여전히 불안요소였던 것이다.

텔코전구를 다수 판매하고 설치함”

이라 했다. 그리고 그는 1918년 3월에 마이어회사에서 몽골의 수도 고륜(우르가, 울란바토로)에 지점을 열게되어 다시 몽골에 갔다. 몽골에 가는 길은 약 1천킬로나 되었고 50일이 걸렸는데, 11일간이나 눈에 싸여 중도에서 머물렀고 37일간이나 낙타를 타고 갔다.¹⁰³⁾ 따라서 여운형의 여행기에서 읽혀지는 분위기와 달리 고륜까지의 여정을 주도한 것은 김규식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운형이 기록한 여행기의 미덕은 목적지만이 아니라 여행길 자체에도 세심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원래의 목적지였던 이르쿠츠크장면은 기억을 지우려는 듯이 심하게 생략되어 있기까지 하다. 김규식일행의 여행길은 당시 우리의 독립운동이 처한 유라시아의 맥락 보여주는 역사의 현상이었다. 공자가 인생의 7할을 보냈다고 하는 길(道)은 소통의 공간이었다. 소통되는 것만이 기록되는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는 길 위에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여행길의 선택은 체험의 범주와 지향을 스스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목적지에서의 체험 못지않게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상해파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공산당사이의 관계는 극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소개장을 가지고 가는 여행자들은 다른파의 사람들에게 이 소개장을 가로채일 경우 목숨조차 위태로웠다. 양파간에는 폭력을 넘어 암살이란 방식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해파 사람들은 러시아를 갈 때 이르쿠츠크를 우회하여 가야만 했다.¹⁰⁴⁾ 1921년 9월 이동휘와 박진순이 모스크바를 갈 때 해로를 통해 유럽을 우회하여 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1년전만해도 상해파의 한형권이 선택한 길을 김규식, 여운형 일행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1년만에 악화되고 역전된 양파의 갈등지형과 이 길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르쿠츠크파의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운형이 가고자 했던 유럽행로를 이동휘가 가게 되고, 한형권이 가고자 했던 시베리아행로를 여운형이 가게 되는 엇갈린 상황에서 길의 의미를 읽게 된다. 길 위에 이미 사람관계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 김규식일행이 생각했던 여행길은 상해를 떠나 천진을 거치고, 다시 만주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잠입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천진발 봉천행 기차안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일본밀정을 만나게되자 가장 험난한 루트인 장가구-몽골루트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만주는 장쥘린(張作霖)군벌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하얼빈까지의 철도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다. 만주 철도는 원래 제정러시아가 건축한 것인데 러일전쟁을 매듭지으면서 일본이 하얼빈에서 따렌(大連)까지의 구간을 양도받아서 남만주철도회사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상해에서 소비에트러시아 국경까지 가려면 일본이 관장하는 구간을 지나야 했는데 산하이관(山海關)을 넘어서 랴오닝성(遼寧省)으로 접어들면 일본헌병이나 경찰이 불령선인(不逞鮮人)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¹⁰⁵⁾ 일본은 소비에트러시아의 내전을 가장 강력히 지원하는 외국 세력이었다. 우사일행은 정점을 지나긴 했지만 당시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던 러시아내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비에트러시아 내전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는 내전중이었다. 이때는 1922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103) .심지연, 우사김규식생애와 사상1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우사연구회 엮음, 한울, 2000, p46~47

104) 김방, 이동휘연구, 국학자료원, 2006, p209; 張道政 高麗共產黨의沿革, p14

105) 이정식, 위책, p304~305

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소비에트러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뒤 레닌이 발표한 1917년 11월 8일의 ‘평화의 포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는 약탈적인 침략전쟁을 ‘인류에 대한 최대의 범죄로 생각한다’라고 성명하고 유혈전쟁을 중지하고 공정한 민주주의적 강화를 위한 교섭을 즉각 시작하도록 모든 1차대전 교전국에 호소하였다.¹⁰⁶⁾

그결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¹⁰⁷⁾에서의 평화협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Treaty of Brest-Litovsk) 서명은 독일을 위시한 동맹국들과 싸우던 연합국을 크게 당황케 했으며, 볼셰비키(공산당)와 사회혁명당¹⁰⁸⁾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고, 양자의 연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국주의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레닌의 원칙은 확고했다.¹⁰⁹⁾ 1918년 3월의 러시아공산당제7차대회는 전쟁과 강화에 대한 결의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한 제국주의국가들의 군사적 침공(동서양측으로부터)이 몇 번이나 되풀이 발생한 것은 지금 막 시작된 사회주의혁명시대의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¹¹⁰⁾ 이 과학적인 경고는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빨리 확인되었다. 제국주의국가들은 일천한 신생소비에트국가를 향해 대대적인 침략을 가해온 것이다.

평화조약체결 후 몇 개월 동안 러시아의 양대 반레닌주의 세력은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고젠스키는 연해주에서 그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1918년 3월 연해주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주(州) 소비에트 3차대회가 소집되었다. 우익 사회주의자들이 ‘배신적인 브레스트-리토프스키조약’과 소비에트 권력의 토지정책에 관해 선동적인 목청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의 통합에 전 대표의 90%가 찬성하였다. 멘셰비키와 우파 사회혁명당원들의 강세는 공허한 것이었다.”¹¹¹⁾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계열이 공동행동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반레닌주의 양대세력 중 하나인 비볼셰비키 좌파세력이었다. 또 다른 세력은 쿠반 초원의 의용군을 주축으로 한 우익 백군세력이었다.¹¹²⁾ 백군은

106) Dokumenty vneshnei politiki SSSR, I, p11~12 ;G.I.Tunkin, , p30. 그러면서도 레닌은 방위를 위한 전쟁은 인정하였다. “장래의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는 ‘부르조아지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서’만 전쟁에 호소한다.”(KPSS v rezoliutsiakh i resheniakh s" ezdov, konferentsii I plenumov TsK (Moscow: Gospolitizdat, 1954), I, p329; G.I.Tunkin, 위책, p30)

107) 벨로루시 브레스토리토프스크(Brest-Litovsk)에서 독일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1918.2.9)와 소비에트러시아(1918.3.3)를 상대로 체결한 평화조약. 소비에트정부가 1917년 11월 8일 평화협상을 요구하므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시간을 끌자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와 먼저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그 뒤 다음해인 소비에트정부가 체결했다. 그 결과 소비에트정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트해지역, 핀란드등을 잃었다. 이중 우크라이나는 내전기간 중 되찾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맺은 이 조약은 1918년 11월 11일 동맹국의 패배를 뜻하는 휴전이 체결되자 폐기되었다.

108) 사회혁명당은 제정러시아 말기에 등장한 정당으로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분업의 철폐를 주장하는 등 ‘인민주의’전통과 마르크스주의적인 요소를 혼합한 농업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레닌등이 주도한 사회민주당과 한때 각축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식인정당’에 머무름으로써 노동자 또는 농민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Charles Tilly, European Revolutions,1492-1992,CRITICA,1993: 찰스틸리, 윤승준역, 유럽혁명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새물결, 2000, p361)

109) 1914년 1차대전이 발발하자 다른 혁명가(카우츠키등)들은 1912년 바젤선언이 채택한 지도지침을 포기했다. 바젤선언은 제2인터내셔널이 전쟁에 관한 입장으로 채택한 지침이었다. 오직 레닌만이 이를 고수했다. 레닌은 전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전쟁이 야기하는 위기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본주의를 전복시킨다는 것이었다.(P.H.비거, 소련의 전쟁관,평화관,중립관, 형성사, 1984, p52)혁명전 레닌의 구상은 그의 동지들조차 배척할 정도였다. 슬라버에 지적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유럽대륙을 둘로 쪼갠 이 군사적 갈등의 시대에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한다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 자기나라의 애국적열정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었다. (슬라보에 지적, 지적이만난 레닌, 교양인, 2008, p8참조)

110) KPSS v rezoliutsiakh i resheniakh s" ezdov, konferentsii I plenumov TsK (Moscow: Gospolitizdat, 1954), I, p404; G.I.Tunkin, 위책, p31

111) 고젠스키,극동의 혁명운동에 한인의 참여,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러시아편 II), 1923

112) 백군(White Guard)또는 백위파는 처음엔 반볼셰비키세력 전체를 지칭했다. 극우부터 사회혁명당까지 포괄

1917년 겨울 10월혁명의 모진 고난을 겪고 난 뒤 1918년 4월 안톤 데니킨(Anton Ivanovich)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 군대로 비록 수는 적었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볼셰비키지도자들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평화협상에 매달리게 되자 제국 내의 주요단위 지역들이 자체 독립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핀란드, 몰다비아, 라트비아등이 그곳이었다. 조약이 서명된 뒤에는 리투아니아와 트란스카프카즈도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1918년 말에 가서는 카자크인들이 백군과 동맹을 맺고 볼셰비키정부에 대항했다. 3국동맹과 3국연합 양진영 사이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많은 강대국 군대가 러시아 제국 이곳저곳으로 쳐들어왔다.¹¹³⁾ 외국군이 러시아에 개입한 명분은 1차대전에서 러시아가 계속 동부전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러시아에 투자한 자본 특히 프랑스자본을 볼셰비키가 몰수하면서 서구세력은 10월혁명을 도둑질로 간주하는 상황이었다. 러시아 내전기 연합국동맹의 동기에 대해 훗날 조지케넌은 말하길, 당시 미국의 주요목적은 동맹국들과의 연대성을 표시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목적은 아시아대륙, 특히 소련의 극동지역에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또한 프랑스는 소련정부를 타도하고 가능한 한 자본주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한편 영국은 중동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연합동맹에 가담하였던 것이다.¹¹⁴⁾ 1920년 12월 6일에 행한 레닌의 연설에 의하면 레닌은 이러한 설명의 세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나 4개국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그들의 목적은 서로 상이하였다는 점은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다. 즉 연합국의 연합은 공통성이 없었으므로 실패할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이다.

체코군 반란

소비에트러시아 내전중 서구제국들에게 가장 그럴듯한 개입명분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9만에 달하는 체코군대의 반란이었다.¹¹⁵⁾ 1917년 2월 러시아혁명과 4월 미국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체코독립의 일대전환기가 된다. 프랑스에 있던 임시정부에서 체코의 국부격인 마사리크(Thomas G. Masaryk, 1850~1937)는 1917년 5월 러시아 수용소에 있는 전쟁포로를 석방하는 교섭에 성공하여 체코슬로바키아용병인 체코군단을 조직하였다.¹¹⁶⁾ 임시정부는 확장을 시도하여 1917년 9월에는 2개사단 약 3만명의 대군단으로 성장했으며 전쟁기간동안에는 약 9만의 체코인이 이 군단에 소속되었다.¹¹⁷⁾ 주로 투항한 오스

것이다. 좁은 의미에선 극우파와 군주론자로 한정짓기도 한다. 내전초기에 연합국이 백위파를 지원하며 농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이반하자 사회혁명당 좌파는 볼셰비키와 연합하게 된다.

113) 1918년 3월 소규모의 영국군 부대가 지방 소비에트의 동의하에 무르만스크에 상륙했고, 4월 5일에는 일본 군대가 아무런 승인도 없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으며 남부지역에는 터키군이 각각 진주했다. 독일군은 다방면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다른 반볼셰비키 세력으로 제정 러시아 정부가 오스트리아-헝가리 군대의 체코 및 슬로바키아 탈영병들에게 독자적인 부대형성을 허가함으로써 형성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이 있었다.

114) George F. Kennan, *The Decision To Intervene*(Faber, 1958), p82 ; P.H.비거, *소련의 전쟁관,평화관,중립관*, 형성사, 1984, p66

115) 1914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 동원된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패전을 원하면서도 전쟁에 가담해야하는 불운을 겪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탈영하여 영, 프, 러시아, 이탈리아등에 가담하였다. (안병영,오세철,동구제국의 역사적 형성, 박영사, 연세대학교동서문헌연구원, 1986, p17) 체코군 병력의 규모를 10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16) 체코군 문제는 제정러시아 시기까지 거슬러간다. 1차대전이 터지자 니콜라이2세는 러시아영토내의 체코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의 편성을 요구하는 체코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중대규모에 불과했으나 망명자들과 오스트리아-헝가리군으로 싸우다 잡힌 체코인포로들 중의 전향자들, 탈주병중의 지원자들의 보장을 받아 1917년에는 여단규모로 불어났으며 10월혁명이 일어날 즈음에는 2개사단으로 구성된 군단규모(38,500명)로까지 성장했다.

트리아군 포로를 중심으로 러시아 거주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으로 편성되었지만 지휘관중에는 러시아인장교가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마사리크는 연합국과의 외교를 통해 연합군 군사활동에 기여하면 독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러시아영내에서 대독선전포고를 한다.¹¹⁸⁾ 볼셰비키도 마사리크와의 협약을 수용했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위해 전날의 동맹군이었던 독일 및 오스트리아군과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당시 부대는 케렌스키임시정부시절 프랑스참모부에서 파견된 장교들이 지휘를 맡고 있었으나 이들의 수는 십수명에 불과했으며 현실적으로 부대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볼셰비키정부는 프랑스,체코군단과 협약을 맺어(1917년12월) 조속히 이들을 서부전선으로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아르헨젤스크나 페트로그라드등 러시아의 유럽지역은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다. 1918년 3월 3일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협정을 맺어 정전상태에 있었던 소비에트러시아정부는 체코군 문제에 신중히 대처해야했다.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3월 소비에트정부는 체코군을 제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다만 전쟁이 계속중인 유럽쪽 국경이 아닌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우회하는 머나먼 우회로를 통하도록 했다.¹¹⁹⁾ 즉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톡, 일본, 미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웠다. 미국,영국등 연합국은 이 사태를 소비에트러시아의 전복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1918년 봄 독일의 진격으로 혼비백산한 서방 연합국들은 최소한 러시아 군대의 일부나마 전쟁에 끌어들이므로써 동부에 또다른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레닌의 평화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은 소비에트러시아를 압박해왔다.

당시 우랄산맥 동쪽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각 도시에 모스크바가 보낸 활동가들이 수십명 단위로 결성되어 임시로 통제하는 상황이었으나 실제로 도시를 운영하는 대부분은 제정시대의 하급관리 또는 공무원들이었다. 시베리아철도자체는 구 철도노조가 그대로 소비에트가 되어 옛 철도관리국의 하급관리들의 보조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칼호수부터는 코사크부대의 아타만(두령)이었던 세묘노프가 인솔하는 백위군이 산발적으로 공세를 취하여 때때로 철도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따라서 프랑스 무관은 일본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만주리, 따렌(大連)경유의 철도수송을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수송행렬은 1918년 5월 첼라빈스크에서 큰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은데 그중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는 설에 의하면 그 원인의 일부를 볼셰비키정부의 부주의로 돌리는 것이다. 이들을 실은 군용열차는 첼라빈스크기차역에서 며칠간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에 의거하여 중앙동맹국으로 돌아가는 독일인, 오스트리아, 헝가리인(이중에는 체코인들도 있었다고 한다)포로들과 충돌이 생겼다. 특히 체코군단병사들은 보로실로프공세 기간동안 대량의 헝가리군 포로들을 잡았으며 이에 원한을 가지고 있던 헝가리군 포로들과 충돌하여 상당한 사

117)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 즈음에는 6만, 1차대전기간중 동부전선에서 9만명을 해아렸으며 최종적으로 4,112명이 전사했다.

118) 이 선전포고 덕분에 체코는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전쟁이 끝난 뒤 독립의 정당성을 한층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Charles Tilly, European Revolutions,1492-1992,CRITICA,1993: 찰스틸리, 윤승준역, 유럽혁명1492-1992 지배와 정복의 역사, 새물결, 2000, p370) 19세기 후반부터 체코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으며 1920년에 채택한 헌법도 서구정치문화의 산물이었다. 이런 서구문화의 영향은 초대대통령 마사리크의 사상에 그대로 계승되었다.(안병영,오세철,위책, p142)

119) 이 상황을 체코군의 주동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체코군대는 동쪽방향에서 오스트리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동쪽으로 더 멀리 기수를 돌려 시베리아를 횡단한 다음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했다.’ (Charles Tilly, 위책 p369)

상자가 나왔다. 첼라빈스크 볼셰비키당국은 이를 진정시키고자 사태의 주동자들을 붙잡아 연행했는데 이것이 실수였다. 중앙제국 포로들과는 달리 체코군병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포되는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무력을 쓴다는 것이 통제를 벗어나 그만 첼라빈스크 전체를 휩쓸어 버렸다. 프랑스군에서 파견된 장교들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가 너무 적었다. 5월 29일 육군인민위원 레온 트로츠키는 이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명령했다.¹²⁰⁾ 그러나 가이다(Radola Gajda)사령관 지휘아래 있던 체코군은 명령을 거부했고, 오히려 무장해제를 시도한 지방 소비에트를 격퇴했으며, 이들은 시베리아철도를 타고 순식간에 바이칼지역 제 1도시인 이르쿠츠크를 점령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연변의 도시들을 장악하기 시작했다.¹²¹⁾ 그런 다음 체코군은 러시아 내부로 진출했으며 지역장악 후 사회혁명당 계열들에게 정권을 넘겼다.¹²²⁾ 급기야 6월 4일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정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이 군단이 이제는 연합군의 일원임을 선언했다.¹²³⁾ 이 사태를 당시 연합군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치 체코군이 동부전선을 부활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착각했다. 특히 동부전선을 부활시킬 촉매가 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영국이었다. 프랑스 역시 기대하는 바가 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이들을 빨리 서부전선으로 이동시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던 카이저대공세를 막는데 관심이 있었으며 미국 또한 그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정부상태가 된 시베리아에서 이들의 수송을 가능하게 하려면 당시 만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체코군단의 구출을 위한 파병이 무익하다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지만 미국이 파병을 결정하자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최종적으로 2개사단 7만여명을 파병했다.¹²⁴⁾ 이들의 목표는 체코군의 구출과 시베리아극동3주(연해주, 흑룡강주, 바이칼주)에 일본의 괴뢰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시베리아내전을 기회로 일본은 10년이상 7만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폭력을 행사했다. 1918년 7월 6일 체코군의 한 부대는 블라디보스톡을 공격, 점령하여 연합국의 보호하에 있음을 선언했다. 현지에 있던 소비에트 정부요원 수명이 교전시 사망했다. 체코군은 점령 뒤 프랑스 자난 중장의 지휘하에 부대를 반대방향인 옴스크로 서진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옴스크에 있던 체코군과 미리 짠 각본이었다. 따라서 미일연합군도 이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¹²⁵⁾ 애초에 볼셰비키정권에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던 미국까지도 체코군을 구하려다보니 간접연합군이 되어 버렸다. 8월말까지 프랑스의 아난군¹²⁶⁾ 1개대대(1,200명), 영국군¹²⁷⁾ 1개대대가 블라디보스톡 전개를 종료했다. 9월말에 일본군은 자바

120) 아난 영내에 존재하는 외국군대의 무장해제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후일의 자유시참변과 해방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등과 비교가 요구된다.

121) 5월27일부터28일에는 옴스크와 이르쿠츠크, 29일에는 펜더, 31일에 톱스크, 6월8일에 사마라등이 체코군의 점령아래 들어갔다.

122) 이러한 상황을 틈타 2개의 반볼셰비키 세력이 수립되었다. 그 중 하나는 옴스크를 거점으로 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서부 시베리아 인민위원부'였고, 다른 하나는 사마라에서 사회혁명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헌법제정회의 위원단'이었다.

123)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80

124) 일본 해군은 영국의 요청을 수락, 1918년 1월 육전대와 함께 구식 전함 2척을 블라디보스톡에 파견했다. 일본이 해매고 있는 사이 체코군이 5월에 첼라빈스크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1918년 7월에 이어 8월11일에는 12사단(오오미 시게모토)이 블라디보스톡에 상륙했다. 연해주, 흑룡주동부를 9월18일까지 제압하며 블라고웨렌스크에 당도했다. 한편 만주로부터는 제7사단을 치타에, 3사단(오오바 지로)은 자바이칼주에 진격시켰다. 이 3개사단 7만명은 이후 4년 3개월 동안 시베리아에 주둔했다.

125) 미군은 7,000명을 블라디보스톡에 상륙시켰지만 그곳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톡을 장악하고 체코군의 탈출을 지원하라는 본국의 지시에 따라 체코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체코군은 도리어 영.불군의 지휘하에 모스크바공략을 노리고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26) 베트남 북부의 지명으로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연대가 결성되어 있었다

이칼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체코군단은 옴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영.불군은 옴스크, 미군은 블라디보스톡에 전개한 상태였다. 극동에 주둔한 연합국군이 각기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블라디보스톡과견군사령부(오오타니 요시히사)를 수립했다. 일단 이 사령부가 체코군, 영.불군, 미군, 일본군 그리고 그 외 8개국군을 통괄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화 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다. 당시 일본육군은 타국의 정규군을 지휘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¹²⁸⁾

1919년 연합국 정부들은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다. 원래의 개입 목적, 즉 대(對)독일 동부전선의 부활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1919년 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백군을 지원한 반면 영국과 미국 정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양대 진영의 화해를 획책했다. 그해 1월 미국 등의 연합국은 러시아의 모든 교전세력에게 프린키토 섬에서의 휴전협상을 제의했다. 공산진영은 평화협상을 수락했으나 백군은 거부했고 3월에는 공산당측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윌리엄 C. 불릿에게 평화제안을 전달했으나 이번에는 연합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연합국은 공산당과의 타협시도를 중단했으며, 콜차크와 테니킨에 대한 원조를 강화했다. 그러나 연합국의 군사개입은 규모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었고, 모두 합쳐 약 20만 정도의 병력이 투입되었을 뿐이었다. 공산당·백군·민족주의자들 간의 혼란스러운 전투에 당황한 우크라이나의 프랑스군은 총 한방 쏘지 않고 1919년 3월과 4월중에 잇달아 철수했다. 레닌의 예측대로 연합국의 연합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르항겔스크와 무르만스크의 영국군은 실제로 접전을 벌이기는 했으나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북부전선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유일하게 진정한 위협이 되었던 간섭세력은 극동지역에 체계적으로 주둔해 있던 일본군뿐이었다.¹²⁹⁾ 미국 병사의 마지막 수송선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는 순간부터 일본 점령군들은 모든 형식주의와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탄압의 준비를 서둘렀다. 도시 곳곳에 대포와 기관총을 배치하고, 거점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쌌으며, 각종 화기로 무장된 2만명의 병사들을 배치하였다.¹³⁰⁾ 1919년 3월 18일 러시아공산당제8차대회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 가운데 레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소비에트공화국이 장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제국과 나란히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결국은 어느쪽인가 일방측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말이 오기까지에 소비에트공화국과 부르조아제국간에는 일련의 극히 가공할 충돌의 발생이 불가피 할 것이다.”¹³¹⁾ 이제 레닌은 2개체제의 국가간에 ‘장기적인’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레닌이 혁명당시 선포한 이상적 평화선언은 제국주의의 공격이 있을 시 어쩔 수 없이 ‘방어적 전쟁’으로 응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현실에 적응해가고 있었다.¹³²⁾

127) 중심으로 하는 홍콩주재 부대

128) <http://blog.daum.net/zhy5532/1589074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zhy5532%2F15890740>(2009년 2월12일 검색)

129) 시베리아 내전기 일본은 총 10년 이상 7만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폭력을 행사했다.

130) 고젠스키,극동의 혁명운동에 한인의 참여,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러시아편 II), 1923

131) Lenin, "Otchet tsentral'nogo komiteta 18 marta," Polnoe sobranie sochinenii, XXXVIII, p139; G.I.Tunkin, 위책, p31

132) ‘방어적 전쟁’의 의미에 대해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의 풍자(A Caricature of Marxism)’(1916,가을)라는 책의 첫번째 항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전쟁이란 정책의 연속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이전에 추구된 정책, 즉 전쟁으로 유도했고, 전쟁을 야기시킨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말은 “전쟁의 성격(반동적이든지 혁명적이든지간에)은 누가 공격자이냐 또는 어느국가가 ‘적’이냐에 달려 있지 않고 어느 계급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정치의 연속이냐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the Renegade Kautsky 중 'What is

한편 시베리아 옴스크에서는 제정러시아 당시 해군제독이었던 콜차크(Kolchak, Aleksandr Vasilyevich)¹³³⁾이 영국장군 녹스의 요청을 받고 체코군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7월 10일 체코군은 시베리아철도를 따라 우랄산맥을 돌파했다. 레닌이 혁명의 전과수단으로 주목했던 기차가 이제 반혁명을 전파하고 있었다. 반공산주의 세력의 거점이 된 옴스크에서는 알렉산드르 콜차크 제독이 영국과 미국 군사위원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었으며, 무르만스크에 주둔해 있던 영국 군대는 공산당과 접전중이었다. 8월에는 영국군 보충부대가 북해의 아르항겔스크에 상륙했으며, 극동지역의 일본군 또한 크게 증강되었다. 1918년 9월 콜차크지휘하의 체코군은 콜차크를 수반으로 하는 옴스크정권(시베리아정권)의 수립에 큰 역할을 했으며 실패로 끝난 니콜라이황제의 구출작전에도 참가했다. 콜차크는 1918년 10월 반볼셰비키 정부의 장관이 되었다. 옴스크에서는 사회혁명당과 콜차크제독 사이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어갔다. 콜차크와 부관들은 좌익의 정치적 견해 일반을 혐오했으며, 모든 '붉은 세력'을 적대세력인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18년 11월 18일 옴스크에서 일으킨 군부 쿠데타의 성공으로 그는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콜차크 제독이 자신의 독재정권을 수립하자 각 세력간의 내분은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동부의 반공산주의 세력은 극우파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보다는 구제도의 복고를 선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콜차크의 쿠데타는 독일의 패전 및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콜차크정부 앞에는 모스크바와 장기적인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신속한 무장력 조직이 불가피하였다.

옴스크정권의 수반이 된 콜차크는 우랄 코사크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한때 그 수는 25만 명을 헤아렸다. 그러나 오랜 전쟁에 지쳐 있는 시베리아 주민은 동원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다. 1905~1906년 짜르정부의 예에 따라, 콜차크는 폭동 진압대를 파견하였고, 강제 동원, 마을의 무장해제와 테러 등을 저질렀다. 콜차크에 의해 실행된 무리한 강압정책은 대중의 정서에 커다란 분기점을 초래하였다. 유혈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들은 반소비에트 운동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빨치산 전투로 백군 친위대의 강압에 대응하였다. 1919년 상반기의 교전은 주로 동부에서 이루어졌다. 콜차크는 해군출신으로 육전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휘는 육군출신인 D.A.레베데프에게 맡겼다. 이 때문에 지휘계통에 관한 심한 대립이 있었다. 당시 적위군 상황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1919년 5월까지 우랄산맥 서편의 우파(Ufa)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체코부대들은 소비에트 군대와 교전에서 시베리아 백군친위대의 전위로써 투입되었다. 새로 전장에 도착한 적위군 제5군사령관은 그 유명한 투하체프스키였다. 붉은 군대는 바이칼로 곧장 신속히 진격했으며, 콜차크 잔당들을 물리침으로써, 극동의 노동대중의 눈에는 걸출한 영웅부대로 비쳐졌다. 백군 친위대와 일본·미국 점령군에 반대하는 빨치산 운동은 대규모적인 성격을 띠었다.¹³⁴⁾ 콜차크군은 우랄 산맥으로 진군, 4월 경에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4월 28일 적위군의 반격이 개시되어 6월에 우파(Ufa)가 함락되자 빨치산에게 시달리며 시베리아를 거쳐 퇴각했다. 결국 우파는 적위군에게 넘어

Internationalism?'(1918.10~11))

133) 해군제독이었던 콜차크는 2월혁명 뒤인 1917년 6월 압력을 받아 사임한 뒤 미국으로 갔다. 그 뒤 만주에 있는 백군을 통합해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일본 육군이 정권수립에 임해 책임자를 물색하고 있을 때 트랜스바이칼의 두령(아타만) 세묘노프가 첼라빈스크와 교전을 개시해 거점을 만주마을에 설치했다. 그때 부하는 110명에 지나지 않았다. 시베리아에 야심가는 많았지만 백군으로 활동한 것은 세묘노프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제정 시절 대위로 관록이 부족했다. 그런데 4월 흑해함대사령관 콜차크이 돌연 도쿄에 나타나 자신이 극동 백군의 지도자라고 자칭하기 시작했다.

134) 고젠스키, 극동의 혁명운동에 한인의 참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러시아편 II), 1923

갔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조직이었던 체코군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소모를 두려워한 프랑스 참모부에 의해 소극적인 활동만을 펼쳤다. 옴스크도 마침내 적위군에 넘어가고 열전 끝에 소규모의 영.불군과 일본군은 퇴각했다.¹³⁵⁾ 일본군은 프랑스참모부에게 “왜 체코군단을 전투에 투입시키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지만 그 대답은 “콜차크 한명과 수만명의 체코군을 교환할 수는 없다.”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프랑스의 관심은 언제나 체코군의 보존에만 있었다. 게다가 미군조차 옴스크정권이 일본의 시베리아 동부3주의 세력권화를 위한 완충지대정권일 뿐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럽주둔 미군은 라인란트에 주둔한 16,000명을 제외하면 이미 전원 철수한 상태였다. 이제 사실상 옴스크 정권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지원을 받는 바이칼주를 제외하곤 사실상 시베리아에서 백군세력은 소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체코군 역시 이런 백군편에 계속 남아 있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체코군단 참모장 가이다준장은 콜차크정권의 붕괴가 임박하자 옴스크정권에 대항하여 1919년 11월 반란을 일으켰다. 1919년 11월 14일 마침내 옴스크는 적위군에 넘어가고 체코군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백군들과 전투를 벌여 옴스크를 탈출했고 남은 옴스크정권 추종자들은 이르쿠츠크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콜차크가 이르쿠츠크로 향할 때 이 철수는 무시무시한 것으로 후대에 ‘죽음의 시베리아 행진’이라고 불렸다. 수많은 사람이 철수 중 동사했다. 체코군은 일본군 특무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콜차크를 체포하여 그를 포로로 삼았다. 체코군의 백위파에 대한 반란인 것이다. 모스크바의 레닌은 콜차크만을 넘기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¹³⁶⁾ 만일 체코군이 무사히 블라디보스톡까지 도착하고 싶다면 볼셰비키에게 콜차크를 넘겨주어야 했다. 콜차크는 연합군의 보호를 자청했지만 체코군은 결국 그를 이르쿠츠크 당국에 넘겼다. 기차가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을 때 콜차크세력이 11월에 수립한 정부는 곧바로(1920. 1. 4) 사회주의혁명당계의 정치중앙(Polittsentr')에 의해 전복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와 병사를 중심으로 실권을 장악한 것은 볼셰비키였다. 이르쿠츠크에서 그는 다시 볼셰비키민병대에게 인도되었다.(1920.1.15) 그는 즉결심판을 받고 처형되었으며, 그의 시체는 앙가라 강에 던져졌다.¹³⁷⁾ 체코군 본대와는 별도로 시베리아에서 탈출한 체코군은 아직 수중에 있던 대량의 무기를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판매하였다. 대부분의 체코군사들은 블라디보스톡을 경유 일본으로 건너가서 1개월간의 휴가를 즐긴 끝에 미국을 경유, 체코로 되돌아갔다. 콜차크가 처형되어 앙가라강에 던져진 것이 1920년 2월이었으므로 한행권이 1920년 4월경 상해를 떠나 장가구와 몽골을 거쳐 이르쿠츠크에 닿았을 때는 콜차크 처형 직후였던 셈이다. 발틱함대와 흑해함대의 수장으로서 용맹을 떨쳤으며, 시베리아 폭군으로 다시 악명을 떨쳤던 그의 처형은 백군의 종말을 의미했다.¹³⁸⁾

백위군

백위군은 체코군반란으로 비롯된 상황전개에 고무받았다. 남부전선은 코르닐로프가 백군을

135) 1차대전과 달리 기병끼리의 싸움이였다. 따라서 대도시를 제외하면 기병의 전초전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1921년 러시아-폴란드 전쟁까지 계속되었다. 도시와 철도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기병중대를 상당수 보유했지만 마필 총량은 15,000마리로서 군인 수에 비해 적었다. 당연히 적위군, 백군 모두 기병이 중심인 코사크가 전면에 나섰다. 원정군, 간섭군은 항만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 갇히고 말았다. 일본군도 실제로 부두와 철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군사행동이 곤란했다.

136) 당시 레닌으로서도 폴란드와의 전쟁 때문에 극동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137) 소련에서 러시아로 국호가 바뀐 뒤 앙가라강 근처 쓰나멘스키사원 옆에는 콜차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이는 러시아정교회의 부활과 함께 제정러시아로의 복고정서를 상징한다.

138) 이정식, 위책, p312~313

지휘하고 있었고, 1918년 4월 그가 전사한 뒤에는 데니킨(Denikin, Anton Ivanovich)이 그 뒤를 이어 남부 러시아 백군 사령관으로 반혁명세력을 이끌었다.¹³⁹⁾ 브랑겔(Wrangel, Pyotr Nikolayevich, Baron)은 1919년 여름 데니킨이 공세를 벌이는 동안 7월 2일 차리친(지금의 볼고그라드)을 점령했다.¹⁴⁰⁾ 우크라이나는 페틀류라(Petlyura, Semen Vasilyevich)가 독립을 선포했고 백러시아군은 1918년말 페틀류라 정부를 인수하여 우크라이나 일대를 장악했다.¹⁴¹⁾

만주 접경지역에서는 세묘노프,¹⁴²⁾ 카르미코프등이 동중국 철도와 도로 주위에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에 따른 일본 참모본부의 교활한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다. 체코슬라바키아 군대는 백위파들에게 자신들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합의에 도달한 그들은 공동으로 침략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극동에서 체코인 병력과 백군 친위대들은 연해주 zemstvo(Zemstvo:지방자치기관)와 블라디보스토크 시 듀마(Duma:의회)를 복구하였다.¹⁴³⁾ 1918년 늦여름 서둘러 적위군을 재정비한 공산당은 러시아 대부분의 탈환에 성공했다. 한편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920년 1월31일 로자노프(Sergei Nikolaevich Rozanov)정권이 러시아혁명세력에 의해 타도되었고, 사회혁명당계의 메드베데프(Aleksandr Semyonovich Medvedev)를 수반으로 하는 연해주임시 자치정부가 수립되었다.¹⁴⁴⁾ 이 정부는 외형상 중간과정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구성원의 다수가 볼셰비키인 친볼셰비키 정권이었다.¹⁴⁵⁾ 하바로브스크는 백위파인 카르미코프(Mikhail Vasilyevich Kalmykov)가 중국령으로 도피하고 1920년 2월15일 혁명군이 점령한 후 혁명적인 자치기관을 수립하였다.¹⁴⁶⁾ 카르미코프는 우수리강을 거쳐 중국령으로 도피하였으나 중국군에게 체포되었고 다시 도망하다가 사살되었다. 그는 세묘노프, 로자노프, 니바노프와 함께 한결같이 잔인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시베리아 주둔 미군사령관이었던 윌리엄 그레이브스(William S. Graves)는 카르미코프를 평가하여, “내가 이제껏 본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불한당”이라고 개탄할 정도였다.¹⁴⁷⁾ 하바로브스크의 혁명세력은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톡정부를 인정하였다. 이로써 일본군의 지원은 받는 백위파 세묘노프(Mikhail Grigorievich Semyonov 1890-1946)가 점령하고 있던 자바이칼지역을 제외한 극동러시아의 전지역이 백위파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세묘노프는 부리아트 몽골혈통의 자바이칼 카작으로서 제정러

139) 1919년초에 카프카스 북부지방을 장악했고 5월에는 대규모 공격에 나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모스크바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월 모스크바에서 402km 떨어진 오를에서 적위군(赤軍)에게 패한 뒤, 빨빨이 흩어진 부대를 이끌고 노보로시스크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패잔병들은 거기서 다시 크림으로 철수했다(1920. 3). 4월에 데니킨은 지휘권을 표트르 N. 브랑겔 장군에게 넘기고 프랑스로 갔다

140) 데니킨이 사임한 이후 그의 뒤를 이어 백군 사령관이 되었다(1920. 4). 그는 1920년 6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이 공세를 개시했다. 그러나 11월초 백군은 적위군에게 패배해 크림으로 퇴각했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철수했다.

141) 1919년 가을에 퇴각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소비에트 군대가 이 일대를 점령했다.

142) 한편 적위군은 라조라고 하는 수수께끼의 유대인이 이끄는 부대가 자바이칼을 중심으로 세묘노프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세묘노프군도 우수리스크의 코사크 카를이코후, 아무르의 코사크 가모후가 합류해 2000을 넘기 시작했다. 레베데프가 블라디보스톡에 백색정권을 수립했다. 일본해군은 육군과 달리 이 정권을 지지했다.

143) 고젠스키,극동의 혁명운동에 한인의 참여,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러시아편 II), 1923

144) 독립신문 1920년2월3일자 ; 고등법원감사국,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p9 ; 반병률, 위책, p284

145) 독립신문 1920년2월5일자, 3월6일자, 3월13일자 ; 반병률, 위책, p284

146) Norton Henry Kittredge, The Far Eastern Republic of Siberia,(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1923), p103; 반병률, 위책, p284~285

147) William S. Graves, America's Siberian Adventure(1918~1920),Jonathan Cape and Harrison Smith,1931,p90, p108, p128, p146 참조; 반병률, 위책, p284~285

시아시절 장교출신이다. 1914-17년 오스트리아-독일전선에서 복무했고 1917년 자바이칼의 군사코미사르에 임명되었다. 러시아 10월혁명 후인 1918년 일본의 지원을 받아 '아타만(Ataman;두령)'임을 선언하고 만주특별부대를 이끌고 자바이칼을 점령하고 1919년에는 치타에 부리아트자치공화국을 선포했다. 1920년 7,8월경 세묘노프군대는 당시 극동공화국의 수도 베르흐네우진스크를 공략했다. 이때 세묘노프의 군대에는 만주 봉천에서 모집된 일본군이 참가하고 있었다.¹⁴⁸⁾ 1920년 10월 치타가 적위군에 의해 함락되자 치타로부터 철수하여 만주로 도피하였다.¹⁴⁹⁾ 이로서 치타는 부리아트공화국에서 크라스노체코프가 이끄는 극동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¹⁵⁰⁾ 그 뒤 새롭게 등장한 백군은 러시아백위파 운게른 스테른베르그(Baron Roman Fyodorovich von Ungern-Sternberg 1886-1921)군대였다.

한형권이나 계봉우가 이 여로에 들어섰을 때만해도 치타를 중심으로 세묘노프군대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¹⁵¹⁾ 따라서 러시아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적위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던 것이다. 박진순일행의 1919년 여로는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길이었다. 이처럼 한인사회당-상해파그룹이 목숨을 건 모스크바외교의 성과에 대해 상해에서 논쟁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성과로만 결론 내리려 했던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한 일이다.

운게른남작

잔인하기로 악명높은 미친 남작(Mad Baron) 운게른은 세묘노프휘하의 지휘관이었다. 세묘노프 휘하에 있던 일본군도 운게른의 지휘하에 들어갔다. 세묘노프가 만주로 도피하자 운게른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1920년 10월 27, 28일 두차례 몽골점령을 시도한 바 있다. 운게른부대는 몽골국왕 보고드 칸과 봉건귀족들의 협력을 받아 1921년 2월 3일 고륜을 점령하고 있던 중국군벌을 분쇄하였다.¹⁵²⁾ 중국군대는 2월 3일 아침 고륜이 함락되자 전원퇴각을 시작하였다.¹⁵³⁾ 운게른군대는 2월 4일 중국군이 철수한 고륜을 완전 점령하였다.¹⁵⁴⁾ 일본의무성에 접수된 1921년 2월 2일자 고륜발 무선전신의 내용은, 운게른군의 고륜공격이

148) ‘ 軍ニ備參ハレタル 日本人ノ行動始末’(1921년 11월5일자); 제14676호 大阪朝日新聞夕刊 1921년 5월10일자, 天津特發 5월4일), “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89

149)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333 참조. 세묘노프는 만주로의 도피 후 다시 1921년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여 1922년에는 미상원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1922년이래 중국 따렌(大連)에서 거주하다가 1945년 8월 소련보안대에 의해 소련으로 압송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8월3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반병률, 의사 이태준의 항일민족운동과 몽골, 역사문화연구,2005.2, 박성대학교수정년기념특별호, p288)

150) 크라스노체코프는 미국사회당을 만들고 변호사를 했던 인물로 1917년 12월초 하바로프스크에서 소비에트의 완전한 점거로 완전한 승리를 얻은 후 12일~16일 열린 제3회극동지방소비에트대회에서 극동지방소비에트 집행위원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김알렉산드라 이동회동의 한인사회당 창당을 도왔다. 레닌에게 완충국가론을 제기하고 레닌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극동공화국이 성립된다. 극동공화국은 2년간 존속했다.

151) 일본의 제국주의가 뼈이깔까지의 극동전체를 강탈할 양으로 출병한지 이미 삼년이 되는데 지금도 그 놈의 세력이 치타에까지 백과 세미노프를 근거로 하여 그냥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외몽고루 통과하려는 결정을 잘게 된 것이다.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10집, 북우 계봉우자료집1, 꿈속의 꿈, 하, p264)

152) V.V Sushen'kin, "Borba Russkogo, Mongol'skogo Narodov protiv Belogvardeiskikh Band Ungerna" (백위파도당 운게른에 대한 러시아 몽골인민의 투쟁), Istoricheskii Arkhiv(Akademiia Nauk SSSR Institut Istorii), 4, 1957, Iul'avgust(6~8월호), Moskva, p71; 반병률 위글, p289

153) ‘ Baron 軍ニ參加セル邦人原某ニ關スル件’ 公信第229號, 天津總領事報告, 1921년 6월2일자, “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89

154) ‘ウンゲルン軍ニ備參ハレタル 日本人ノ行動始末’(1921년 11월5일자)“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89

대단히 치열했음을 짐작케 한다.¹⁵⁵⁾ 고륜을 점령한 운게른군대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러시아인, 부리아트인을 강제로 병졸에 편입시켰다. 뿐만아니라 운게른군대는 대대적인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는데 중국 변업(邊業)의 2개 은행에서 50만루블을 약탈하는 등 은화, 마제은(馬蹄銀), 금괴 등 약 수백만원을 모았다.¹⁵⁶⁾ 운게른부대의 일본군도 중국은행의 약탈에 참가하였다.¹⁵⁷⁾ 일본군의 가혹한 약탈행위는 중국상인들의 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¹⁵⁸⁾ 이들 일본인들은 무죄배로서 무절제하였는데 운게른은 오히려 이들을 우대하여 자신은 중국가옥에 거주하고 이들에게는 구 러시아관사를 제공하였다. 또 일본인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병을 배치하거나 포탄등 부족한 군수물자를 일본을 통해 보급받길 원하고 있었던 것¹⁵⁹⁾으로 봐서 수는 적지만 백군내에서 일본의 지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극동공화국이 운게른과의 전투가 결국 일본과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당시 고륜을 점령하고 있던 중국군 가오시린(Gao Silin)의 부대는 3천명의 병력에 달하는 중국주둔군의 최정예부대였는데 운게른군대에 편승하여 러시아민간인들에게 가혹한 학살을 자행한다. 이는 결국 중국군을 분열시켰다. 고륜거주 러시아인에 대한 학살을 절대 금하던 민간인 출신 장군인 진이(Chin I)는 가오시린과의 의견충돌로 운게른의 공격이 있기 전에 자신의 부대를 고륜으로부터 철수시킨 것이다.¹⁶⁰⁾ 가오시린은 러시아인들로부터 절취한 모든 재산을 갖고 중국으로 가는데 성공했고, 후일 그는 거기서 봉천군을 지휘하였다.¹⁶¹⁾

소비에트러시아 특히 극동공화국은 운게른과의 전쟁에 직면하여 대응체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빨치산 같은 비정규부대가 아닌 단련되고 잘 지휘되는 정규부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정치, 행정, 군사의 통일이라는 전형적인 소비에트식 군사원리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는 콜차코프의 교전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극동공화국대표 크라스노체코프가 모스크바외교인민위원회 치체린에게 1921년 6월3일 보낸 전문에

155) ‘2 2일 접수된 고륜발 무선전신에 의하면 고륜은 3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혈전 1주야 아군 사상4백여, 장차 격전중에 活佛은 奪去되다 운운.’ ‘第四百十號(北京發.1921년2월1·7일자) “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89

156) ‘ウンゲルン軍ニ備參はレタル 日本人ノ行動始末’(1921년 11월5일자); 제14676호 大阪朝日新聞夕刊 1921년 5월10일자, 天津特發 5월4일), “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89

157)운게른군대에 소속된 일본인과 한인은 고륜점령시 사망자가 발생하여 3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ウンゲルン軍ニ備參はレタル 日本人ノ行動始末’(1921년 11월5일자)“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89

158) ‘邦人ノ庫倫引上ニ關スル件’(機密第26號1921년5월24일자, 하얼빈總領事館 報告)“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90

159) 일본문서에 운게른의 고륜 점령당시 고륜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중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의사 吉田豊三 부부와 東七郎이라고 하는 치과의사 3명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당초 운게른은 이들 일본인을 위하여 보조병을 배치하여 보호하였다. 그런데 치과의사 東七郎이 러시아식당에서 일하는 러시아여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불량不良의 그리스인, 러시아인등과 왕래하는 불령한不逞漢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운게른은 보조를 철수시켰다. 이에 위협을 느낀 東七郎은 吉田豊三을 설득하여 만주리로 도피하였다. 당시 東七郎은 4,5천원의 은화와 마제은을 휴대하였다고 한다.('ウンゲルン軍ニ備參はレタル 日本人ノ行動始末'(1921년 11월5일자)“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94) 이들 일행은 운게른군대가 포탄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던 상황을 이용하여 운게른에게 하르빈지방에서 포탄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4월3일 통행증을 발급받아 고륜을 떠나 하르빈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邦人ノ庫倫引上ニ關スル件'(機密第26號1921년5월24일자, 하얼빈總領事館 報告)“露國革命一件-別冊 極東反過激派活動-別冊 ‘ウンゲルン’ノ庫倫攻撃” 日本外務省文書163-24-13-28-1.; 반병률, 위글, p294)

160) Boris Volkov, "About Ungern(Ob Ungern)", p48; 카흐타(Kiakhta)마이마첸(Maimachen)의 경우 약300명에 달하는 우르가(Urga;고륜)의 러시아 주민들은 중국인들에 의하여 학살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위책 p58) ; 반병률, 위글, p290

161) Boris Volkov, "About Ungern(Ob Ungern)", p58; 반병률, 위글, p290

의하면 이같은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임시정부는 좌파와의 연합까지도 의식하고 있다. 극동국조차도 이 문제에 열중하였으며 빨치산 활동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 본인의 견해로 이같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옹게른이 자바이칼의 견고한 다리가 되게 만든다. 일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옹게른을 격파하고 블라디보스톡의 무정부주의를 분쇄해야만 한다. 유감스럽게도 옹게른과의 첫 번째 충돌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그에게 주도권을 내주었고 우리는 소련영토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본인에 의해서 이르쿠츠크로부터 전달된 명제는 우리군대의 재조직의 필연성에 근거해서 그 계획을 기술했던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불가피하다

- 1) 새로운 총사령관의 신속한 파견
- 2) 그에게 군내부에서 견고한 노선의 필연성을 고무시킨다.
- 3) 전시기간에 총사령관, 정부대표, 정치위원등 3인으로 국방소비에트를 조직한다. 우리측 군사작전이 지니고 있는 국제적인 요소와 극단에서 극단으로 편향되어 있는 치타의 극동국 회원을 포함한 책임활동가들의 히스테리적인 동요등과 관련해 그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¹⁶²⁾

크라스노체코프의 위 전문은 자유시참변 직전에 작성된 것이며 자유시참변에 대한 해법으로서 그의 기획이 제안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시참변을 바라보는 극동공화국의 입장이 옹게른군대와의 교전이란 맥락에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몇일 뒤인 1921년 6월 8일 불상의 발신자로부터 몰로토프에게 보내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를 반대하는 몽골에서의 옹게른의 행위는 우리와 극동공화국 사이의 분리 위협등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입장에서 옹게른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중국정부와 협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전에 우리는 중국과 함께 몽골에서 은신처를 찾은 옹게른일당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고, 그 당시에 자바이칼철도를 점령한 옹게른을 쫓아내기 위한 공동투쟁의 재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¹⁶³⁾

결국 옹게른군대는 극동공화국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1920년 11월 거의 모든 백군세력이 진압된 상황에서 제국의 건설을 꿈꾸던 옹게른은 마지막 잔존세력으로서의 운명을 다한 것이다. 김규식, 여운형 일행은 고룡을 떠나 이르쿠츠크로 가는 여정에서 옹게른부대의 최후 격전지를 목격한다.

트로이카삽스크까지 하룻길을 남겼을 뿐인 우리는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시베리아 삼림지대는 벌써 그 풍모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경색절승한 풍경이 곳곳마다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기 시작했다. 도중 태잔의 한곳에서 점심을 먹고나서 다시 길을 계속한 우리는 광대한 대평원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300미터 가량 되어 보이는 산에 웅건 백작의 백색 반혁명군이 처참한 최후를 마친 전쟁터를 발견하였다. 산꼭대기에는 일찍이 백군이 최후의 발악을 하던 포대의 자취도 보이고 소와 말의 시체, 파괴된 차량과 다른 가지가지의 버려진 물건들의 산란한 파편이 넓은 평원을 덮고 그 위에 우울한 겨울 하늘에는 주린 독수리가 사람의 주검을 뜯어먹을 기회를 엿보느라고 배회하여 자못 참담한 광경은 이곳에서 멸망되어 간 수 만의 혼이 구할 길 없는 절망과 저주를 상징하는 듯싶었다.¹⁶⁴⁾

162)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3

163)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59

164) 시베리아를 거쳐서-나의 회상기 제5편, 여운형, 중앙, 1936.7 : 이정식, 위책, p698~699

이처럼 파리강화회의를 주도했던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 열강의 지원으로 성립한 백외과정권이 불세비키세력에 의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과 중령의 한인들간에는 3.1운동 당시 미국과 파리강화회의.국제연맹에 가졌던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1920년 3.1독립선언기념식 연설에서 장도정과 김하구는 “우리는 베르사이유강화회의에 다대한 기대를 두었다. 어찌하랴 私利利己의 단체만이 모여 우리들을 배척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배척한다”고 말했다.¹⁶⁵⁾ 이는 그 누구보다 파리강화회의의 현장에 있었던 김규식 역시 절감하는 바였다. 또한 성라자르역 근처 파리후기임정위원회 건물 바로 건너편 월슨호텔에 묵으면서 파리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던 베트남의 호치민도 마찬가지였다. “세계대전이 끝나자 월슨은 그토록 ‘고결한’ 민족 자결권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민중역시 그의 선언에 농락당하고 말았지요. 나는 월슨정책이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¹⁶⁶⁾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서 구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나 이승만과 국민회 중앙총회와의 대립 때문에 고심하다가 상해 임시정부로 돌아와서 이승만의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쪽에서 활동했다. 1921년 6월 18일자 일본 쪽 정보기록에 의하면 이승만 일파와 격론을 벌인 김규식이 북경으로 갈다는 설이 있다 했다.¹⁶⁷⁾ 김규식일행이 이르쿠츠크로 향하는 여로에서 일본 뿐 아니라 파리강화회의의 주최국들이 지원하는 백군관할지역을 통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1920년 11월에 러시아내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옹게른세력마저 궤망한 몽골루트가 여행길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이태준

한편 김규식은 이 여정에서 누구보다 마음 아픈 소식을 들어야했다. 자신의 권유로 몽골의 수도 고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의사 이태준의 죽음이었다. 여운형은 그의 기행문에서 ‘웅젠남작의 패잔군이 고륄을 노략할 때에 고륄의 주민뿐만 아니라 이태준 병원을 탈락하고 이군을 학살한 것이었다.’라고만 쓰고 있다.¹⁶⁸⁾ 이태준 피살 후 불과 8개월 후에 작성된 문서로 이동휘, 박진순이 소비에트정부 외무인민위원회에 제출한 1921년 10월 16일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20년 9월 외무인민위원회로부터 수령한 40만 루블은 나 박진순을 통하여 다음의 경로를 통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되었다. 김립동지(당중앙위원)는 내가 전달한 12만 루블을 상하이까지 운반하기로 하였다. 그는 우르가(고륄, 울란바토르)에 무사히 도착한 후 실패가능성(왜냐하면 당시 운게른의 도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카만(Kaman)과 우르가간의 교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을 염려하여 이태준(이태준의 호)동지에게 4만루블을 주었는데, 그는 김립이 떠난 2주후에 우르가를 떠나 북경으로 가기로 하였다. 이태준 동지는 우르가에 상주하는 우리의 연락원이었다.¹⁶⁹⁾ 후에 밝혀진 바 운게른의 우르가 점령시 그는 기적적으로 자기집에 두었던 금괴를 운게른정권의 가택수색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 북경의 새로운 정권이 발행한 비자를 서둘러 얻은 후 그는 우리가 있는 상하이로 떠났지만 불행히도 도중에 우르가로부터 시달된 명령에 따라 역류되어 우르가로 송치되어 운게른도당에게 총살

165) , 현대사자료27권, p273참조; 반병률, 위책, p285

166) 호치민, 식민주의를 타도하라, 프레시안북, 2009, p45~46

167) 김정명 편, 대한민국임시정부각료명부등 보고건, <조선독립운동>, 原書房, 1967, p454

168) 이정식, 위책, p685

169) 광복회 회장을 지낸 이강훈은 몽골의 이태준 병원에 가서 기식한바 있는데 독립운동가들이 하루에서4,50명이 매일 숙식을 함께했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반병률, 위글 p297)

되었다.¹⁷⁰⁾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의 부인이 이대암동지를 잘 알고 있던 어떤 미국인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귀중한 지하활동가의 한사람과 4만루블이 소실되고 말았다.¹⁷¹⁾

위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준은 이동휘가 창설한 한인사회당의 당원이었다. 이태준에게 코민테른 자금의 운송을 맡길 정도였던 것으로 봐서 한인사회당에서 차지했던 그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1920년 9월 22일 한인사회당-상해파의 핵심인물인 김립과 계봉우가 상해를 출발하여 소비에트러시아로 가는 길에서도 이태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았다.¹⁷²⁾ 더구나 상해파 고려공산당 중앙집행위 재무담당인 김철수가 소비에트정부에 제출한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의 재정보고에서 이태준의 부인 김은식에게 1921년 6월 9일 위로금 500루블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¹⁷³⁾ 한인사회당원으로서 이태준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해를 출발하기 전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당파에도 속하지 않고 있었던 김규식은 극동민족대회 참가를 계기로 이르쿠츠크파에 훨씬 접근하게 되는데 이는 이르쿠츠크로 가는 여정에서도 작동했다. 그는 상해파 당원이었던 이태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대신 그의 죽음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대신 이르쿠츠크파의 지도자중 하나인 남만춘의 누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1921년 11월 하순 고륜에 도착해 첫날밤을 몽골상사회사에 머문 우사일행은 다음날 소비에트 대표 옥홀라를 만났다.¹⁷⁴⁾ 옥홀라는 몽골혁명정부 고문인 에린치노프를 소개했다. 그의 본명은 엘베크 도로지 린치노¹⁷⁵⁾였

170) ‘ ,박진순의 보고서’에는 고륜으로부터 온 명령에 따라 고륜으로 압송되어 총살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약산 김원봉에 대해 쓴 박태원의 ‘약산과 의열단’에서는 고륜과 장가구,북경사이의 도중에서 운계근군대를 만나 처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태준을 알아본 일본인 吉田이 밀고했기 때문이다. (반병률, 위글, p292)

171) Li-Donkhi.PakDinShun, "Narodnomu Komioissaru Inostrannykh Del: Uvazhaemyi Tovarish Chicherin", 구코민테른문서보관소(현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소장문서,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49.11.14.; 반병률, 위글 p297

172) 계봉우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이 여행에서 이태준(이대암)으로부터 연락처 김현국, 러시아통역 김병권, 승용차와 운전수(마자르)등 전격적인 조력을 받고 있었다. “장가구에 내려 십진의원을 찾아가서 김현국동무를 면회하였다. 그는 외몽고 고륜에 있는 동의외국의 리대암동지와 서로 연락을 취하여 리길로 래왕하는 동지들을 인도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온홀 기차중에서 우리에게 일본 정탐의 혐의를 받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한 것도 또한 웃음거리로 되었다. 알고보니까 그사람은 리대암의 촉탁을 받아 무약하러 천지에 갖다오는 김병권이였다...여기로부터 우리는 그에게 향하여 시비리루 동행하자는 요구를 들이게 되었고 그는 그 요구를 반대하지 않았다...그것만 당행일 뿐아니라 리대암의 승객자동차가 어제 이리루 향하여 떠났다는 전보를 보게 된 것도 또한 당행이였다. 우리가 거기에서 류한지 사흘되는 날 18일 밤에 기다리던 자동차가 당도하였다.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10집, 북우 계봉우자료집1, 꿈속의 꿈, 하 p268~269)

173) C.S.Kim(Accountant and Member to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구 코민테른문서보관소 소장문서, 분류번호 fond 495, opis' 135, delo 59, 1.1.14.; 반병률, 위글 p297

174) 우사가 고륜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과건되어 있던 소비에트 대표 옥홀라는 1921년 6월 자유시참변 당시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에서 일을 집행했던 인물과 동명이며, 트로이카삽스크의 사파로프는 1922년 극동민족대회 시 이동휘와 충돌하여 먹살을 잡힌 코민테른내 한국담당자와 동명이다. 여운형의 기행문에는 이들이 소비에트 대표라고 하고 있어 극동민족대회를 조직한 이르쿠츠크 극동비서국의 슈미야츠키와 연관된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차확인을 해보진 못했다. 사파로프는 1891년생으로 우사일행이 트로이카삽스크에서 그를 만났을 때 30세였다는 것은 이론가 그리고리 사파로프와 일치하나 그가 그 도시의 처녀와 약혼했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파로프는 레닌과 함께 핀란드역으로 가는 열차에 동승했을 때 젊은 아내 올라 라비치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이미 기혼자였기 때문이다. 여운형의 여행기는 다음과 같다. ‘당년 30세의 유대계 러시아인인 그는 쾌활하고 친절한 인텔리전트로 특히 유창하게 영어를 쓰고 있었으므로 나하고는 다시없는 좋은 말벗이였다. 아직 결혼 전이었으나 이 국경도시 제일가는 미인이라는 젊은 처녀와 약혼을 하여 이 여인은 아침저녁으로 찾아와서는 식사나 의복등 모든 일을 보아주는 것이였다.’(여운형, 나의 회상기 제4편 모스크바의 인상, 중앙, 1936.7;이정식, 위책, p699)

175) 그는 1920년 가을부터 러시아공산당시베리아국 동방민족부에서 활동하고 그해 단칸을 비롯한 몽골혁명파

다. 그는 한때 세묘노프와 연관된 대몽골주의 운동에 관여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엔 부리아트몽골의 혁명가로 1920~1925년 몽골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몽골에서는 중국군벌의 강압으로 자치가 취소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몽골의 정치적 주권회복을 목표로 내건 몇 개의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1919년 고륜의 중심부 후레에는 독립적인 두 개의 정치그룹이 조직, 결성 되었는데 하나는 1919년 말 수도의 중심부인 ‘준후레’에서 탄생한 후레파이고, 또 하나는 수도의 동쪽 끝 러시아영사관 언덕에서 성립된 영사관파이다. 이들이 연대해 1920년 6월경 몽골인민당을 결성했다. 인민당은 처음에는 소규모의 비밀조직으로 출발했다. 당시 몽골입장에서 보면 중국군벌의 억압을 배제하고 자치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세계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실적으로 볼셰비키정부 뿐이었다.¹⁷⁶⁾ 그 무렵 소비에트측도 이미 몽골문제를 담당하는 분과를 이르쿠츠크에 신설했다.¹⁷⁷⁾ 이를 주도한 인물이 에린치노프였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당시 이르쿠츠크파의 수장이었던 남만춘의 누이인 마류샤 남(南)이었다. 그녀는 블라디보스톡 출신이었고¹⁷⁸⁾ 남만춘의 여동생 남 알렉산드라 니키포로브나는 연해주 페르네이 구역당 제2비서로 있었다.¹⁷⁹⁾ 1920년 3월에 개최된 이르쿠츠크당위원회 초대회장이 남만춘이었으며 2대회장이 그의 아버지인 남창석이었다. 두 부자가 번갈아 이르쿠츠크파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들에겐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남창석과 남만춘 모두 백위파군대에서 일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¹⁸⁰⁾ 남만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는 초급장교에 불과했었고 게다가 혁명운동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이점이 10월 혁명 이후의 상황에서는 남만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¹⁸¹⁾는 점을 부각시킨다. 백위파장교였다가 혁명가가 된 남만춘과 대몽골주의 운동을 하다가 혁명가가 된 에린치노프 사이엔 그 외에도 이르쿠츠크가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대회가 열렸던 반필로프극장에서 같은 해 9월 몽골인민혁명당이 창당하였고, 에린치노프는 소비에트러시아에 이어 지구상에 두 번째 사회주의국가가 된 몽골공화국의 소비에트러시아고문이었던 점으로 봐서 린치노-남만춘가문의 인맥은 이르쿠츠크와 극동러시아, 몽골에 이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김규식일행은 곧 도착하게 될 이르쿠츠크에서 최고의 실권자중 하나인 남씨가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마루샤 남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은 여운형의 기행문에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¹⁸²⁾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1921년 4월부터 1925년 5월까지 코민테른 극동서기국 몽골티베트부 책임자로서 초기 몽골혁명에 크게 기여하였다. 1925년 소련으로 가서 1937년 숙청되었다. 한편 린치노의 아내는 20세기 초기에 부리아트를 무대로 활동한 한인활동가 남만춘의 여동생 남 마류샤였다.(고마즈 히사오,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2008, p385)

176) 1920년 몽골인민당은 단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극동공화국 수도 베르호네우진스크로 보냈는데 이들은 이르쿠츠크에서 모종의 협의를 한 후 모스크바로 떠났다. 같은 해 10월 러시아공산당 정치국은 몽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기로 하고 칼미크인과 부리아트인을 비롯한 제정러시아 관내의 다른 몽골계민족에게도 자치를 승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시기 즉 1920년 7월에 러시아공산당 강령이 몽골어로 번역되고 러시아공산당원과 몽골인 활동가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몽골에 공산주의 사상은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 그럼 왜 소비에트측은 10월이라는 시점에 몽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을까? 운계론이 반볼셰비키운동의 거점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같은 해 10월 외몽골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고마즈 히사오, 위책, p385)

177) 고마즈 히사오, 위책, p385

178) 서중석, 우사연구회, 우사김규식통일.독립의길가다2, 논형, 2007, p56

179) 강상호, 혁명가들, 레닌기치, 1990.6.6

180) 상해파인 리영일은 <20세기초 극동에서 전개되었던 조선독립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활동투쟁 력사의 한페이지!>에서 남만춘이 “구황제 러시아 헌병대 밀담 남창식의 아들, 백파군대 장교”라고 하였다.(고송무, 쏘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p39~40), 또한 1919년 예카체린부르크에서 백군진영에서 적군진영으로 2번 옮겨 온 콜착의 신봉자라고도 평가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208)

181) 권희영, 한인사회주의운동연구(한국사연구총서21), 국학자료원, 2006, p415

182) 여운형의 기행문이 쓰여진 것은 1936년으로 그는 당시로서도 언급하기 어려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교묘하

우리들은 서로 교환한 말은 몇마디 되지 않으나 서로 쳐다보고서는 몇 번이나 의미도 없이 웃었던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무엇을 우리들만이 잘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물론 그러한 특별한 사연은 아무것도 없었다.¹⁸³⁾

마치 이 대목의 묘사는 필자가 일경의 감시와 검열을 의식하듯 내밀하고 교묘하기 그지없게 표현되어 있어 행간의 의미를 지나치기 쉽다. 남만춘은 1921년 5월에 이르쿠츠크와 고려공산당 대표로 코민테른3차대회에 파견되었었고 1921년 가을 베이징으로 갔다가 후에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국의 소수민족주임이 되었다.¹⁸⁴⁾ 남만춘의 베이징 파송이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여운형 김규식일행이 장가구를 떠나기 전에 만나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⁸⁵⁾ 여운형의 기행문에서 다시한번 이러한 준비된 인연에 대한 서술은 인상 깊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여운형이 어쩔 수 없이 ‘나’라고만 쓴 것을 ‘우리’라고 해석하여 읽으면 그것은 김규식의 인상이기도 했을 것이다.

고륜도착 후 제3일에는 옥홀라의 만찬초대가 있었고 그 다음날에는 에린치노프 부부의 초대연이 있었다. 마류사 남은 이 밤 초대연에는 조선저고리와 치마를 입고서 나를 맞았다. 미술을 연구한 사람인만큼 예술방면에 취미와 교양이 넓고 깊은 그는 러시아민요의 훌륭한 가수였다. 나는 그에게서 몇마디의 감명깊은 노래를 들었다. 그 중에 동해 백두산(애국가?)과 남러시아의 ‘코삭크’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그 가사와 곡조를 모조리 잊어버린 지극히 그 노래의 정서와 분위기만은 아득히 기억에 살아 있어 그날 밤을 상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저유히 배회할 만큼 깊은 감동을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마류사 남은 난지 두어 달 된다는 어린애를 유모에게 안겨서 나왔으나 그의 젊은 빛이 붉게 타오르는 뺨과 맑고 검은 눈동자는 그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따라 놀랄만큼 자유롭고 대담한 변화를 표시하였다. 가슴을 높이 내어 놓으면서 길게 내뿜는 목소리가 고조와 감동의 절정에 달아야 거기서 질식이나 할듯 하다가는 별안간 돌연히 먼 지평선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나 같은 나지막하고 저유히 탄식이 이 고조된 감정을 숨씨 좋게 고요한 영탄으로 이끌어 내리는 것이었다. 때로는 승리의 고양이며 때로는 패배의 절망이 마치 서로 도망하고 쫓아가고 하는 듯이 얽히면서 실로 변화 많은 멜로디의 세계를 유감없이 전개하여 주었다. 황량한 사막의 여행에 며칠을 두고 시달려 온 나에게 그것은 다시없이 고맙고 귀중한 대접이었다. 유쾌한 흥분에 두 뺨을 보기 좋게 홍조시킨 마류사 남이 노래를 마치고 났을 때 나는 무의식중에 감탄의 긴 한숨을 쉬었다.¹⁸⁶⁾

장가구나 혹은 이후 이르쿠츠크에서의 남만춘과의 접촉이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여행길에서 만나게 된 마류사 남과의 접촉은 깊은 정서와 감정의 울림으로 남았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르쿠츠크파가 우사일행에게 제공한 의전으로서의 최고의 수준이었던 것이다. 초대연이 있는 다음날 우사일행은 소비에트대표 옥홀라의 소개로 몽골혁명정부 외교부최고고문이자 외몽골의회 의장인 단싱(丹增)을 방문했다. 러시아 몽골국경에 있는 소도시 트로이카 샵스크까지 가는데 필요한 여권과 역마의 편의를 얻기 위해서였다.¹⁸⁷⁾ 고륜에서 상해파특사

피해서 글을 썼다. 예를들어 당시 여행은 김규식, 나용균이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기행문이 마치 혼자 여행한 것처럼 1인칭으로만 씌어져 있다. 이는 집필 당시 김규식은 중국에 있어 문체 될게 없지만 나용균은 국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만춘의 경우도 이르쿠츠크파와 거리를 두게 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83) 여운형, 나의회상기제3편 赤色區人都市 庫倫, 중앙, 1936.5; 이정식, 위책, p680

184)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コミンテルンと朝鮮, 朝鮮民族運動史研究, 靑丘文庫, 1984, 제1호, p86~87; 이정식, 위책, p681

185) 이정식, 위책, p681. 이글이 발표된 1936년 상황에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86) 여운형, 나의회상기제3편 赤色區人都市 庫倫, 중앙, 1936.5; 이정식, 위책, p681~682

들에게 이태준이 제공하던 편의는 이제 우사일행에게 몽골정부가 대신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여운형의 주선으로 시작되어 극동민족대회참가자 조사표에 자신을 이르쿠츠크파 후보당원이라고 쓰게 되고, 모스크바극동민족대회에서 조선대표로 활동하며 임정창조파의 수장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소련정부의 지원을 받으러 갔다가 소련정부의 퇴거명령을 받게 되고, 민족유일당에 참가하여 실패할 때까지 1920년대 전반에 걸쳐 김규식의 인맥이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와 상대적으로 친밀하게 전개된 계기가 이제 이 여행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과의 결별이 유라시아의 첫 번째 의제인 월슨주의에 대한 학습의 종결이었다면 이 기간은 유라시아의 두 번째 의제로 등장한 레닌의 민족 식민지체제를 학습하는 기간이었던 셈이다. 이는 좌우익통합운동이라는 우사의 독립노선이 형성되기 위해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우사의 여행은 이제 그 학습의 출발선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울란우데, 치타, 극동공화국

우사일행은 고륜을 출발하여 트로이카삽스크를 거쳐 울란우데(우딘스크,베르흐네우진스크)에 도착 사흘을 묵는다. 여운형은 1936년 6월호 ‘중앙’에 기고한 기행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 사이에는 흔히 극동공화국이라고 불리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뿌리얏트공화국의 수도인 우딘스크에서 사흘동안 묵은 후 우리일행 십여명은 마침내 목적의 땅 이르쿠츠크를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 기차는 우딘스크를 떠난 지 몇 시간이 못되어 극동공화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세렝가의 강을 건너게 되었다.¹⁸⁸⁾

여기서 여운형은 혼선을 빚고 있다. 부리야트자치공화국은 1919년 세묘노프에 의해 세워졌다. 베르흐네우진스크는 극동공화국의 수도였다. 1920년 7,8월경 세묘노프군대가 치타에서 베르흐네우진스크를 공격했고 오히려 적위군의 반격에 의해 그해 10월 치타마저 함락당한다. 따라서 우사일행이 당도했을 때 울란우데가 극동공화국영역이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극동공화국의 설립은 시베리아내전시기 유라시아의 주도권을 관철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레닌의 유연하고 정확한 정치전략을 상징하는 구상이었다. 레닌주의가 이론의 정치화와 정치의 이론화라는 두축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설명된다고 했을 때 극동공화국구상은 정치의 이론화란 축을 설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또한 2년밖에 안되는 단명국가였으나 노령에서의 독립운동전개에서 큰 연관을 가지게 되므로서 우리에게 낯설기만 했던 울란우데와 치타가 우리 역사의 중요도시로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¹⁸⁹⁾

187) , 우사연구회, 우사김규식통일·독립의길가다2, 논형, 2007, p56

188) 여운형, 나의 회상기 제4편 모스크바의 인상, 중앙, 1936.6;이정식, 위책, p688 그러나 여운형은 다음달인 7월호에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썼다. ‘우딘스크 일대는 당시 극동공화국의 일부였다.’

189) 극동민족대회의 회기를 이용해 코민테른당국은 한국공산주의자들의 파쟁을 조정해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두가지 방향으로 노력했다. 한가지는 1923년 1월3일에 상해에서 임정의 장래를 놓고 열린 국민대표대회였다. 그러나 새로운 파쟁이 벌어졌다. 임정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창조파, 그리고 개조가 필요하다는 개조파가 대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대표대회는 코민테른의 의도와 반대로 가고 말았다. 코민테른이 시도한 또 한가지의 방향은 1922년 11월에 베르흐네우진스크, 즉 울란우데에서 고려공산당합동대회를 열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파탄나고 만다. 울란우데는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계기마다 방향을 전환하게 했던 장소가 되고 말았다. 결국 1922년 12월에 코민테른은 모든 파벌의 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동시

군 관리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된 치타주의 발전은 1653년 쉘카기슭에서 베케토프와 우라스프가 설계한 네르친스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⁹⁰⁾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땅으로 인해 생활하기 힘들었던 네르친스크지역은 황실령으로 보호받으며 광산채굴업을 통해 성장하였다. 광산채굴업 및 산업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차르는 치타주를 강제노역지 및 유배지로 정하고 농노, 범죄자 및 반정부 지식인인 데카브리스트¹⁹¹⁾들을 이주시켰다. 인구증가에 따라 농업이 성장했으며 사회간접시설이 들어섰고 많은 지식인들의 유배에 따라 계몽 및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19세기말 시베리아중심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농노해방 및 국가발전이데올로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데카브리스트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과 계몽은, 산업 및 시베리아철도의 건설이 치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원된 많은 노동자들이 러시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탄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최초의 노동조합이자 지방분권적 성격을 띤 ‘자바이칼지역 노동연합’의 설립을 최초로 1905년 12월 9일 러시아의 첫 혁명이 일어나자 1905년 12월 27일 치타주에서는 ‘치타철도노동자’ 대중집회가 발생하고 12월 29일부터 31일에 첫 파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6년 2월 19일에 집회가 해산되고 치타주의 집회 참석자들이 체포되자 2월 21일에 치타주의 모든 노동자들은 체포된 참석자들을 해방하라는 성명을 내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것이 치타공화국의 시작으로 러시아 내 다른 지역들이 중앙의 혼란으로 정치 및 경제시스템이 멈춘 상태에서 치타주 주민들은 독자적인 의지와 판단을 통한 투표를 통해서 공화국을 건설하게 되었다.¹⁹²⁾ 1906년 진압된 이후 다른 지역과 뚜렷이 대비되는 치타주의 특징은 극동공화국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 극동공화국의 모든 정책과 방향은 ‘외국으로부터의 간섭 최소화’라는 ‘완충지대론’으로 귀결되었다. 다른지역이 중앙에서 시작된 소비에트로 통합될 당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국가인 극동공화국은 치타주에서 나타난 다양한 실험의 결과였다.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세력이 등장하여 주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던 상황에서 치타주의 주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스스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었다. 전체러시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치타주는 역설적으로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았고 무역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소비에트화로 다른지역이 외국과의 무역이 단절된 시점에서 대부분의 무역은 치타주를 통해 이루어졌다. 1917년 2월혁명 이후 외국산물품의 집중적인 매수는 중국과 맞닿은 치타주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산물품의 대량구매가 이루어졌다. 1917년부터 국가가 대외무역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는 수출은 공산권경제상호원조협회의회원 코메콘가맹국가들 및 공산국가들로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46여개국에 냉동장비와 압축기를 공급하는 치타기계공장, 암나사각기 압착기등을 수출하는 치타장비제조공장, 크레인 및 운송장비, 교량 크레인등을 제조하는 울로반스키 공장들이 생겨났고, 일본으로의 수출은 ‘치탈레스’라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¹⁹³⁾ 이렇듯 치타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다양하고 풍

소련은 러시아영토 안에 조선인의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기도를 금지시켰다. 그 배경에는 1922년 말의 일본의 시베리아 철병과 러일협상이라는 새 국면의 전개가 깔려 있었다. 유라시아체계가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90) Р.Ф.Гениатулин Энциклопедия Забай калья 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овосибирск:2002) стр, p148; 윤진, 러시아 치타주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7, p17

191) 1825년 차르 전제정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젊은 청년장교들. 데카브리는 12월로 데카브리스트는 12월당원을 뜻한다.

192) Р.Ф.Гениатулин Энциклопедия Забай калья 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овосибирск:2002) стр, p190; 윤진, 러시아 치타주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7, p30

193) Р.Ф.Гениатулин Энциклопедия Забай калья Чит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овосибирск:2002) стр, p112; 윤진, 러시아 치타주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7, p31

부한 자원의 매장지로서 20세기 초 국가전체 혼란기와 소비에트 혁명시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극동공화국을 만들면서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중요지역인 것이다. 치타역의 큰 벽면에는 타일벽화로 1905년 치타공화국 건국사가 기록되어 있다.

1920년 1월 5일에 미국이 시베리아철병을 결정하고 일본도 정치적중립을 선언하면서 울란우데에는 ‘연바이칼임시정부(임시울란우데정부), 아무르블라고웨첸스크에는 ‘노농병사코사크 대표소비에트임시집행위원회’¹⁹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는 ‘극동임시정부’등 시베리아 각지에 혁명세력이 정권을 수립되었다. 그러나 동남쪽의 하바로프스크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서북쪽의 치타에는 세묘노프가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태를 치타스토퍼(Chita Stopper)라 불렀다.¹⁹⁵⁾

이런 상태는 일본군의 자바이칼지역으로부터의 철수선언(1920년7월3일)과 세묘노프 정권의 붕괴(1920년 10월 중순), 일본군의 하바로프스크 철수선언(1920년9월18일)으로 교통이 재개 될 때까지 계속된다.¹⁹⁶⁾ 전투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러시아 붉은 군대의 승리가 바로 조국의 독립과 직결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당시 백군은 일본군과 연합하여 러시아적위군과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전투참여는 바로 일본군을 물리치고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이 외친 “연해주는 조선의 열쇠다. 연해주해방을 위하여 앞으로”라는 구호는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¹⁹⁷⁾

1920년 3월 3일 완충국가의 설립 때문에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에 극동사무국이 조직되었다. 완충국가에 대한 구상은 상해파와 이전부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던 크라스노체코프가 제안하고 주도했다. 극동공화국을 세우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극동각국으로 하여금 통상을 체결한 후 이 완충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내지의 경제공황을 조정하고자 함이었다.¹⁹⁸⁾ 따라서 공화국은 불세비키가 주도함에도 부르조아민주정체를 채택했다. 또한 극동공화국의 외교정책은 일본간섭군과의 군사적, 외교적 충돌을 회피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는 완충국가의 건설을 둘러싸고 당내나 극동사무국에서 격렬한 대립이 발생했다. 반대파는 이후 이르쿠츠크고려공산당의 지원자로 등장하는 슈미야츠키그룹이었다. 그들은 ‘진시베리아의 소비에트화(소비에트권력 수립)’을 목표로 하며 ‘민주주의적 완충국가 구상’에 반대했다. 완충국가를 찬성하는 그룹에서도 완충국가를 어디로 할까하는 문제에서 울란우데정권과 블라디보스톡정권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¹⁹⁹⁾ 소비에트러시아의 의도대로 일본도 반응을 보였다.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완충국가 설립안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나 군부에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1920년 2월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와 소비에트러시아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바이칼주, 아무르주, 연해주, 사할린주, 캄차카주와 토우신철도의 수용지까지로 완성되는 극동공화국이 완충국으로서 건국되었다. 동시에 붉은군대에 준한 인민혁명군이 조직되었다. 1920년 3월 세묘노프에 의해서 통제되던 울란우데가 적위군과 빨치산에 의해 해방되어 연바이칼임시정부(임시울란우데정부)가 수립되었다. 3월 28일~4월 8일 울란우데의 근로자유격대. 더바이칼지방제헌대회에서 극

194) 1920년 2월 17일 러시아 적위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한인들에게는 혁명결사의 자유지였다.

195)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5

196) The Special Delegation of the Far Eastern Republic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Japanese Intervention in the Russian Far East>(Washington D.C.,1922)p55,p63~64 : 반병률, 위책, p294

197) 박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p207

198) 김경재, 흑하사변의 진상1, 독립신문 1922.5.6, p1;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259

199) 복수의 지방정권이 존재하는 곳은 완충국가의 편성에 대한 문제로 각 지방정권 사이에 불일치를 일으키게 되어 울란우데의 자바이칼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임시정부는 모두 지방정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동공화국의 결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4월 6일에 극동공화국성립을 선언하는 포고가 채택되어 극동사무국의 크라스노체코프가 임시정부 수반이 되었다. 그는 1921년 12월까지 재임하였으며 니콜라이 마트베예프(1877~1951)가 22년 극동공화국 해체시까지 뒤를 이었다. 이때는 수도인 울란우데를 중심으로 한 연바이칼지방(자바이칼주서부)만이 공화국의 실효지배가 미치는 영역이었다. 5월 14일 소비에트정부는 극동공화국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했지만 극동공화국의 재정, 외교, 경제, 군사지원등은 소비에트공화국이 맡고 소비에트공화국의 지원하에 상비군인 극동공화국인민혁명군이 설립되었다.²⁰⁰⁾ 모스크바정부에 의한 극동공화국임시정부의 승인은 극동 각주의 정부에 대해 단합과 통일에 대한 압력이 되었다. 5월 24일~7월 15일 치타로부터 120km 떨어진 곤고타역에서 극동공화국임시대표와 일본의 대표단이 교섭하여 1920년 8월 ‘곤고타역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자바이칼 주둔 일본 제5사단은 1920년 8월 1일부터 퇴각하기 시작했다.²⁰¹⁾ 일본군후원하에 있던 세묘노프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극동공화국은 세묘노프군과의 전투에 돌입하여 1920년 10월 21일 자바이칼의 수도 치타시를 점령했다.²⁰²⁾ 그 후에도 일본과 따렌(大連)회의(1921)와 장춘회의(1922)를 열어가며 시베리아로부터 일본철군정책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치타에 주둔 하던 일본군 제5사단은 8월 18일에 치타로부터 철병해 20일에는 자바이칼로부터의 철퇴가 완료되었다. 치타에는 세묘노프군대가 잔류하고 있었지만 10월 15일 극동공화국인민혁명군과 유격부대가 치타에 진격해, 남았던 군대를 축출하고 22일에는 치타를 개방했다. 세묘노프정부 수뇌부는 비행기를 타고 북만주 방향으로 퇴각했고 극동공화국은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치타로 이전했다. 이로서 시베리아와 극동을 막고 있던 치타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유럽러시아와 극동러시아의 연락로가 개통되었고²⁰³⁾ 치타는 러시아극동지방 혁명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다음날인 23일 극동공화국임시정부는 치타에 국민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했다. 극동공화국임시정부는 극동 각주의 정부를 해체하고 극동공화국으로 통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블라고웨첸스크의 아무르집행위원회,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임시정부등에 대해 치타에서의 ‘극동 각 주 대표자회의’ 소집을 호소했다(1920년 10월 28~11월 10일) 아무르집행위원회는 1920년 8월에 극동공화국임시정부에 종속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블라디보스톡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920년 1월말에 사회혁명당 메드베데프의 연해주자치회임시정부가 성립되어 있었다. 연해주임시정부는 사회혁명당정권을 자칭해 볼셰비키와는 선을 긋는 태도를 나타냈지만 실권은 볼셰비키가 잡고 있었다. 1920년 3월 29일 러시아공산당극동위원회 회의는 연해주임시정부에 대해 정권을 극동의 모든 주들로 넓히려는 결의를 채택해 4월 2일부터 시작된 연해주근로자대회에서 임시정부승인이 채택되었다. 연해주임시정부는 ‘노농과 타협하여 극동정부의 이름아래 각 정파를 연합해 새롭게 정부를 조직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회를 신설하였다. 6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도 국민회의의 선거가 실시되어 제정파에 의한 연립정부인 ‘극동임시정부’가 조직되어 볼셰비키의 강한 영향아래 메드베데프가 수반이 되었다. 1920년 11월말 극동공화국임시정부가 울란우데로부터 치타로 옮기면서 블라디보스톡 국민의회는 치타정부를 승인하고 극동임시정부를 해체하여 연해주를 치타정부 관할 하에 둘 것을 결정했다. 이로서 블라디보스톡에 극동공화국 연해주청이 생겼다. 건국당초에는 울란우데를 중심으로 한 연바이칼지방뿐이던 극

200) 구미제국은 이를 소비에트공화국의 괴뢰국가 혹은 위성국가라고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

201) 동아공산 제1호, 1930.8.14, p1;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260

202) 동아공산 제5호, 1920.10.25, p4 ; 동아공산제6호, 1920.11.7, p2 ; 임경석, 위글, p260

203) 동아공산 제5호, 1920.10.25, p4 ; 동아공산제6호, 1920.11.7, p2 ; 임경석, 위글, p260

동공화국의 영역은 바이칼호수로부터 태평양기슭까지 극동전역에 이르게 되었다. 1921년 1월 극동공화국의 헌법제정과 최고기관의 설립을 심의하는 선거를 했다. 이 제헌의회에서는 볼셰비키가 다수를 차지해 농민유격대의 대표자들과 동맹했다. 치타에서 제헌회의 기간 중(1921년 2월 12일~4월 27일)에 의회제공화국가로서의 극동공화국의 국체를 반영한 헌법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최고 국가권력은 오로지 극동의 인민에 속한다는 것이다. 극동공화국은 소비에트체제를 취하지 않고 국민의회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공화국(부르조아민주주의국가)을 채택했다. 멘셰비키나 사회혁명당, 사관후보생(입헌민주당), 무당파농민도 결집시키면서 주도권은 볼셰비키가 잡고 있었다. 1921년 5월 26일 블라디보스톡 주둔 일본군의 지원하에서 반혁명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 콜차군 잔당인 캅페리군단의 메르크로프형제가 ‘연아무르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극동공화국과 일본은 다시 따렌(大連)에서 정전회담에 돌입하고 이 기간동안 자유시침변이 발생한다. 크라스노체코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권력교체기인 1921년 말부터 22년 초에 걸쳐 메르크로프의 반혁명군은 다시 북상해 한때는 하바로프스크를 점령하지만 극동공화국인민혁명군에게 반격당한다.²⁰⁴⁾ 이 당시 이르쿠츠크로 가는 우사일행이 만주를 통과하여 시베리아철도를 타기 어려웠던 것은 연해주지역에 새로이 백군에 의한 내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사일행이 울란우데를 통과할 때는 극동공화국의 수장이 크라스노체코프에서 마트베예프로 바뀌는 권력교체기였다. 우사일행은 울란우데(우딘스크)에서 일본 스파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경계를 취해야 했다.

시베리아횡단의 북행열차가 우딘스크를 떠나는 전날밤 우리일행은 이 소도시의 정거장의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낡은 차량의 열속으로 숨어들어갔다. 그리하여 화차들 사이에 있는 어떤 헌차칸에 자리를 차지하고서 하룻밤을 새우게 되었다. 아직도 여리고 약한 당시의 러시아 세력으로는 극동의 도시에 맘대로 도약하는 각국의 스파이에게 대하여 적극적 탄압의 정책을 취하느니보다는 소극적으로 주의깊은 자위의 방법을 더 현명한 정책으로 선택해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극동 각민족의 대표를 초청하는데 있어서도 가급적으로 신중한 비밀주의를 채용하였다. 우리 일행이 떠나는 전날밤을 정거장의 낡은 차량 속에서 숨어 새인 것도 이튿날 아침의 출발을 극비밀리에 숨기려는 그곳 동무들의 세심한 주의의 결과였던 것이다.²⁰⁵⁾

극동공화국인민혁명군과 일본군은 교전당사자로서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정리가 되었지만 군인이 아닌 간첩들은 계속밀탐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내란의 성격을 반영하듯 교전주체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백위군은, 웅게른까지 포함하여 무장세력의 중심은 거의 소진되었어도 잔당들은 남아 끝없이 정세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년전 한형권이 울란우데 전인 트로이카삽스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적위군의 호위를 받았던 것과 달리 몽골동지들과 함께 10여명으로 늘어난 우사일행은 스스로 호위를 책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랬을까?

204) 일본에서도 시베리아출병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카토 유사부로내각은 1922년 6월24일 시베리아과견군을 11월1일까지 극동으로부터 철병한다고 선언했다. 1922년 가을 인민혁명군은 백위군을 소탕했고 일본군에 대해 게릴라전을 계속 전개했다. 시베리아과견군의 철병은 10월25일에 완료돼(최종부대의 블라디보스톡항 출항) 극동공화국인민혁명군이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갔다. 일본철병과 함께 극동공화국은 완충국가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1922년 11월15일 소련에 합병됐다. 1922년 11월16일 전로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의는 “극동은 소련, 러시아의 일부이다”라고 선언했다. 인민혁명군은 제5군단(본부 치타)으로 개칭되었지만 1924년 6월 제5군은 해산되어 소속부대는 시베리아군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다.

[http://blog.daum.net/zhzy5532/1589074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zhzy5532%2F15890740\(2009년2월12일 검색\)](http://blog.daum.net/zhzy5532/15890740?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zhzy5532%2F15890740(2009년2월12일 검색))

205) 여운형, 나의 회상기 제4편 모스크바의 인상, 중앙, 1936.6 ; 이정식, 위책, p688

극동민족대회가 워싱턴군축회의에 대항하여 개최되는 것임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소비에트러시아사이에서만 헤게모니투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극동에서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 미국과 일본사이에서도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²⁰⁶⁾ 미국에서 개최된 워싱턴회의는 외교적 수단에 의해 극동에서의 일본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소비에트의 워싱턴회의에 대한 전술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극동공화국 대표를 워싱턴회의에 파견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마찰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⁰⁷⁾ 그리고 한편으로는 극동민족대회를 개최한 것이다.²⁰⁸⁾ 얼핏보면 모순되고 불세비키답지 않은 이같은 이중전술은 그러나 모두 모스크바의 일관된 전략하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나의 전략, 두 개의 전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극동공화국정부가 영내를 통과하는 극동민족대회 대표단을 호위하는 것은 워싱턴회의에 파견된 대표를 난처하게 하고 이중전술의 실패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우사일행도 극동공화국과 소비에트러시아의 국경인 셀렌크강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던 것이다.²⁰⁹⁾ 극동공화국은 전략에서는 소비에트정부를 따르면서도 전술에서는 그와 다른 입장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우리 독립운동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몰고 왔다. 이르쿠츠크가 이르쿠츠크파에게 기회의 땅이었다면 울란우테와 치타는 상해파에게 기회의 땅이 된 것이다.

상해파

1920년 9월22일 상해를 출발한 한국공산당 전권위원 김립과 계봉우는 러시아 국경에 도착했을 때 세묘노프정권의 몰락과 치타장벽의 해소되는 격변을 목격하게 되었다. 10월말 두사람은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선임자들과 회동했다. 그들에 앞서 1919년 모스크바에 사절단으로 파견된 이들과 같이 한 것이다.²¹⁰⁾ 박애는 1920년 이한영과 귀환하는 도중에 1920년 7월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전로한인공산당 제1대회 대표원회의에 참석하여 이르쿠츠크파에 맞서 고군분투했다. 당시 그는 러시아공산당극동국 전권위원으로서 극동공화국내 한인조직화에 관한 최고위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또한 동석한 박진순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선임되어 동양공산당결성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한형권은 상해임정전권위원으로 코민테른자금 40만루블을 수령한 상태였다. 박진순과 한형권이 베르흐네우진스크에 도착한 것은 10월 24일 저녁이었다.²¹¹⁾ 참석자들은 거대한 권한과 자금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206) 미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런점에서 정확했다. “미일관계를 말하자면 1905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전쟁하다가 강화조약을 체결하던 그 사실을 먼저 말해야 되겠다. 그 강화조약의 체결에 대한 중재자는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인데 그는 그때에 벌써 일본은 친선한 벚으로 사피지 못할 태평양의 장래에 큰 적이 될 것을 알았다. 그가 비록 조선에서의 우월권을 일본에게 주는 그 조문에 찬동은 하였지만 그래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강제로 합병하는 그일에 대하여는 깃버하지 않았다. 어찌 그러느냐하면 태평양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힘이 장성하는 것을 등한하게 보지 않는 까닭이다.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10집, 북우 계봉우자료집1, 꿈속의 꿈, 하, p246~247)

207) 제1차대전 후 대중국 21개조 요구, 중국산동지역 독일이권 획득, 독일식민지 남양군도 획득등으로 극동, 태평양지역에서 제국주의적 진출에 크게 성공한 일본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워싱턴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8) 권희영, 한인사회주의운동연구(한국사연구총서21), 국학자료원, 2006, p360

209) 극동공화국영역은 “서쪽으로 셀렌크강과 바이칼 호수로부터 동쪽으로 북사할린과 캄차카를 포함하는 태평양까지의 옛러시아제국의 전 국토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즉 아무르주, 연해주, 자바이칼주, 사할린주, 캄차카주와 북만주중동선 철도용지를 포괄했다. 제정러시아 당시 프리아무르총독부 관할 구역과 거의 일치한다. Ким Сын хва(金承化), Очерки л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 Ата изд наука 1965; 정태수 옮김, 소련한족사, p112

210)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9;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자료편

당면한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논의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전 한국의 통일공산당을 조직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김립과 계봉우가 상해한국공산당으로부터 위임받아온 과제였다. 그러나 박애는 1920년 7월 전로한인공산당 제1차 대표원회의에서, 박진순과 한형권은 1920년 10월 제1회 전로고려인대회에서의 체험을 통해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었다. 10월 5일 옴스크에서의 제1회 전로고려인대회는 제2회 국제공산당대회에 파견되었던 한인사회당대표 박진순이 코민테른집행위원회 극동대표 자격으로 받기한 것이었음에도 그 결과는 뜻밖의 것이었다. 박진순이 이 대회를 받기하고 고려인중앙선전의회를 조직한 사실에서 보면²¹²⁾고려인중앙선전의회와 동아총국의 조직은 코민테른이 박진순에게 위임한 과제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르쿠츠크의 ‘고려공산당중앙총회’ 간부들은 전로고려인대회가 개최되자²¹³⁾ 대회를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대회에서 조직된 ‘중앙선전의회’를 장악하였다.²¹⁴⁾ 중앙선전의회는 “고려와 중국과 러시아에 고려인의 혁명사업을 통일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혁명단체의 가장 높은 기관이며 각 단체조직의 중앙집권체인 고로 각 지방단체는 의례히 의회의 지휘에 복종할 일”이라고 하여 고려혁명의 최고기관임을 자처하였다.²¹⁵⁾ 그러나 대회에서 받기소집자인 박진순이 국민의회에 대한 방침을 토론하자고 발의하였을 때는 부결되었다.²¹⁶⁾ 이르쿠츠크-국민의회계열의 인물들이 대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순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도 대회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상해파간부들이 보기에 국민의회파는 상해임정에 대하여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재러시아 한인단체 조직론도 다르며, 한인사회당과 협력할 의사가 없을뿐더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이러한 판단근거는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연원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부터 아무르주에서 한인사회당(상해파)과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는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한인사회당은 국민의회를 민족주의적 단체로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의 기록에서 보듯 가장 비판적인 것은 국민의회의 전신인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백군을 지원한 사실이었다.

한족회의 실천적인 활동은 보다 추악한 것이었다. 한인 민족부대의 간관 아래 있던 그 지도자들은 일본 자금으로 활동하던 반동과 호르바트 장군을 지원했으며, 1918~1919년에 한인들로 구성된 반혁명부대의 조직을 도왔다.²¹⁷⁾

한인사회당은 러시아볼셰비키세력이 주도하던 아무르지역의 상황과, 크라스노체코프가 이끄

211) Доклад члена ЦЕКА Коркомморганизации тов Нам манчун о результатах ко мандировни в го род В Удинск(중앙총회위원 남만춘의 베르호네우진스크 출장보고), 1920.11.13, p1. РГАСПИ ф 495 оп135 д19 л42 об;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261

212) <동아공산>, 9호(1920년12월16일자)

213) 이 대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임경석의 ‘고려공산당 연구’(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년, p166~174를 참조할 것.

214) 동아공산, 1920년 12월16일자 중앙선전의회는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의 혁명을 지도하기 위해 설치된 바쿠 선전의회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215) 동아공산, 1920년 12월7일자 ;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84

216) 동아공산, 1920년 12월16일자 ;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84

217) 고젠스키, 극동의 혁명운동에 한인의 참여,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러시아편 II), 1923,

는 치타극동공화국의 신뢰와 지원을 토대로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국민의회에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²¹⁸⁾ 극동공화국 대통령 크라스노체코프는 한인사회당 창당 이전부터 오랜 후원자로서 전로한족회중앙총회, 그리고 그 후신인 국민의회의 정치적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어떡해서든 극동공화국과의 공식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대한국민의회의 노력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²¹⁹⁾ 이 때문에 국민의회 간부들은 극동러시아혁명과 관련하여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인혁명의 역사 특히 노령내의 한인빨치산 역사는 잘 알지 못했던 러시아공산당 간부들에게 접근한다. 이를 주도한 것은 최고령이다.²²⁰⁾ 그리고 국민의회는 러시아공산당간부들을 자신들의 후원자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다.²²¹⁾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보리스 슈미야츠키(Boris Shumiatskii)였다. 1920년 10월 중순 치타의 세묘노프정권이 러시아혁명세력에 의해 붕괴되어 치타장벽이 소멸되면서, 시베리아와 흑룡주 지역간의 연락이 가능해지고, 이르쿠츠크의 러시아공산당 내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와 국민의회, 치타의 한인부(상해파)와 한인공산당위원회가 보다 조직적 결합을 하게 되면서 양세력간의 대립관계가 본격화 되었다.²²²⁾

박애가 참여했던 1920년 7월 전로한인공산당 제1차 대표원회의와, 박진순과 한형권이 참여했던 1920년 10월 제1회 전로고려인대회 중간인 1920년 9월 15일, 국민의회는 러시아내의 한인들의 합법적 통일기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노농러시아가 밟아온 길을 따를”것임을 표명함으로써 공산주의적 노선을 대내외에 선언하였다.²²³⁾ 이러한 국민의회의 친소비에트적인 방향전환은 1918년 6월의 제2차 전로한족회중앙총회에서 독립선언과 친시베리아 지방의회적인 활동 그리고 3.1운동시기에 취했던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으로 경도된 정책, 백위파 호르바트와의 협력적 군사활동등을 되돌아본다면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회의 이 선언은 한인공산주의자들이나 불세비키당 책임자들에게는 공산주의로의 전향으로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²²⁴⁾

그러나 상해와 이르쿠츠크의 양세력은 모두 전체 한인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지도적 중앙의 위치를 자임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한계와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하며 완전한 ‘전한공산당’건설을 위해 상호협력 할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1920년 7월의 러시아공산당내 고려공산단체 제1차대표자대회에서 한인사회당 간부인 박애와 이한영이 이르쿠츠크파의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이르쿠츠크의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는 상해 한인사회당

218) , 현대사자료, 27권 p243 : 반병률, 위책, p298

219) 국사편찬위원회,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42, p364 : 반병률, 위책, p298

220) 흑룡주에 불세비키정권이 들어선 이후 1920년 3월 1일, 자유시(알렉세프스크)에서 개최된 독립선언기념대회에서 최고령, 이훈등이 흑룡주 고려주민대회를 개최하기로 발기하였고, 3월20일에 개최된 흑룡주한인대회에서는 흑룡주한인총의회(의장 최고령)가 조직되었다. 흑룡주한인총의회는 흑룡주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400여명으로 구성된 1대대를 편성하였다. 이어 1920년 5월, 국민의회가 4월참변을 피해 흑룡주로 이동해오자, 흑룡주한인총의회 제2차대표자대회(7월1일)를 개최하고, 국민의회봉대선언과 동시에, 한인군대를 국민의회에 인도하였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최고령로서 이후 오하목, 김하석과 함께 이르쿠츠크로 가서 국민의회를 이르쿠츠크의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츠키와 한인공산당원들과 연결시키는 등 큰 활약을 하게 되는 인물이다.(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206, p433참조)

221) 1920년 9월 국민의회는 이르쿠츠크공산당 고려부의 위원인 김철훈과 연락을 확보하여 김철훈을 지부장으로 하는 이르쿠츠크지부를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이르쿠츠크지역의 신흥 한인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철훈과의 연락확보는 향후 이르쿠츠크파와 국민의회의 연합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296참조)

222) 반병률, 위책, p299

223)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296

224) Walter Kolarz, The Peoples of the Soviet Far East,(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54) p35 : 반병률, 위책, p297

과의 협의를 위해 간부인 이팔을 이한영과 함께 상해로 파견하였다. 상해의 한인공산당 역시 이르쿠츠크측과 협의하여 ‘전한공산당’을 창립하기 위한 대표회를 함께 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 9월 15일 김립, 계봉우, 이한영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²²⁵⁾ 1920년 여름시기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간의 이러한 잠재적인 경쟁적 의식은 아직은 적대적인 상태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르흐네우진스크에 모인 상해파간부들은 이르쿠츠크전로한인공산당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듯하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통일공산당 결성의 토대를 새로운 안전지대인 극동공화국 영내에 구축한다는 것이었다.²²⁶⁾ 즉 전한국의 통일공산당이 창립되기 전까지는 상해 한국공산당을 임시중앙기관으로 보고, ‘전한공산당’창립의 사무는 극동공화국 영내에 새 기관을 조직하고 그에 위임하기로 했다. 새 기관은 극동공화국의 최고 당기관인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산하에 한인부형태로 조직하며, 소재지를 세 수도 치타에 두기로 했다. 이르쿠츠크의 전로한인공산당중앙총회와의 교섭도 새 기관이 담당토록 했다. 이르쿠츠크기관의 위상은 중앙기관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담당하는 지방위원회로 간주한다는 결정도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결정은 ‘전한공산당’의 창립에 관련하여 상해지역 한인공산당으로부터 이르쿠츠크측과의 협의를 위임받고 온 김립과 계봉우가 그 위임사항의 이행을 취소한 것이고, 결국 이르쿠츠크측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에 이룰수도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음 문제는 모스크바자금이었다고, 그 다음문제는 ‘동양공산당(Компартия Востока)’조직문제였다. 이는 ‘코민테른재외전권위원(заграничный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Коминтерна)인 박진순에게 위임된 과제였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인 동양담당관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미묘한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동양3국의 혁명운동 연합기관을 이르쿠츠크에 두려는 음모가 착착 진행중임을 감지했던 것이다. 박진순은 옴스크에 체류중이던 10월 15일경 “코민테른 극동비서부가 이르쿠츠크에서 조직된다”는 통신을 접했다.²²⁷⁾ 그들은 동양공산당 소재지로 상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상해는 동양3국의 가장 우수한 혁명역량이 밀집해 있는데다 교통, 통신의 편의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전권위원들은 상해에서 동양공산당 설립을 추진하되 새로 조직되는 극동비서부 설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²²⁸⁾ 이 회합에서의 결정은 이후 이르쿠츠크파와의 적대적인 파쟁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타적 파당적 결정은 상호 협의한 것이 분명한 한인사회당의 실질적인 관리자, 계획자였던 김립과 박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김립과 박애는 한인사회당 간부들 중에서도 파당적 성격이 강했던 인물로 평가되며 그리하여 반대파들의 공격목표가 되었다.²²⁹⁾ 어쨌든 그들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올란우데(베르흐네우진스크)회합이후 상해파의 두 번째 회합은 치타에서 열렸다.

225) , 보고 제3호, p4 ; 반병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령지역 독립운동, 한국근대사학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483

226) 1920년 4월6일,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수립이 선포된 이후에도 극동노령의 실질적인 통일.단일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극동공화국(Far Eastern Republic)은 치타로 수도를 옮기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연해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지역에 분립해 온 한인공산당 조직들이 러시아 공산당세력과의 관계강화는 물론 상호간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반병률,위책, p300)

227) Чунью(춘우), Телеграмма Коминтерн No.2(코민테른 앞 전보 제2호),1920.10.17, РГАПИ ф135 д22 л62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2006, p264

228)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10 : 이 회합에서 상해에 동아총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립이 상해로 돌아온 직후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이 “40만루블과 극동각국에 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갖고 왔다.”고 말한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29) 반병률, 위책, p305

결국 이 두 회합의 결정에 의해 통합공산당건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다. 1920년 12월 2일 치타에서는 극동공화국내의 한인공산주의단체들의 주요 간부인 장도정(연해주대표), 김진, 박창은, 최의수(흑룡주대표), 권화순(자바이칼 대표), 계봉우, 박애(상해대표), 조용순(치타대표)등이 모여서 극동공화국 내의 극동부(달이부로)내에 한인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극동부 한인부의 조직적 위상은 “전한공산당 중앙총회가 성립되기까지 상해방면(국내,일본,서북간도 및 기타 중국령), 연해주, 흑룡주, 자바이칼주의 한인공산당에 대한 중앙기관으로”하기로 결정하였다.²³⁰⁾ 이르쿠츠크의 고려공산단체 중앙간부와 연해주의 한족공산당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하고 지방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²³¹⁾ 러시아공산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한인부는 1920년 12월 14일, “현재 러시아극동에서 러시아공산당의 관할 하에 있는 한인공산주의 단체들은 자치적인 단일체로 분립한다. 즉 러시아공산당의 성원에서 벗어나서 고려공산당중앙위원회가 창립할 때까지 임시로 러시아공산당 극동부 한인부²³²⁾에 직접 복종한다.”는 중대한 결정을 하였다.²³³⁾

이것은 러시아공산당 및 국제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조직될 ‘전한공산당’의 독자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공산당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동양제민족부-동양비서부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하기로 한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이르쿠츠크파)의 입장과 비교하여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상해파의 노선이 이르쿠츠크파와의 차이가 아닌 러시아공산당 노선과의 차이란 점이다. 상해파의 리더십은 불리해지는 객관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했으나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담스런 모험이었다. 이르쿠츠크파는 당장 대응에 나섰다. 베르흐네우진스크와 치타에서의 회의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뿐아니라, 조사에 나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출당’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양파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²³⁴⁾

양세력의 파쟁이 본격화²³⁵⁾된 것은 1920년 말부터 1921년 3월사이이다. 파쟁이 가열되어 가는 분위기는 분명했지만 3월 이전까지는 서로를 통일의 상대로 존중하려는 기운이 유지되고 있었다. 예를들면 이르쿠츠크 ‘한인공산당중앙총회’의 기관지인 ‘동아공산’은 1920년 11월 7일자에서 흑룡주의 블라고웨첸스크에서 발행되고 있던 국민의회 기관지인 ‘자유보’통

230)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36, 357 : 이동휘, 김립이 이끄는 상해의 한인공산당으로부터는 상호 긴밀한 연락과 협력을 전제로, 한인부 창립전에 치타에 왔던 김립이 박애와 계봉우에게 그 대표권을 위임하였음에 틀림없다.(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200)

231) 임경석, 고려공산당연구, p188~189

232) 한인부가 속하게 된 극동부는 극동공화국에서 최고 당조직으로서 볼셰비키당이 극동공화국 내의 볼셰비키당 조직을 지도 후원하기 위하여 1920년 3월 3일 조직한 것인데, 처음에는 러시아공산당시베리아국(시부로) 그리고 1920년 8월13일 이후에는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에 직속된 기관이었다. 극동부는 초기에 극동공화국 대통령이자 외무장관인 크라스노체코프가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는 시베리아, 극동러시아지역 운건과 볼셰비키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극동공화국 창설의 적극적인 추진자로서 레닌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가 시베리아 강경파 볼셰비키들의 반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레닌의 확고한 신임 때문이었다.(Wieczynski Joseph L.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18(1984), p42: 반병률, 위책, p304) 또한 그는 한인사회당의 오랜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치타한인부의 리더격인 박애와는 러시아 내전시기의 빨치산 투쟁시절 이래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環載, 黑河事變의真相, 獨立新聞, 1922년 5월 6일자)

233) 임경석, 고려공산당연구, p190~191

234)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199 ; 반병률, 위책, p306

235) 예를들면 양파의 파쟁격화는 치타 우편국의 우편검열에서도 나타난다. 1921년1월21일 치타의 극동공화국 한인부 정기회의에서 한인부는 극동공화국과 한인부를 위한 동양어 통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박운해를 치타 우편전보국에 파견하여 매일 한시간마다 검열업무를 수행시킨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34 p154~155)

신을 받아 이동회에 대한 기사를 매우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동회의 국무총리 취임을 “대국을 수습한다는 일편단심으로 자기의 명예를 희생하고 그 의사에 환영치 않는 국무총리자리에 취임”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 여름 이승만의 위임통치를 비판하며 위해위로 떠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²³⁶⁾ 한편 상해의 한인공산당은 이르쿠츠크로부터 파견된 조훈을 통해 고려공산단체 중앙간부로부터 3월 1일에 이르쿠츠크에서 당창립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치타에서 5월 1일에 개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대표 2명을 이르쿠츠크로 파견하여 통합의 가능성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동회의 한인사회당 계열 당간부들은 돌연 상해에서 별도의 고려공산당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이르쿠츠크파의 남만춘은 극동비서부장 슈미야츠키의 명령을 받아 치타의 한인부를 해산하고, 하바로프스크에 있는 한인공산당기관들을 해산하였으며, 장도정등이 발간하고 있던 한인공산당 기관지 ‘신세계’를 폐간시켜 대표파견과 활동권마저 박탈하였다.²³⁷⁾ 이와 더불어 1921년 4월말 당대회 개최와 군권장악을 위해 진력하던 박애, 장도정, 계봉우, 김진등이 체포되고, 이용, 김규면, 박일리아, 박그레고리, 최니콜라이등의 군사지도자들이 체포위기에 처해 있어, 시베리아에서의 대회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²³⁸⁾ 슈미야츠키가 “압박적으로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동회의 한인사회당 계열인사들은 치타의 한인부에서 주도하고 있던 고려공산당대회를 “내지의 대표자와 중령의 대표자들을 합하여 상해에서 대표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⁹⁾ 둘째로, 3월말 모스크바자금 40만루블 가운데 일부를 휴대하고 상해에 도착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 박진순이 울란우데회합의 결정에 따라 상해에서 별도의 당창립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온 것이다.²⁴⁰⁾

박진순은 1920년 10월 울란우데의 상해파지도부 회합시 동양공산당 설립을 결정하면서 “극동비서부에 대해 코민테른 재외 전권위원과 동양공산당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관해 지령을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의전보를 모스크바로 보낸바 있었다.²⁴¹⁾ 그 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슈미야츠키의 동양비서부에게 극동지역에서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극동지역 담당 코민테른집행위원인 박진순에게 동양비서부에 복종하고 전한공산당창립대회 소집에 관한 사업을 동양비서부에 집중시키라고 명령했다.²⁴²⁾ 슈미야츠키는 동양비서부장 취임 얼마 후인 1921년 2월 8일 치타의 한인부 간부들을 만나 “절대로 공산당이나 군인이나를 물론하고 대의회난 이르쿠츠크에서 할 것”이며, “한인부도 이르쿠츠크로 이전할 것”을 일방적으로 명령하였다.²⁴³⁾ 치타에서 이르쿠츠크로의 이전이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상을 의미한다. 치타가 극동공화국 관할이라면 이르쿠츠크는 소비에트러시아 관할이기 때문

236) , 1920년 11월7일자

237) 이인섭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1968년 2월5일자)

238) 1920년 말에서 1921년 봄에 걸쳐 한인사회당이 자과의 주도로 전한공산당 건설과 흑룡주에 결집해 있던 한인의 빨치산부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1921년 1월 조직)의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파 역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 극동부 한인부(1920년 12월초 조직)를 비롯한 극동지역의한인사회당세력을 탄압하며 당권과 군권장악을 추구하면서부터 갈등은 격화되었고 슈미야츠키의 상해파인사 체포라는 물리력의 행사는 결정적으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239) 張道政 高麗共產黨の沿革, p13; 반병률, 위책, p324

24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5권, p98, p335; 반병률, 위책, p324

241) Чунью(춘우), Телеграмма Коминтерн No.2(코민테른 앞 전보 제2호),1920.10.17, РГАПИ ф135 д22 л62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2006, p264

2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권, p95, p330

243) 동아국한인부일지(1921년 2월 8일자); 반병률 위책, p311

이다. 이는 한인부에 대한 압력이자 극동공화국과 크라스노체코프에 대한 압력이기도 했다. 때문에 한인부 간부들은 슈미야츠키의 조치에 대해 크라스노체코프에게 대응책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계봉우의 저술에 의하면 크라스노체코프는 ‘마음대로 하라’고 함으로서 사실상 슈미야츠키의 지시를 거부해도 좋다는 뜻을 표했다.²⁴⁴⁾ 계봉우의 진술은 상해파가 독자행동에 돌입하게 된 근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

1921년 상반기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구조가 양파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전히 단합의 가능성은 열려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정세를 좌우하는 모순은 슈미야츠키와 크라스노체코프의 갈등이었고, 볼셰비키 강경파인 코민테른극동비서부와 온건파인 극동공화국간의 갈등이었다. 크라스노체코프가 레닌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고는하나 극동공화국은 일본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마치는 순간 존립이유가 없어지는 모순된 존재였다. 불꽃처럼, 혁명의 사수를 위해 성실하고 유능할수록 사멸의 속도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 10월 울란우데에서 상해파간부들의 결정은 극동공화국의 권력을 전광석화와 같이 이용하고 빠지지 않는 한 극동공화국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물수제비가 물을 박차고 몇 번은 뛰어오를 수 있지만 호수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물속에 가라앉고 말듯 새로운 틀로 이 상황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상해파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상해파 리더십의 마지막 가능성은 이동휘로부터 나왔다. 코민테른극동비서부를 움직이는 상급권력인 모스크바의 코민테른본부와 레닌과의 담판이 그것이었다.

우선 이동휘는 1921년 3월 20일 개최된 상해의 한인공산당 총회에서 자신은 한인사회당 중앙위원으로서 상해의 한인공산당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김만겸, 여운형, 안병찬등이 이끄는 상해 한인공산당 조직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40만루블의 레닌자금까지 연루되어 이들 비한인사회당 계열인사들은 이르쿠츠크파에 가담하게 되었다.²⁴⁵⁾ 따라서 우사가 몽양과 함께 극동민족대회를 향한 여정에 오를 때 이미 여운형과 상해파의 관계는 절연된 상태였다.

여운형을 제외하고 김만겸과 안병찬은 1921년 5월 4일부터 열린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공산당 창당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동휘와 상해파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상해파는 1921년 5월 20일에서 23일에 걸쳐 상해지방 공산당 사무소에서 고려공산당대표회를 개최하고 별도의 고려공산당을 창당하였다. 국내로부터는 사회혁명당세력이 8명의 대표를 보냈는데 김립과 의형제사이로 아주 절친한 허헌을 통하여 연결되었다.²⁴⁶⁾ 국내로부터 사회혁명당의 참가는 위기에 처한 상해파로서는 의미있는 결합이었다.²⁴⁷⁾ 코민테른동양비서부의 권위를 배경으로 상해파를 압도하는데 성공한 이르쿠츠크파는 제3회 국제공산당대회에 참가하여 유일

244) , 조선력사3권, p130~131

245)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5권, p98, p335; 반병률, 위책, p324

246) 김철수, 김철수친필유고, p350. 김철수에 따르면 김립과 허헌은 일본동경에서의 유학시절(한일합병전)에 장래에 조선을 임헌군주국으로 하자는 心盟으로 ‘立’자와 ‘憲’자로 두사람의 이름으로 삼을만큼 절친한 사이였다 한다.; 반병률, 위책, p325

247) 사회혁명당의 기원은 1911년 주시경의 발기로 조직된 배달모임이란 조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달모임의 목표는 정치혁명의 실현과 풍속개량등의 여러혁명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후 1915년 동경에서 조선, 중국, 안남등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타파와 상호공제, 민족평등, 국제평등을 목표로 한 신아동맹단(또는 新亞同盟黨)이 조직되었을 때(주요인물:김철수,장덕수등) 배달모임은 그 조선지부로 되었다. 배달모임이 주도하여 15명이 1920년 6월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일본제국주의 타파와 사회주의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한 일종의 비밀결사조직인 사회혁명당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김철수, 김철수친필유고, p349~350; 반병률, 위책, p325)

한 고려공산당으로 인정받아 승리를 굳히는 듯 했다. 그러나 1921년 가을 이동휘가 이끄는 상해파 고려공산당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황은 역전된다. 이동휘,박진순,홍도 일행은 1921년 9월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방문하고,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당의 불법적 활동과 공공연한 전횡’에 관하여 보고하였다.²⁴⁸⁾ 이와 아울러 이동휘와 박진순은 민족혁명과 고려공산당 창립에 대한 보고문을 제출하였다.²⁴⁹⁾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이 이미 제3차 국제공산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동휘등 상해파대표단의 보고에 접한 국제공산당은 양파에 대해 연합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이르쿠츠크당을 대표한 한명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할 것을 요구함으로써²⁵⁰⁾ 국제공산당 집행위는 검사위원회(위원:벨라쿤,쿠시넨,사파로프,이류신)로 하여금 양파에 관한 제반 사실과 문건을 검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공산당집행위 검사위원회는 5개항으로 된 ‘제3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 결정서’(1921년 11월 15일자)를 작성하였다.²⁵¹⁾

결정서의 핵심은 양파가 조선혁명분자의 대표임을 표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완전히 연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검사위원회의 결정서는 국제공산당 집행부와의 관계를 차단 독점하여 온 슈미야츠키를 견제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에서 탄압받고 있는 동지들을 구원하고, 세력을 만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해파의 승리였다. 상해파의 승리는 이동휘가 러시아의 유력 볼셰비키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신임과 명성에 힘입은 것이었다.²⁵²⁾

이 결정에 의해 양파로부터 4인으로 구성된 8인의 연합간부를 구성하였다.²⁵³⁾ 이동휘와 홍도는 다른간부들이 모스크바에 없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연합간부의 권한을 장악하고 이르쿠츠크로 가서 동양비서부 고려부 당국자들과 만나며 양당의 통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체포 투옥된 간부들의 석방문제를 비롯하여 현안문제 해결에 나섰다.²⁵⁴⁾

이후 검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르쿠츠크에 투옥되어 있던 박애, 김진, 계봉우, 장도정 등 80여명의 상해파 인물들이 석방되었다.²⁵⁵⁾ 계봉우는 석방되어 1922년 1월 치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²⁵⁶⁾ 따라서 우사일행이 이르쿠츠크에 도착하던 시점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다시한번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찾아 온 시점이었다.

연합간부로 선정된 인물들 가운데 이르쿠츠크파 계열인물들이 극동에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있었던 이동휘와 홍도가 고려공산당중앙간부의 책임을 맡아 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의

248) Pak Dinshun,'<V Prezidium Krestintema : Dokladnaia zapiska>,p2: , 위책, p337

249) 김세일에 따르면 이동휘는 국제공산당집행위원장 지노비예프와 총비서 사파로프를 만나서 상해고려공산당을 조직할 때는 국제공산당극동비서부에서 보이틴스키가 참석하고,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을 조직할 때는 슈미야츠키가 참석했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하고 질문하였다. 이에 지노비예프와 사파로프는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는 상해 고려공산당만을 인정하고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김세일, 홍범도4, 제3문학사, 1990, p224~225)

250) 붉은 군사,1921년 12월24일자: 반병률, 위책, p337

251) 김정주, 조선통치사료7권, p194~198; 반병률, 위책, p338

252) 이동휘에겐 운도 따랐다. 당시 레닌정부 인민위원회 외무부에서 압수된 볼찰정부의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케렌스키정부에서 이동휘를 가장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일본에 넘겨주려다가 볼셰비키의 승리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동휘에 대한 레닌정부의 신임이 커졌다고 한다. (이인섭, 최고려자서전을 연구하다가 자기소감, p44~45; 반병률, 위책, p338)

253)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해파-이동휘,홍도,김철수,이봉수 / 이르쿠츠크파-안병찬,이성,김응섭,장건상

254) 반병률, 위책, p336~346

255) 이인섭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 1968년1월18일자.; 반병률, 위책, p339

256)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50 참조: 반병률, 위책, p339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서’를 실행에 옮기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시연합간부 구성에 이동휘와 홍도가 모스크바에서 고려공산당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슈미야츠키가 국제공산당집행위 결정서에서 비판을 받은 점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파 간부들이 극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에 대한 준비관계로 모스크바에 올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²⁵⁷⁾ 이동휘에게 유리하게 된 반전은 슈미야츠키에겐 불리한 반전이였다. 여기서 주의해볼 것은 크라스노체코프와 슈미야츠키의 갈등구조가 이동휘와 슈미야츠키의 갈등구조로 바뀐 점이다. 이동휘로서는 모스크바권력을 배경으로 슈미야츠키를 압박하는 주공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잠시나마 상해파의 승리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슈미야츠키가 주도하던 극동민족대회도 마치 시기를 가늠하듯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지다가 결국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로 변경 개최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우사일행이 곧 도착하게 될 이르쿠츠크의 앞날에 얼마나 긴박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준비되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어느정도로 감지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울란우테에서 머물던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치타를 출발하여 울란우테에서 우사일행을 태운 시베리아횡단열차는 극동공화국의 국경인 셀렌크강을 건너 대망의 이르쿠츠크를 향해가고 있었다.

바이칼

동행이 있는 여행이었기에 나 혼자 치타에서 하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치타를 찍기 위해 위성사진과 지도로 치타 시내도로를 익혀두었고 정차시간인 30분안에 찍을 수 있는 대상을 미리 마음속에 정해두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추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가 치타시의 중심인 레닌광장을 촬영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기차가 예정보다 빨리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일행은 차장에게 예고한 30분까지는 못 떠난다고 입막음을 해놓고 역 앞에서 내가 나타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나를 부르는 한바탕 아우성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뿜 덕분에 시베리아의 미아가 될 뻔한 위기를 넘겼다.

조각상처럼 수려한 외모를 가진 젊은 차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종일 창가에 서서 사진촬영에 몰입해 있는 나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그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열차가 치타를 출발한 한참 뒤였다.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던 그는 의외로 영어로 내게 사진가냐, 무엇을 찍느냐등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영어를 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시베리아의 자존심인가 싶었다. 그는 바이칼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구간과 언제쯤 열차가 그 구간을 지날지를 계산해서 친절하게도 내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가 깨워주겠다는 약속으로 호의를 표시했다. 울란우테를 도착하기 전에 밤이 왔고 새벽 5시경에 예상했던 구간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러나 차장이 깨우러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눈을 떴고 어둠속에서 보랏빛 광선이 검은 구름을 막 찢고 깨어나는 바이칼의 여명과 만났다.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바이칼 우사일행이 울란우테를 떠나 바이칼을 보았던 그 장소 그 시간에 서있고 싶었던 나의 희망은 그렇게 절반의 성취를 이룬 셈이 되었다. 우사일행이 바이칼에 다다른 시간은 황혼무렵이었다.

음울한 북극 겨울의 황혼이 어슬어슬 땅을 덮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여객들의 ‘빠이칼’ ‘빠이칼’하는 환호의 소리에 멀리 차창 밖으로 마치 바다의 원경인 것처럼 아득히 보이기 시작한 유명한 빠이칼 호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들도 ‘아! 빠이칼!’하고 거의 무의미하게 남들의 탄성에 화하였다. 그것은 호수라기보다도 완전히 그대로 바다였다. 마침 날이 거의 어두워 갈 때가 되어서 우리의 시각은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 높은 매력에 마음껏 도취 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단조한 언덕의 권태로운 연속과 살풍경한 ‘스텝’(고원지대)의 황량에 또는 음울한 밀림의 위안없는 침묵속에 오랜 여행을 계속해 온 우리에게 이 일망무애의 바다와 같은 호수가 주는 광활한 전망과 오직 물만이 가지고 있는 저 일종 특별한 자유롭고도 보드라운 감정은 확실히 고맙고도 희한한 선물임에 틀림없었다.

호수는 마침 결빙기에 들어서 육지 가까운 부분에는 벌써 얼음이 수면을 덮고 또 이 호수에 흘러드는 30여 하천의 고산과 심곡에서 흘러온 얼음덩어리는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며 호수의 결빙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오르는 물김은 결빙기 특유의 자욱한 안개가 되어 이 호수의 전망을 극히 아득하고 좁은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몽양의 기행문은 정작 이르쿠츠크에서의 업무기록이 거의 생략된데 비해 여로에서 보고 체험한 것을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의 나아감이며, 미학적 체험이다. 사회주의 러시아의 이념에 동의하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미적기준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우사일행의 여행은 가치가 있었다. 이승만의 반공의식의 뿌리에 반러의식이 숨어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자가 언급한 바이다. 우리는 우사일행의 여행을 통해 러시아를 미학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준하나를 얻은 셈이다. 돌아보면 바이칼은 우리 역사에 몇차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바 있었다.

바이칼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육당 최남선이었다. 1925년 불함문화론을 통해서였다. 그는 “조선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단서로 단군신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단군신화의 해명을 위해 동아시아 고대 신화와 서사시 비교연구가 관건임을 지적하였고 부리아트의 ‘게세르(Geser)’에 주목하였다. ‘게세르’는 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영웅서사시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서사시 등장인물의 이름이다. 게세르이야기의 분포지역은 알타이에서부터 티베트와 몽골초원을 거쳐 만주와 한반도까지 이른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같은 이야기 열개를 가지고 있는 게세르 이야기는 단순한 구비문학 작품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세계관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본 것이다. 1918년에 쓴 그의 상고사 연구 ‘계고차존(稽古劄存)’²⁵⁸⁾은 한국의 전통적·고전적인 고대사관을 그대로 수용한 글이란 느낌을 주고 있으나, 1925년의 ‘불함문화론’은 단군조선을 출발점으로 하는 조선사라는 일국적 범주를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 내지 세계사의 광활한 범주로 확대시킴으로써 그것은 이미 조선사가 아닌 아시아문화사로 되고 있다. 불함문화권은 조선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발전 하였으며 두 민족이 비록 혈통적으로 같지는 않으나 문화적으로는 본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한일문화동근론(同根論)은 이미 1930년 라디오 방송원고로 알기 쉽게 풀이되었으니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었다. 여운형이 바이칼여행기를 쓸 당시인 1936년 이미 바이칼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한편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운형의 여행기가 연재된 다음해인 1937년에 육당이 쓴

258) ‘불함문화론’은 분명히 일제의 단군말살론에 대항하기 위한 논문으로 집필되었다. 불함문화론을 탈고한 직후 그는 동아일보에 ‘단군론’을 연재했는데 그것은 일인학자들의 단군말살론에 대한 정면도전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인의 반일여론이 비등하였고 또 그 때문에 최남선이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썼던 그의 단군연구, 예컨대 그가 변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29세 때의 논문인 ‘계고차존(稽古劄存:청춘14호)’과 비교해 보면 양자간에 현격한 논리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문화 당면의 과제’²⁵⁹⁾는 그의 불함문화론이 어떻게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²⁶⁰⁾

육당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칼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이광수였다. 이광수(李光洙)가 지은 장편소설 유정은 193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는데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최석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하던 남백파와 그의 중국인 아내 사이에서 낳은 남정임을 맡아 기른다. 정임이 자라면서 최석은 정임에게 사랑을 느낀다. 정임도 최석에 대하여 보호자로서의 최석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이성애를 가지게 된다. 일본으로 유학 간 정임이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최석은 정임에게 수혈을 하고 오는데, 최석의 아내는 정임의 일기를 보고 오해를 한다. 질투 끝에 남편을 마구 혈똥어 이야기하고, 그것이 신문에 기사화되어 최석은 비교육자로 낙인이 찍혀 여학교 교장 직을 그만두게 된다. 재산을 정리한 최석은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정임의 고백을 듣고 포옹한다. 그러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시베리아로 떠나버린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로 가는 도중 R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문제의 여학생을 아내로 맞아 조선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최석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바이칼 호에서 더 먼 곳으로 가서 죽음을 맞으려 한다.

춘원은 1913년 11월 세계여행을 목적으로 상해에 들렀다가 1914년 미국에서 발간되던 신한민보(新韓民報)의 주필로 내정되어 미국행을 결심한다. 시베리아를 거쳐 러시아대륙을 기차로 횡단하여 유럽을 지나 미대륙으로 갈 생각이었다. 상해를 떠난 이광수는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목능에서 이갑을 만나고 전신불수였던 이갑의 말벗이 되어주다가 원래 목적대로 치타로 떠난다. 치타에는 이강이 있었다. 이강은 미국국민회에서 안창호가 파견한 인물이었다.²⁶¹⁾ 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대 이곳 치타로 이동, 대한인국민회시베리아총회²⁶²⁾를 조직하였다. 또한 잡지인 ‘대한인정교보’를 간행하여 민족의식고취에 기여하였다. 정교보는 러시아 정교회의 소식이란 뜻인데 한국인들이 정교회에 든 경우가 많아 이를 대변하던 신문이었다. 물론 예산도 빈약하고 신문체제나 부수도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춘원은 치타에 7개월간 머물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했으며²⁶³⁾ 대한인정교보의 주필로 일했다. 그에게 러시아는 이미 톨스토이를 통해 심정적으로 친근해져 있었던 곳이었다.²⁶⁴⁾ 게다가

259) , 1937. 2. 9~11

260) 일본과 조선은 원래 같은 문화 원천이 2개의 지류로서, 일본의 근본적으로 깊고 깊은 강이 만세에 흘러서 여일(如一)할 조선은 불행하게도 절단되는 운명에 놓여 그 의식도 흐려졌던 것인데, 시운을 만나서 이제야 분류가 재회하여 같은 원류를 가진 파도에서 춤추게 약속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261) 치타는 특히 평안도 출신 기독교인들, 그리고 미국의 안창호와 가까운 인사들의 활동거점이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처럼 많이 활동 할 수 있었던 것은 치타의 교통상 편리함 때문이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브스크를 거쳐 치타로 오면 현재에도 3일정도 소요되는 먼거리이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수리스크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와 수분하, 목단강, 하얼빈을 통하여 치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도 서울-신의주-단동-심양-장춘-하얼빈-치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박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p164~165)

262) 1910년대 치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바탕으로 대한인국민회시베리아 지방총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911년에 조직되어 1915년 해체될 때까지 약 5년 동안 자바이칼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단체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된 권업회와 함께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였다.

263) 경향신문, 2008.7.14

264) 1912년 오산학교 재직 때에는 톨스토이를 애호하면서 학생들에게 생물진화론을 가르쳤다고 하여 교계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였고, 1923년에는 톨스토이의 소설 ‘어둠의 힘’을 번역했다. 정작 톨스토이가 치타와 이르쿠츠크에 유배왔던 혁명군인 데카브리스트들 특히 발콘스키의 혁명성에 이끌려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됐다는 내

시베리아를 거쳐 치타로 오는 동안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과 설원의 무한한 신비에 황홀한 체험을 하였던 터라 정주산골에서만 자랐던 그에게는 해가 지평선에서 떠서 지평선으로 지는 광경은 신비로운 장관 바로 그것이었다. 신비롭고 황홀한 바이칼 호반과 시베리아설원의 체험은 그 후 20여년이 지난 후 유정으로 형상화 된다. 이광수는 유정을 쓰고나서 자기작품 중에 외국어로 번역된다면 ‘유정’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작품은 스케일도 크고 문체나 배경묘사가 뛰어나다고 자평한 작품이다. 이광수가 치타에서 얻은 것은 이 작품하나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미국행이 여기에서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까지 가는 여비도 문제였겠지만 미국에서 친구인 옥중경이 개입되어 이광수가 오해를 받게 되고 미국에 가면 그 오해가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친구가 곤란해질 것 같아 미국행을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치타에 있는 도중 1차대전이 발발한 때문이었다.²⁶⁵⁾ 임헌영은 기껏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이상으로 삼았던 이광수의 상상력에 대해 비판한바 있다.²⁶⁶⁾ 그러나 바이칼 자체가 아니라 바이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이나 이광수의 조선민족개조론이나 유라시아의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관심이 아시아 남방에 초점을 둔 대동아공영론에 비해 유라시아북방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 또한 인정된다. 남극과 북극의 축 사이에서 흔들리던 나침반이 결국은 축선상에 그 동요를 멈추는 것은 자성의 근원에서 비롯되는 필연이듯이 식민과 독립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제출한 유라시아의제가 어느새 내선일체론으로 귀결되어 간 것은 그 근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 밝히는 증명이 되었다.

육당과 춘원은 카프문화파에 대항하는 국민문화파로 분류된다. 국민문화파라는 것이 20년대의 정세변환 속에서 ‘문화적’ 민족주의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은 주지하는 바인데, 이들의 문화중심주의적 사유에서 ‘문화’는 무엇이이었을까? N. 엘리아스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 개념은 정치적·경제적·종교적·기술적·도덕적·사회적 사실들을 지시하는데 반해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 개념은 정신적·예술적·종교적 사실들을 지시한다. 또한 문명 개념은 민족들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 문명적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다른 영토를 식민지로 개척한 민족들의 자아의식을 표현한다. 반면에 문화 개념은 민족적인 차이와 특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다른 민족보다 때늦은 근대 경험을 했으며 역사적으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던 민족의 자아의식을 이룬다. 결국 문명과 문화는 각각의 역사적 맥락 속에 놓인 민족적 자의식을 담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일본에서의 ‘문화’론이 메이지 초기의 ‘문명’론을 물리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1910년대의 다이쇼 시기라는 점과 함께 이 시기에 일본의 사상사가 구화주의(歐化主義-유럽화)에서 국수주의(國粹主義-일본으로의 회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둘 만하다. 이 시기야말로 한국근대문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문인들이 속속 일본 유학 경험을 자신들의 글쓰기에 반영하는 때이기 때문에 20년대의 문화적 민족주의 또한 이 사상사적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문화파의 조선‘혼’ 내지 조선 ‘정신’의 강조는 바로 그 국가적 대상의 필요성에 대한 심정적 표현이었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조선혼’을 대신한 ‘일본혼’의 강조가 대거 눈에 띄거니와 이것은 곧 국가와 인종적 투명함에 대한 신념이 일본국민정신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양상이라 하겠다.²⁶⁷⁾ 불함문화론, 민족개조론이 내선일체에서 대동아공영론으로 색을 맞춰 간

이광수의 친일문화파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265) 한승욱, 이광수, 건국대출판부, 2008, p27~28

266) 임헌영, 불교적 상상력과 문학, 유심' 2006년 겨울호 '

267) 박수연, 월간 민족예술 2004년 3월호

것은 필연이었던 셈이다.

최남선은 이광수와 함께 1943년 11월 14일과 20일 이틀 동안 일본 동경 메이지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학도궐기 대강연회 연사로 참가한 뒤, 귀국 후 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우리 일행은 동경을 중심으로 맹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지난 14일과 20일 이틀 동안 메이지대학 대강당에서 학도 궐기 대강연회를 열었는데 그 때의 상황과 학도들의 열의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학도들은 황국을 위하여, 대동아건설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불타는 결의로 충만한 우렁찬 모습들이었다. 나는 원컨대 입영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건전한 신체와 열렬한 순국의 결의로 매진하여 미·영 격멸의 용사로서 황군이 된 참정신을 발휘하는 가운데 잘 싸워주기 바라는 바이다.”

최남선은 자신의 학병 권유 행위에 대하여 마치 훗날의 광복을 위해 민족의 기간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열서에서 강변하고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젊은 청년들이 조직과 전투에 능한 사회 중핵층을 형성하게 하여, 다가오는 신운명에 대비하려 생각했다"는 것이다. 춘원이나 육당이 해방 후 늘어놓은 변명들에 대해 그말들이 거짓이나 위선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그 진심이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파렴치한 위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스스로 세뇌된 논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일 뿐이다. 전향자들에게 두가지 부류가 있다. 스스로 전향한 사실에 심리적으로 번뇌하며 평생을 죄의식에 빠져사는 경우와, 전향을 합리화하여 변화된 상황에의 적응일 뿐 변절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경우이다. 마음이 유약하여 배신하는 경우와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경우 개인적 차이는 실로 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바이칼에 대한 국민문학과의 문화주의적 해석이 있는 뒤인 1936년 여운형의 바이칼 여행기는 바이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있다. 바이칼에 이르기 전 몽양 우사 일행이 그들의 열차에서 겪었던 혹독한 체험과 그에 대한 승화된 인식을 보자.

일부러 역부대신 우리를 차 칸으로 안내한 러시아동무가 준비해 가지고 온 초에 불을 켜니 얼푼거리리는 누런 광선의 희미한 조명이 그려내는 차실한복판의 광경은 자못 황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의자의 쿠션은 다 떨어져서 밑바닥의 나무가 보기 싫게 노출되어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까지 보였다. 마루판에는 또한 두꺼운 먼지가 우리의 발자국을 번듯하게 새겨주었다. 일행이 먼지를 툭툭 털며 한복판에 모여앉아 자리를 잡고 나니 곧 저녁식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서 들어온 다른 러시아동무가 검은 나무토막을 하나 가슴에 안는 듯이 하고 들어오더니 가지고 온 도끼로 패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스토-브에 뿔나무인줄 알았더니 그것은 의외에도 검정 ‘빵’이었다. 밀가루 뿐만아니라 지푸라기 가루까지도 다분히 섞인 이 검정 빵을 워낙 오래 묵인데다가 추위에 팡팡 얼어서 나무 패듯이 도끼로 찍기전에는 도저히 쪼개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검정빵 외에 연어알과 무엇인지 이름모를 소금에 절인 생선이 우리에게 급여된 저녁음식의 전부였다. 물론 차도 있었으나 때물은 양철찻잔과 짙이나 삶은 물같이 누르툭툭한 차물 빛은 그다지 식욕을 끄는 것은 되지 못하였다. 양고기 밖에는 먹지를 앓는 몽골 동무들은 물론 조선동무들도 모두 이 살풍경한 반찬에는 감히 손도 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연어알 조금하고 검정빵을 찻물에 충분히 축인 것을 조금 먹어보았다. 내가 먹는 바람에 다른 동무들도 찻물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각사탕도 오직 한 개씩 밖에는 차레가 오지 않았다. 그럭저럭 저녁밥 흉내를 내고나니 이 뜻밖에도 황량한 저녁식사는 우리들 일동의 활발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내일도 모레도 여행하는 동안에 때마다의 식사가 늘 이러면 어떨까 하는 불안이 누구의 말 틈에도 새여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론 당시의 러시아를 전국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저 대기근의 뒤를 이은 극도의 식량 결핍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그 조악한 식량에 의하여서도 능히 역사가 그들의 어깨위에 얹어주는 모든 짐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지어나가는 이 땅의 새로운 민

중정신의 감화력이 우리의 이 따위 불안 같은 것은 오직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잘 알게 하여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²⁶⁸⁾

‘검은 빵’과 ‘민중정신의 감화력’에 대한 기억은 비단 우사 일행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동휘와 함께 모스크바에 갔던 이극로는 세계각국 주빈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던 렉스(Lux)호텔에서 과일과 껌과 함께 갈아서 만든 검은 빵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도 누구하나 이를 불편해하지 않았고 또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아들에게 모스크바체류기간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이 검은 빵조각을 조선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어린 아들 역세에게 보여주며 프롤레타리아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²⁶⁹⁾ 우사일행은 이러한 민중적 열정과 관점으로 바이칼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오-제르나야 역에 내리는 행운을 얻는다. 이정식이 처음 이 자료를 입수하여 읽다가 가장 흥분했다는 대목이다.

바이칼이 가지고 있는 그 한없는 매력을 조금이라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기차가 온밤을 이 호수를 끼고 돌아서 그 이튿날 아침 대안의 지점에 도달하였을 적이다. 대안의 어떤 자그마한 정거장에 머문 기차는 이곳에서 연료의 장작나무를 신기 위하여 약 30분간의 정거를 하였던 것이다. 현재는 극동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여행에 불과 일주일 밖에는 안 걸리나 그때만하더라도 적어도 그 황폐의 시기를 마쳤을 뿐인 그때에는 극도의 연료공황으로 기차는 모두 석탄 대신에 장작을 때면서 운전을 하였다. 삼림지대에 차를 세워놓고서 도끼를 든 운전수 차장들이 생나무를 찍어다가 기관을 떼가면서 기차의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우리는 30분 정거시간의 심심풀이를 하기를 겸하여 장작나무를 기관차에 신는데 같이 모여들어 조력을 하기로 하였다. 서늘한 아침공기는 기차의 동요에 완전치 못한 수면이 남겨놓은 툭툭한 기분을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씻어버리고 노동의 상쾌한 흥분이 우리의 여행에 시달린 괴로운 뺨에 보기 좋은 흥조를 주었다. 지껄이고 떠들며 한참동안이나 나무를 싣고 나서 우리는 정거장 구내의 한모퉁이에 높이 쌓인 재목위에 기대기도 하고 앉기도 해서 제멋대로의 자세를 취하여 오른손 편에 가까이 수려하고 광활한 바이칼의 가경을 말도 없이 제각기 깊은 감탄과 유열에 잠기면서 마음껏 향락하였던 것이다. 실로 가슴이 열리는 듯한 유쾌하고 시원스러운 조망이었다. 오랫동안 바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조하고 우울한 대륙풍경속에 질식할 듯한 우수의 압박을 무의식중에 느끼면서 긴 여행을 하여온 우리의 눈앞에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연히 나타나 그 광활한 푸른 가슴을 겨울 아침의 짧은 태양아래 마음껏 벌려놓고 우리를 맞아주는 이 바이칼 호수는 마치 넓은 바다와 같았다. 검은 빛을 띤 짙은 청색의 호면에는 아지랑이가 아침미풍에 춤추고, 둥실둥실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는 그것이 이 자유롭게 유쾌하게 몸부림치고 춤추고 아양부리는 보드라운 수면을 무감각하고 침묵한 한 장의 얼음판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경쾌하게 물결 사이에 부동하며 태양의 반사에 이따금 다시없이 고운 광선의 희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흰 돛을 단 어선의 미혹은 벌써 이 호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겨울 앞에 그림자를 숨긴지 오랜 뒤였으나 그래도 하얀 갈매기의 나지막한 보드라운 울음소리는 그 필력필력 떠도는 흰 날개의 깨끗한 빛과 아울러 고단한 나그네의 감회를 정당하게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인상깊은 소역은 ‘오-제르나야’ 정거장이었다. 이 소역을 떠난 기차는 바이칼 호수에서 흘러나는 앙가라 강에 연하여 굴러갔다.²⁷⁰⁾

바이칼에 대한 이 탁월한 수기에는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긍정의 힘, 노동의 상쾌한 흥분과

268) 인상-나의 회상기 제4편, 여운형, 중앙, 1936.6 : 이정식, 위책, p688~689.

269) 이극로는 이 여행기를 조광(朝光)지에 ‘수륙이십만리주유기’란 제목으로 연재했고 1947년 7월 이극로의 ‘고투 40년’에 다른 글들과 함께 출판되었고, 아들 이억세가 ‘Material’(수교본, 1994)란 제목으로 남겼다. ; 반병률, 위책, p331.

270) 모스크바의 인상-나의 회상기 제4편, 여운형, 중앙, 1936.6 : 이정식, 위책, p690~692

그 아름다움에 대한 신뢰, 그로부터 연유하는 굳건한 낙관주의가 바이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남선이 문화주의에서 민족의 미래를 찾으려고 했던 퇴행의 배경에는 1921년 자유시참변에 이후 독립운동의 전망에 대한 암울함과 절망이 있었다. 전망의 부재란 낙관대신 비관과, 희망대신 절망과, 지조대신 배신과 손잡게하는 내밀한 유혹을 제공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사일행이 보여준 고난을 고난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경쾌한 낙관주의의 체험은 바이칼과 시베리아를 어떻게 느끼고 체험할 것인가에 대한 미학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우사일행이 정거했다는 오 제르나야 역을 찾는 사이 호숫가에서는 젊은 사내들이 마침 떠오르는 아침햇살을 받고 큰 호를 그리며 튀어오르는 낚시줄로 바이칼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환호성이 긴 꼬리를 남기며 열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반란 혐의로 유형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혁명에의 낙관을 잃지않고 시베리아 문명을 건설한 데카브리스트들처럼 한시대의 우울과 절망에 고개숙이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푸쉬킨²⁷¹⁾의 시를 바이칼의 허공위에 써본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크로포트킨

이르쿠츠크를 향해가는 동안 우사일행이 경험했던 시베리아 소읍들의 풍경은 유배지로만 알려졌던 어두운 이미지를 교정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딘스크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소읍은 모두다 상상이외로 높은 그 문화수준으로 나를 놀라게 하였다. 제정시대의 전제정치는 모든 진보적 정신을 류형, 기타의 박해로 이곳 시베리아로 쫓아 보내었으므로 이 추방당한 망명가 유형수들의 교양과 문화가 어디선가 이곳에 씨를 떨어트려서 색다르게 높은 문화수준과 놀랍게 세련된 교양과 취미가 말하자면 일반적 몽매의 광범한 초원의 이곳저곳에 화려한 꽃과 같이 점철되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 높은 향기로 뜻하지 않은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었다.²⁷²⁾

흔히 이르쿠츠크를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비유하지만 두 번이나 이르쿠츠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나에겐 이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다. 뭔가 감추어졌던 문명을 기대했다가 어설픈 파리의 모조품 정도로 이르쿠츠크를 냉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사일행이 느꼈던

271) 데카브리스트들 중에서 25명과 친척관계이고 56명과는 친구관계로 데카브리스트들의 비밀활동 깊숙한 곳에는 늘 푸시킨이 함께 하고 있었다. 데카브리스트들의 모임에서는 ‘자유’ ‘마을’ ‘차다예프에게’ 등 자유사상이 담긴 시들이 낭송되었다. 그는 전제정치에 대항하는 시들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황제의 눈에 나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던 그를 1820년 시골로 추방한다. 그 덕분에 그는 데카브리스트반란에 연루되는 것을 면했던 것이다.

272) 시베리아를 거쳐서-나의 회상기 제5편, 여운형, 중앙, 1936.7 : 이정식, 위책, p702~703

높은 문화수준을 일구어낸 유배자들은 1825년 차르 전제정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데카브리스트(12월당원)들이었다. 데카브리스트혁명은 러시아혁명의 기점이었다. 그들은 사형당하거나 이르쿠츠크, 치타로 유배의 삶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영향력은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말을 타고 20여일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이르쿠츠크에서나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혁명가들에겐 감옥이었지만 혁명을 동정하는 이들에게 데카브리스트들의 제 2의 고향 이르쿠츠크는 커다란 빛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세계 5대 자서전에 꼽히는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에는 데카브리스트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감정으로부터 그의 혁명에 대한 동경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근위학교시절 나는 일요일과 휴일을 큰어머니인 미르스키공작 부인의 집에서 지냈다. 혁명적 사상과 관련이 있을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애교넘치는 미인이었던 사촌누이의 집에서 나는 처음 혁명적인 문헌을 접했다. 그 무렵은 유명한 망명객인 헤르첸이 런던에서 잡지를 창간하여 러시아 민중은 물론 궁정사람들까지 동요하게 만들고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헤르첸의 잡지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 사촌누이는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그것을 입수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었다. 그녀는 차르의 통치를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반발했다. 나는 잡지의 표지에 인쇄된 초상화를 숭배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곤 했다. 표지에는 1825년 12월 14일의 폭동 후에 니콜라이1세에게 처형당한 12월당원들, 베스투제프, 카호프스키, 페스텔, 릴레예프 무라비요프, 아포스톨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훗날 유라시아를 흔든 사상가 크로포트킨은 유배가 아닌 부임으로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²⁷³⁾ 황실근위대로 출세가도가 열렸던 자신의 미래를 버리고 변방의 장교를 자청하여 부임해 온 것이다. 유배와 부임은 큰 차이가 있다. 유배된 혁명가인 바쿠닌도, 트로츠키도 이르쿠츠크는 하루빨리 탈출해야할 감옥일 뿐이었다. 그들이 대도시의 권력과 그것을 전복할 조직을 향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면 크로포트킨은 반대로 대도시의 권력을 뒤로하고 소박한 시베리아소읍의 촌락공동체를 끌어안음으로서 사회주의의 미래를 발견했다.²⁷⁴⁾ 그런 의미에서 이르쿠츠크의 토양이 길러낸 세계적 사상가는 단연 크로포트킨이다. 나는 이르쿠츠크가 파리와 비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크로포트킨을 통해 깨달았다. 크로포트킨은 이 먼고장에서의 직접적 관찰을 통하여 “모든 커다란 역사적 사건 안에서, 심지어 전쟁기간에도 무명의 대중들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지도자와 익명의 대중이 각각 맡았던 역사적 역할에 관해서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개진했던 견해를 공유하게 된다.²⁷⁵⁾

촌락공동체의 생활방식을 보면서 형제애를 기반으로 한 반(半)공산주의적 조직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러시아개척민의 이주정책이 거의 실패하는 상황속에서 그들의 이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었다. 원주민들과 생활하면서 문명의 영향력이 없어도 복잡한 사회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없는 민중이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전쟁까지를 포함해-을 완성하는 것을 목격한 나는 이들의 역할을 실감하게 되었다. 전쟁

273) 1862 6월 24일 시베리아 코사크기병연대에 부임하여 9월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난 지 19일 만에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

274) 그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시베리아는 많은 러시아인이 생각하듯 추방된 자들만 모여사는 동토의 땅이 아니다. 1862년 시베리아 행정당국은 러시아 본국의 어떠한 지방보다 진보적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275) 크로포트킨, 한 혁명가의 회상, 1899.;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6, p282

과 평화에서 톨스토이가 표현한 것처럼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주의 집에서 자란 나는 많은 청년들처럼 지휘와 명령과 징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른으로서 대접받으며 하찮은 실수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을 수행해야 했던 나는 명령과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상호이해를 원칙으로 행동하는 것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다. 전자는 군대에서 열병하는 것에는 효과가 컸으나 실생활에서는 별 쓸모가 없었다.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한데 모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실현될 수 있었다.²⁷⁶⁾ 나는 그때까지 견지해 온 신념을 시베리아에서 모두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미 ана키스트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수도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행정기구의 중개를 통해 민중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회적 삶의 원동력은 언제나 사람들의 공동노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시베리아 체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경험과 지식도 그것을 체현한 새로운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면 아직 관념일 뿐이다. 그는 데카브리스트들이 정착한 이후 불과 수십년동안에 형성된 이르쿠츠크의 새로운 형의 사람들과 호홉하게 된다. 그것은 투르게네프 같은 탁월한 작가조차 미처 포착하지 못한 인간형이었다.

젊은 니힐리스트²⁷⁷⁾ 여성들은 ‘인형의 집’속에 갇힌 인형이 되어 재산 때문에 강요당하기 보다는 저택과 비단옷을 포기하는 편을 택했다. 그녀들은 초라한 검정 모직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고등학교를 다녔다. 여성들은 사랑도 우정도 없는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적으로 부부일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편과의 인연을 끊었다. 그런 여성들은 독신으로 살거나 자녀들과 함께 가난에 맞섰다. 관습적인 생활 밑에서 영원히 자신을 속이기 보다는 외로움과 빈곤을 택했던 것이다. 니힐리스트들은 사소한 일상생활도 무척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관습적인 미사여구 대신 무뚝뚝하고 간단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했다. 이르쿠츠크에서 우리는 매주 한번 씩 클럽에 모여 무도회를 열었다. 남성 니힐리스트들이 여성을 대할 때, 그들은 인형이 아닌 인간적인 동료를 원했고 여성을 ‘연약한 존재’로 여겨 과도한 예의를 차리는 것을 거부했다. 여성도 동성친구를 대하듯 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여성이라도 배우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면 매일 밤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라도 걸어갔다. 러시아의 2대 소설가 투르게네프와 곤차로프는 작품 속에서 이 새로운 인간형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곤차로프는 ‘단애’에서 한 실존인물을 통해 니힐리스트를 풍자하려했으나 전형을 그려내지는 못했다. 니힐리스트들에게 찬사를 보냈던 투르게네프의 니힐리스트주인공 바자로프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허위를 부정하는 니힐리즘은 거대한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평등하게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실보한 사상이었다.²⁷⁸⁾

실로 5년 동안 이르쿠츠크와 시베리아는 그에게 인생과 인간의 본질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주었다. 그의 가장 탁월한 저작중의 하나인 ‘상호부조론’ 역시 이르쿠츠크와 시베리아에서의 체험과 영감으로부터 연유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⁷⁹⁾ 수많은 다윈 추종자들은 생존경쟁

276) , 김유곤역, 크로포트킨 자서전, 우물이 있는 집, 2003 참조,

277) 여기서의 니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러시아 ана키스트를 일컫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단발머리를 하고 푸른색 안경을 쓴 여학생, 오버코트 대신 스코틀랜드식의 술을 두른 학생은 니힐리스트, 즉 정치를 불신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크로포트킨, 김유곤역, 크로포트킨 자서전, 우물이 있는 집, 2003 참조)

278) 크로포트킨, 김유곤역, 크로포트킨 자서전, 우물이 있는 집, 2003,

279) 크로포트킨은 1883년 프랑스의 그레르보 감옥에 있을 때, 크로포트킨은 베델부르그대학 총장 게스텔이 러시아박물학자대회에서 행한 ‘상호부조의 법칙에 대해서’라는 발표 원고를 뒤늦게 받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

이라는 개념을 가장 협소하게 제한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한 ‘무자비한 투쟁’을 인간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생물학 원리로까지 끌어올렸다.²⁸⁰⁾ 그러나 개별적인 투쟁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부조를 최고조로 발전시킨 동물종들이야말로 늘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며 가장 번성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고 농민들은 전쟁이나 강제징수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았고 꾸준하게 자신들의 경작법을 개량해왔으며, 촌락공동체는 천년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²⁸¹⁾

크로포트킨은 ‘빵의 약취’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아나키는 코문주의로 통하며, 코문주의는 아나키로 통한다. 양자는 다같이 현대사회의 지배적 경향인 평등의 추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은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했고, 혹은 실험해온 공산제의 역사를 검토한 바, 그들이 실패로 끝난 원인이 위로부터의 권력이 눌러 억지로 배당한 평등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그러한 권력지배를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공동체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논증한 것이다. 당시 사회주의자간에 논의되던 문제인 노동생산물의 분배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 그는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질의 차이가 아닌 욕망을 분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취한다’는 유명한 슬로건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분배의 기준을 욕망에 둘 때 사회질서가 엉망이 되리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에 대해 크로포트킨은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본래부터 결코 필요 이상을 구하지는 않으며, 각자의 필요량은 저절로 정해져 있다. 인간이 자기의 필요 이상을 바라는 것은 그 물자가 부족할 때나,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여서, 물건이 풍부해지면 저절로 코문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크로포트킨에 의하면,

생산력이 인간의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생산력을 그 단계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생산을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할 때, 혁명에 의해 생산수단의 수용과 그 재편성을 단행하고, 생산력의 급속한 상승을 피할 경우, 그것이 코문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도기의 분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또한 이 기간의 정치양태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크로포트킨은 어찌된 셈인지 이중대한 과도기에 있어서의 운동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한 것이 없다. 이점이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유라시아의제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한계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10월혁명때까지 볼셰비키의 아나키스트에 관한 정책은 공동투쟁이었지만 혁명에 승리하고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는 조직적인 소탕작전으로 변했다. 특히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후에 사회혁명당원과 아나키스트들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1920년 10월 초 소비에트 권력은 우크라이나에서 포트로 브랑겔 남작이 이끄는 백군과 대결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 밀리게 된 데서 적군은 아나키스트인 마프노²⁸²⁾ 농민자위군의 협

. 게스텔의 강연은 다윈의 ‘인류의 유래’ 중에서 논한 사상을 조금 더 부연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크로포트킨은 이 사상을 한층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곧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르쿠츠크에서의 경험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원체험으로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80) 포트리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김범영역, 만물은 서로 돕는다-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2005, p29

281) 포트리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김범영역, 만물은 서로 돕는다-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2005, p280

282) 일찍이 1918년 네스톨 마푸노는 모스크바에서 크로포트킨과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헤어지면

조가 필요해졌고, 마프노와 다시 화해하여 동맹을 맺게 되었다. 이 동맹의 협정에 따라 투옥되거나 추방당한 모든 ана키스트들이 석방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디서나 공공연히 활동할 권리가 주어졌다. 그 덕으로 기소가 각하되고 몇 사람의 투사가 석방되었다. 그런데 브랑겔이 패퇴하고 위기를 넘기자 소비에트적군은 마프노의 대응모가 적발되었다며 이들을 역습하고 다시 우크라이나의 ана키스트 운동에 대한 격렬한 탄압을 시작했다.

11월 말 트로츠키의 적위군은 합법적인 회의를 열려고 하리코프로 모여든 각지 ана키스트들을, 패퇴하여 은신중인 브랑겔과 함께, 일망타진하였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지역에서 ана키스트들에 대한 일제검거에 나섰으며, 마프노농민군의 양친과 처자들까지 인질로 잡아갔다. 크로포트킨이 죽기 바로 3개월 전이었다.

크로포트킨의 영향력은 아시아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크로포트킨의 저술들이 우리 글로 소개되기 시작한 연대를 정확히 고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3.1운동 이후 항일 독립운동 지사들 사이에 ана키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던 때와 시기를 같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 공제, 아성, 신생활 등 잡지에는 크로포트킨 등 무정부주의에 대한 글이 빈번하게 소개되는 등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이 혼재되면서 그 내부에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다.²⁸³⁾

한국의 신채호, 이회영, 김산, 중국의 스푸 빠진, 일본의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ана키스트들이 모두 크로포트킨주의자였다. 중국의 저우쭈어런(周作人)²⁸⁴⁾은 크로포트킨의 ‘시베리아기행’을 번역하여 민보民報24호(1908.10.10)에 게재하였다. 그는 또 천의보天義報에 발표한 ‘러시아혁명과 ана키즘’이란 글에서 크로포트킨의 ‘한혁명가의 자서전’에 나오는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저우쭈어런은 크로포트킨의 이론을 중국에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중의 하나였다.²⁸⁵⁾

1920년대 초의 ‘노동공제회’ 기관지 ‘공제’ 7호에는 ‘개미와 벌의 상호부조’가 소개되었고, 같은 호에 無我生 율김의 ‘청년에게 소함’이 실려 있다. 1928년 6월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의 ‘탈환’ 창간증보호에도 晦觀 율김의 ‘청년에게 소함’이 보이는데, 역자 주로 이 글의 원문은 크로포트킨이 프랑스에 체류할 때 불어로 저술한 것으로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 말로 번역되었으며, ‘조선말로도 일본 동경의 “근독사”에서 펴낸 적이 있으나 동지의 입장으로 옮긴 것이 못되어 오역과 누락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흥미롭다. 이정규李丁奎 연보(又觀文存) 1926년 항에는 London Freedom Press 간행의 크로포트킨 시리즈 ‘법률과 강권’, ‘무정부주의자의 도덕’ 등 10여 편의 소책자를 번역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들이 어떤 형식으로 간행까지에 이르렀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²⁸⁶⁾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은 체계바라가 산악에서의 게릴라 투쟁중에도 읽었던 책²⁸⁷⁾이며 오스

크로포트킨이 던진 단 한마디 말이 마프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전투에 감상은 금물이요. 희생정신, 불퇴전의 결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니. 이점을 잊지 말고 건투하기 바라오!’

283) 김사국은 1924년 3월 코민테른에 ‘조선내 공산주의운동의 발생과 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독립단’의 모든 성원들은 1921년에 형기를 다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문화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 ‘마르크스-공산주의자들’ 등 독자적 사상을 가진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화주의자들은 혁명활동의 방법을 부인하였고 진화론을 선전하였다. 테러리스트들은 조직적인 테러와 점령기관의 파괴를 위해 크고 작은 테러의 시도를 적극 옹호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하조직을 강화하고 주로 산업 노동자와 혁명지향적인 청년들의 조직사업을 착수하였다.”(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대한 김사국의 보고 제1호 ‘조선내공산주의조직의 발생과 약사’, 1924.3.17, p1)

284) 그는 루쉰과 형제지만 마오가 지적하듯 저우쭈어런은 제국주의문제, 매국노문학을 했다.

285) 쏘위, 김영문외역, 루쉰과 저우쭈어런, 소명, 2006, p99

286) 이문창, 크로포트킨 자전해설 한 혁명가의 회상, p1

287) 장 코르미에, 김미선역, 실천문학사, 2006, p113

기 사카에가 꼭 번역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크로포트킨을 세계에 알린 책이었다. 이런 이유로 오스기 사카에와 만났던 여운형은 크로포트킨의 ана키즘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ана키스트는 동부러시아와 시베리아에서의 콜착에 대한 전투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 중심인물중 하나가 카란다라시빌리였다.²⁸⁸⁾ 크로포트킨의 사상의 고향인 이르쿠츠크해방전투에서의 승리는 ана키스트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르쿠츠크시민공원묘지로 가는 길은 ‘카란다라시빌리거리’로 명명되어있으며 공원묘지에는 콜착군에 대항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빨치산동상과 함께 카란다라시빌리의 비석이 소박하게 세워져 있다. 다른 지역의 ана키스트들과 달리 카란다라시빌리는 숙청되는 대신 등용되었다. 그리고 자유시참변의 주역으로 우리 역사와 악연을 맺게 된다.

이르쿠츠크파

잇을 수 없는 바이칼의 회상을 남긴 채 앙가라 강의 물안개를 안고 시베리아횡단열차는 대망의 이르쿠츠크역에 도착하였다. 사형을 면한 데카브리스트를 받아 안았으며, 사상가 크로포트킨을 길러냈으며, 러시아에 귀화한 조선인들에게 고려공산당이란 정치적 생명을 수혈한 동시베리아의 주도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을 때 우사일행과 조선대표들이 맨 먼저 한 일은 ‘조사표’라는 이름의 12개 항목으로 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에 의하면 김규식의 출발지는 상해, 파견단체는 신한청년당, 생년월일은 1881년 1월29일, 직업은 교육가, 교육정도는 고등,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등 6개국어로 참석자중 가장 많고, 공산단체 소속란에는 고려당 후보, 즉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의 후보당원으로 되어 있다. 김규식의 일행 중 여운형은 파견단체가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로 되어 있고 공산단체 소속도 역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로 되어 있으며, 나용균은 파견단체가 28구락부로 되어 있고 공산단체소속은 무당파로 되어 있다. 고려혁명군이 파견한 홍범도의 경우도 공산단체 소속란에는 무당파로 되어 있다. 1950년에 쓴 김규식의 자필이력서에는 이때를 언급하며 ‘조선 상해와 북경등 중국본토 만주 시베리아 일본등에서 온 60여명으로 구성된 조선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선출되었으며-손문과 광둥 군사정부대표단은 약 35명, 일본대표단은 12~3명이었음-또한 동회의 간부회의 회원이 되었음.’²⁸⁹⁾이라고만 간략히 적고 있다. 우사가 1950년 상황에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후보당원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가했다고 쓸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다만 ‘조선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선출되었다’고만 했다.²⁹⁰⁾ 대표자 가운데 고려공산당의 위임장을 지참한 사람은 7명, 공산청년회의 위임장을 지참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은 국내의 각종 반일단체의 파견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 중의 대다수는 동시에 고려공산당이나 러시아 공산당, 혹은 고려공산청년회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고려공산당의 당원이거나 후보당원인 사람은 30명이었다. 여기서 고려공산당이란 이르쿠츠크파를 지칭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국내에서 파견된 13명의 대표자들이 모두 공산당원이거나 후보당원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또한 김규식이 이 시기에 자신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후보당원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288) 애초에 무정부주의자였다가 최근에야 공산주의가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 史資料 34권, p208)

289) 강만길.심지연, 우사김규식생애와 사상1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우사연구회 엮음, 한울, 2000, p73

290) 강만길.심지연, 우사김규식생애와 사상1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우사연구회 엮음, 한울, 2000, p77

다.²⁹¹⁾ 김규식의 경우 아마 당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에 속했던 여운형에 의해 대회 참가가 권유되고 또 적어도 참가기간 동안은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후보당원으로도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²⁹²⁾ 그러나 동행이었던 나용균이 무당파라고 쓸 수 있었는데 비해 김규식이 후보당원이긴 하나 이르쿠츠크당파로 자신을 적고 있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김규식이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의 판단을 했다고 보기에는 평생을 걸쳐 드러나는 그의 성격과도 왠지 일치하지 않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 실제 임정 창조파의 수장으로 춘곡 원세훈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큰 좌절을 맛볼 때까지 그의 행보가 이르쿠츠크파와 반 발자국씩은 겹쳐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²⁹³⁾

이르쿠츠크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군사,정치적 고향이었다. 이르쿠츠크가 아직도 백위파세력의 휘하에 있던 1919년 11월경.²⁹⁴⁾ 이 지역 한인혁명가들은 군사혁명단체를 조직하였고 1920년 1월초 이르쿠츠크지역이 콜랴군의 봉기와 함께 적위군의 점령하에 들어간 후 35명으로 이루어진 고려특립중대를 조직하고 11개 민족출신군인으로 이루어진 합동민족군대에 가담하였다.²⁹⁵⁾ 합동민족사단의 참모장은 남만춘이었다. 이 군대조직의 중심인물들인 한인공산주의자들의 발기로 1920년 1월 22일 이르쿠츠크공산당에 한족부를 조직하였고 회장은 남만춘이 되었다.²⁹⁶⁾ 이처럼 이르쿠츠크지역의 한인공산당 조직은 콜랴군과의 투쟁과정에서 군사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3월 3일에는 극동공화국내에서의 볼셰비키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산하에 극동부(달이부료)가 설치되었다. 극동부(달이부료)는 1920년 8월 13일 시베리아국에서 독립하여 러시아공산당 중앙위 직속기관으로 바뀌었다. 시베리아국 역시 제5군이 이르쿠츠크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²⁹⁷⁾ 1920년 2월 초 러시아적위군 제5군 및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시베리아국이 이르쿠츠크로 본부를 옮겨옴에 따라 이르쿠츠크지역은 자연스럽게 시베리아 볼셰비키세력의 중심지로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베리아지역의 러시아공산당에 입당한 한인공산주의자들의 중심 집결지가 되었다. 우선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던 한인중앙기관 대한국민회중앙회(회장 선우정)가 이르쿠츠크로 이동중에 있었다.²⁹⁸⁾ 모스크바당 고려부 회장이던 강상주도 백위파 소탕의 임무를 지닌 제5군 부설 체카특별부(비상위원회) 전권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이르쿠츠크로 왔다.²⁹⁹⁾ 옴스크로부터는 1920년 3월 말에 동양외교부 선전위원인 채성룡, 이인섭이 옮겨왔고³⁰⁰⁾ 대동신보사가 옮겨와서 종전의 <새벽북>을 <경세중警世鍾>으로 개칭하여 발간하였는데 에카테린부르크로부터 온 한규선이 주필을 맡았다.³⁰¹⁾ 특히 고려특립중대는 제5군단의 산하에 들어갔고, 옴스크와 크라스노야노르스크로부

291) , 극동민족대회와 조선대표단, 역사와 현실32호, 1999, p49

292) 강만길.심지연, 우사김규식생애와 사상1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우사연구회 엮음, 한울, 2000, p78

293) 미국잡지 '아시아(Asia)' 1922년 12월호에서 김규식은 에반즈(Ernestine Evans)기자에게 공산주의자로 자처했다고 했다. (강만길.심지연, 우사김규식생애와 사상1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우사연구회 엮음, 한울, 2000, p87)

294) 러시아 공산당 시베리아국(시부료)은 1918년 12월17일 백위파지역에서의 당지하활동을 지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위원은 동부전선의 러시아적위군 제5군의 군사혁명위원회와 시베리아지역 지하당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한인공산주의자들이 이들과 연결되므로서 이르쿠츠크파가 태동된다.

295)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2

296)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73

297) 반병률, 위책, p287

298)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73

299) 김 마트베이,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사회주의자들, p134. 강상주는 1919년 3월 개최된 제3국제공산당창립대회에 모스크바 한안노동단체를 대표해 참가한 한인대표였다. ; 반병률, 위책, p288

300)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74

터 이동해 온 청년들을 보강하여 대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계속적인 증모로 각지에서 온 한인군대를 합하여 총2개 대대 600여명에 이르렀고 중국군대 1개대대와 함께 합동민족연대(연대장 최길래)를 편성하였다.³⁰²⁾ 이르쿠츠크가 한인적위군부대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로는 베르호네우진스크지역의 공산당고려부에서 한인군대의 조직을 계획하고 이르쿠츠크공산당 고려부에 의견을 타진코자 대표 우창석을 파견한 사례를 들 수 있다.³⁰³⁾ 이르쿠츠크지역은 시베리아지역의 각지 러시아공산당내에 조직된 고려부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공산당 고려부들은 시베리아에서의 러시아적위군의 승리와 확대과정에서 조직된 한인부대의 장교병사들 중의 한인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하였다. 이들 고려부는 러시아적위군에 편성된 한인군대들 내에서의 불체비즘의 선전선동을 주요목적으로 삼았다. 아나키즘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위한 조직적인 배치였던 것이다. 한편 1920년 말 현재 소비에트러시아내에서는 모두 16개 한인공산단체, 2,305명의 당원 및 후보당원이 있었다.³⁰⁴⁾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내 한인공산주의 운동단체들을 통괄할 지도 중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고, 이런사정을 반영하여 1920년 7월 하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 시베리아국(시뷰로)산하 동양제민족부(동양국 또는 동양협회)가 조직된다.³⁰⁵⁾

이르쿠츠크파는 고려부의 남만춘이 슈미야츠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아가며 대회소집을 추진했다.³⁰⁶⁾ 상해파와의 군정軍政쟁탈전은 이르쿠츠크파를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입장에 있었던 슈미야츠키가 동양비서부장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사실상 결론이 나 있었다.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했던 슈미야츠키는 동양비서부의 권위와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당.군.정의 최고 실권을 쥐고 있었다. 슈미야츠키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의 체결을 반대한 좌파공산주의자 출신으로서, 크라스노체코프의 극동공화국 설치안에 반대한 강경파 시베리아불체비키의 대표적 인물이었다.³⁰⁷⁾ 그는 1920년 5월 모스크바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러시아공산당중앙위 극동부의 위원으로 파견되었고, 동시에 극동공화국의 수상직과 외상직을 맡았다. 이어 19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시베리아 제5군 정치위원으로서 새로이 신설된 국제공산당동양비서부의 부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러시아공산당 시베리아국위원 겸 극동공화국내의 극동부위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인민위원회 외무부의 극동지역 전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³⁰⁸⁾ 한사람에게 7~8가지의 직책이 중임되는 고도의 집중제가 실현된 셈이다. 상향식 민주제의 가능성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슈미야츠키는 당,군,정의 요직을 독점한 ‘우랄동쪽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³⁰⁹⁾

301) 이재복 조서, 김준엽, 김창순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 p103

302)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3

303)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73~74

304) Persits M.A., Eastern Internationalists in Russia and Some Questions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1918-July1920), Ulyanovsky R.A., <The Comintern and the East>(Moscow, Progress Press,1979, p10 ; 반병률, 위책, p289

305) 동아공산,1호(1920년8월14일자); Persits M.A., Eastern Internationalists in Russia and Some Questions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1918-July1920), Ulyanovsky R.A., <The Comintern and the East>(Moscow, Progress Press,1979, p87 ; 반병률, 위책, p289

306) 坪江汕二,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嚴南堂書店, 1966, p112; 반병률, 위책, p310

307) Wiczynski Joseph L.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18(1984), p44; 반병률, 위책, p306

308) Wiczynski Joseph L.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18(1984), p74~75; 반병률, 위책, p306~307

309) 김단야, 레닌회견인상기, 조선일보, 1925년 1월 30일자

대한국민의회에 공산주의 야체이카(세포)가 조직되어 22명의 간부가 공산주의자로 된 것은 1921년 1월이고,³¹⁰⁾ 실제로 국민의회가 형식적으로나마 국제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21년 4월에 가서의 일이다.³¹¹⁾ 국민의회는 대외적인 소비에트정부지지와 입장선언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전체독립운동세력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가적 권한’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조직은 기존의 문창범, 김하석체제에다가 상해에서 귀환한 반임정운동세력의 중심인물 원세훈이 가세한 것이다.³¹²⁾ 한편 소비에트러시아정부는 이르쿠츠크에 대해 하나의 협약을 맺고 원조를 약속했다.³¹³⁾ 5개항으로 구성된 이 협약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한인이 공산주의 아래 스스로 조직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인들에게 원조를 베풀겠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한인단체들은 러시아정부가 임명하는 코민테른 극동국의 선전과장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한인들은 러시아 정부의 정책들과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야 하며 극동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코민테른에 대해 민주와 집중의 관계 중 집중에, 상향식조직과 하향식조직 중 하향식조직방식에 더 무게가 실린 이 협약은 향후 이르쿠츠크파의 헤게모니의 근원이자 자주성의 한계라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슈미야즈키의 지도아래 이르쿠츠크에서 1921년 5월 4일에서 17일에 걸쳐 제1차 고려공산당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³¹⁴⁾ 이곳은 레닌거리 23번지에 있는 반필로프극장이었다.³¹⁵⁾ 대회첫날인 5월 4일 저녁 8시 회의장으로 사용된 이르쿠츠크 인민회관대강당에는 대회조직국 전 성원, 국내외 각지 한국인 공산단체 대표자 85명 그리고 많은 내빈과 방청객들이 참석했다.³¹⁶⁾ 의장은 이성(李成)이었다. 그는 대회조직국 의장 자격으로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선언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인터내셔널가가 연주되었다. 의장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운동을 위해 희생된 투사들을 기념하고자 기립할 것을 제안했다. 모두 기립했고 오케스트라는 행진곡을 연주했다.³¹⁷⁾ 의장 이성의 제안에 따라 레닌, 트로츠키, 지노비예프, 클라라 체트킨, 스미르노프, 슈미야즈키 6명이 대회 명예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만장일치였다. 넓은 대회장에 환호에 찬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³¹⁸⁾

310) Narody Dal'nego Vostoka, no.2(1921 6월23일자, p217 : 반병률, 위책, p297

311)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195

312)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31

313) Dae-sook Suh,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N, 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22~23 이 협약은 일어로 번역된 것이다. ; 김학준, 위글, p30

314)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7 ; 반병률, 위책, p319

315) 박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p169 이르쿠츠크파의 창당대회장소는 그 외에도 두군데가 주장되고 있다. 하나는 양가라강가의 구 총독관저인 도서관 벨리돔이고 맑스거리와 카란다시리빌리거리가 만나는 모퉁이건물 지하라는 설이다. 벨리돔은 우사답사팀이 직접 들어가 본 결과 기록에 표현된 규모의 청중이 창당대회를 할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도서관장 역시 한국공산당창당대회와 관련 어떤 연관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레닌가 23번지 반필로프극장이 규모나 기록과의 일치면에서 가장 유력하다. 반필로프는 바이칼을 다룬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이르쿠츠크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예술가이며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대상인 바이칼호수 절벽길에서 발을 헛딛어 실족사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절벽길은 크로포트킨이 이르쿠츠크를 떠나는 계기가 된 폴란드유형자들의 반란을 초래한 강제노역으로 건설한 길이다. 반필로프추모비가 리트비앙카로 가는 호숫가 절벽길에 세워져 있다.

316) Учредительный Съезд Коре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я(고려공산당창립대회) Народы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 Иркутск, 1921, с187;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49

317)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секорейского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съезд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я(전한공산당창립대회의 장엄한 개막)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38 л71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49

318)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секорейского учредительного съезд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я(전한공산당창립대회의 장엄한 개막)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38 л71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49

참가자들을 보면 러시아를 제외한 지역의 대표자수는 8명에 불과하여 전체구성원의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르쿠츠크파공산당의 조직기반이 협소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래서 한국국내와 중국에 소재한 공산단체대표들은 극진한 우대를 받았다. 서울공산단체 대표자 두명중 이름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서초(徐超)이다. 서천민(徐天民)이라고도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는 1910년 러시아 망명 후 10여년간 금광노동자, 담배공장노동자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35세 되던 1919년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했다. 그해 9월 하얼빈에서 시작된 그의 활동은 비밀당조직 창설 임무를 띠고 한국국내로 두세차례 파견된 바 있었다. 서초는 이르쿠츠크당대회에 국내대표자격으로 귀빈대접을 받았다. 대회 첫날 내빈들 측사에 응하여 답사를 낭독한 이도 서초였다. 그는 대회 뒤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코민테른 제3차 대회 파견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러나 그를 국내비밀공산단체의 대표로 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초는 하얼빈, 상해등지로 다년간 약담배(아편) 장사 하던 상인일뿐 혁명가가 아니라는 것이다.³¹⁹⁾ 이르쿠츠크 당대회에는 국내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해파의 생각이었다.

대회에는 극동국한인부와 상해 한인사회당을 지지하는 대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1921년 3월 치타 한인부가 소집한 당대회에 참석하려고 블라고웨첸스크에 집결했던 대표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때 40여명의 지방당 대표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블라고웨첸스크 당대회 무산 후 코민테른극동비서부 지시로 이르쿠츠크 당대회에 참석하도록 강제되었다.³²⁰⁾

후일 이르쿠츠크파라고 불리워질 조직의 기초가 형성된 것은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였다.³²¹⁾ 이르쿠츠크공산당 고려부의 발기로 1920년 7월 7일에서 7월 15일에 걸쳐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공산당 내 고려공산단체 제1차대표대회(전로한인공산당 제1대표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러시아공산당 중앙위 극동부대표 게르세비치(Gershevich)와 동양제민족부 부장인 뉴만 볼트만(Niuman Burtman)이 참석하여 지도하였다.³²²⁾ 이 대회에서 중앙기관인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가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가 현실적으로 러시아공산당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수준과 처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³²³⁾ 대회는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의 동의를 얻어 이르쿠츠크에서 1921년 초에 전한공산당의 창립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³²⁴⁾

600명에 달하는 합동민족연대의 한인부대의 군사문제는 제5군이, 정신적지도는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에서 맡았다.³²⁵⁾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는 “각 지방 각 단체는 본지방총회의 경유

, 2006, p349

319) 崔生 海波, 具北隱, 馬白東 두분선생님 前, 1921.7.10, p1, PГАСПИ ф495 оц135 д47 л60~61 об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54

320) 張道政 高麗共產黨の沿革, p13~14; PГАСПИ ф495 оц154 д248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55

321) 코민테른이 ‘이르쿠츠크공산당은 1920년 6월 처음으로 공산주의 무대에 등장하였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김정주,조선통치사료7권,p195)

322) Narody Dal'nego Vostoka, no.3(1921년 8월1일자) p17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권, p94,p330 ; 반병률, 위책, p290

323)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3 ; 반병률, 위책, p291. 이는 1921년 1월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가 설립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고려부로 편입된 것에서도 증명된다. 1920년 7월 이르쿠츠크에서 조직된 고려공산단체중앙간부는 동양제민족부의 한족부 역할을 맡고 있다가, 동양 제민족부가 동양비서부로 재편설립되자, 그 산하의 한족부(고려부)로 흡수되었다. 이미 1920년말 국민의회는 이르쿠츠크파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니 간부들이 모두 공산당에 입당하여 있었고 야체이카(세포)가 조직되어 있었다. (Narody Dal'nego Vostoka, no.2(1921년 6월23일자, p217: 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199)

3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5권, p94~95, p330

를 받아 모든 사건을 시행케 하기를 요함”이라고 선언하여 중앙기관의 위치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한인공산당 중앙총회’로 불렀고 1920년 9월 25일부터 ‘고려공산당중앙총회’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이르쿠츠크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와 바이칼 연안의 러시아공산당내 한인공산주의 조직들의 중앙기관에 불과했다.

대회는 참여 대표자수에서 볼 때, 후에 열리는 상해파 고려공산당대회보다 훨씬 많은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르쿠츠크파에 의해 체포된 상태에 있었던 상해파의 장도정이 전하는 바와 같이, 이르쿠츠크파는 대회에서의 수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 1명이 대표하는 당원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심사과정에서 상해파에 동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표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슈미야츠키는 대회의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취소시키기 위해 “대표회를 해산한다”고 협박하는 등 대표자격결정에 간섭하였다.³²⁶⁾ 이 결과 대표구성에 있어서 이르쿠츠크에 가까운 동시베리아로부터의 대표들 숫자가 상해파가 오랫동안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그 세력이 우세한 연해주, 흑룡주지역과 만주, 국내의 그것을 훨씬 압도하였던 것이다.

이런 탄압분위기에서 대회에 참가하려던 상해파의 주요간부들인 장기영, 김아파나시, 김동한등 5명은 대회준비과정과 대회초반의 여러 발언들에서 “개인적인 타산을 하려 하였으며”, “동양비서부에 의한 사상적 지도를 단호히 거절”한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³²⁷⁾ 장기영은 크라스노야르스크로 김아파나시는 옴스크로, 김동한³²⁸⁾은 튜멘으로 정배살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³²⁹⁾ 이들의 발언 가운데는 1919년까지 소비에트정부를 반대했던 국민의회간부들, 즉 “민족주의적인 공산당원들”의 위임장을 취소하자는 제안이 있었다.³³⁰⁾ 이르쿠츠크파 당중앙위원회는 대회 결의에 따라, 대회 후 당대회에서 축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동회를 포함한 상해파주요간부들을 “당 규율에 불복종하고 비공산주의적 노선을 따랐다”는 이유로 당(상해한인공산당)으로부터 축출당했다.³³¹⁾ 제명 검토대상에서 이동회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상해로부터 온 안병찬이 이동회는 “김립의 투기모험활동에서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제명대상에서 제외되었다.³³²⁾ 그러나 대회결의를 무시하고 이동회를 제명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슈미야츠키가 개입한 때문일 것이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김만겸등의 비한인사회당세력은 상해로 귀환하여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상해지부와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였다.³³³⁾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르쿠츠크파에 구체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이때로 볼 수 있다.

325) p23

326) 張道政 高麗共產黨の沿革, p13~14; 장도정에 따르면 상해파의 세력 기반이 훨씬 광범위하였던 연해주, 흑룡주, 만주등의 극동지역(극동공화국 관할지역)의 경우에는 100명 또는 200명당 1명의 대표를 인정한데 비하여 이르쿠츠크쪽에서는 후보를 포함하여 15인마다 1명의 대표를 인정하였다 한다.; 반병률, 위책, p322

327) 고려공산당 제3차대회에서의 고려공산당의 보고 p364 ; 반병률, 위책, p322

328) 김동한의 이후 행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변절하여 1930년대 자유시참변의 재현이 될 뻔했던 민생단 사건의 주동자가 되기 때문이다.

329) 이인섭, 망명자의 수기, p89; 김규면, 노병 김규면의 비망록에서, p39~40; 김블라디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p174; 반병률, 위책, p322

330) 김블라디미르,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p174; 반병률, 위책, p322

331) Telegram iz Irkutsk no.6268(1921년 6월17일자); 반병률, 위책, p323. 이들의 제명이 1921년 5월의 이르쿠츠크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에서 볼 때, 이동회, 김립,박진순등이 상해의 한인공산당에서 탈당하고 안병찬, 김만겸등 잔류파들이 이들을 당에서 축출함으로써 이들 두 그룹이 1921년 1월에 별도의 당대표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 일부 견해는 잘못이다.

332) Narody Dal'nego Vostoka, no.2(1921년 6월23일자) p230; 반병률, 위책, p321

333) 여운형소서, p249~250. 여운형에 의하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부의 간부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부책임자;김만겸,여운형,조동호 고려공산청년회중앙위원;책임자;박헌영. ; 반병률, 위책, p323

슈미야츠키가 기획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이르쿠츠크파가 조직한 극동민족대회는 국제공산당의 실천적사업의 하나로 계획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개최되었던 근동피압박민족대회³³⁴)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된 대회일 뿐만 아니라 워싱턴회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가 조직한 대회였다.³³⁵) 당초 대회는 워싱턴회의의 개최예정일인 1921년 11월 11일에 맞춰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정세의 변화와 준비의 부족으로 수차례 연기되었고 또 대회의 간판인물로 활용하려고 미국으로부터 초청한 가타야마 센이 12월 하순에야 러시아에 도착했기 때문에 개최일이 다음해인 1922년 1월로 연기되었고 장소도 모스크바로 바뀌었던 것이다.³³⁶) 워싱턴회의에 희망을 거는 한국독립운동 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일급의 미국통이라 할 수 있는 김규식이 워싱턴회의가 아닌 이르쿠츠크회의를 선택했다는 것은 대회의 성공을 목적하는 기획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로서 워싱턴회의를 비판하는 것과 미국통으로서 워싱턴회의를 비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미국을 뒤로 하고 그 시선을 러시아로 돌린 것은 유라시아의제를 주도한 두 중심국 중 나머지 국가의 심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의미를 가진다. 우사의 역사참여방식이 학자풍의 관조자형이 아니라 혁명가풍의 실천가형임이 다시 증명된 것이다. 대회장소의 변경과 시기의 연기로 예정했던 이르쿠츠크에서의 극동민족대회는 무산된 셈이지만 대신 우사일행으로서의 입에 담기에도 곤혹스러웠던 자유시참변재판을 참관해야 했다. 아마도 우사일행에게 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참변재판

자유시란 러시아말의 스바보드니(Svobodny)를 번역한 것인데 러시아말로 스바보다(svoboda)가 자유라는 말이므로 스바보드니는 자유시를 뜻한다. 스바보드니는 1923년까지 알렉세프스크(Alekseyevsk)라고 알려진 제야(Zeya)강변에 놓여 있는 마을인데 그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자유시라고 알려졌던 것 같다. 스바보드니는 블라고웨첸스크에서 북방으로 150km 떨어진 도시였다. 제야강을 남쪽으로 200~300km 따라가면 헤이룽(黑龍, Amur)강을 만나게 되고 그 건너편에 중국의 헤이허(黑河)시가 나온다. 원래 제야-부레야 평야의 땅은 검은 색으로 풍요한데 흑하, 즉 검은 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듯하다. 제야강은 중국지

334) 2차대회가 끝난 직후 1920년 9월1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는 제1차 근동피압박민족대회가 개막되었다. 이 대회에는 터어키등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하여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조선의 대표 뿐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등 제국주의 열강 출신의 급진적인 반제국주의 대표들도 참가하였다. 바쿠대회는 37개국 1891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1273명의 대표는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민족적 혁명적 정당이나 그룹의 대표들이었다. 바쿠대회는 식민지민족문제와 제3인터내셔널, 동방의 토지문제, 동방의 미래국가형태등이 논의되었고 무엇보다도 ‘만국의 노동자와 모든 피억압민족이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이 등장하였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사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대회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바쿠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산하의 상설기관으로서 선전선동평의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평의회는 기관지 <동방인민>을 출간하고 1921년 모스크바에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P. M. Shastitko, 1978. "Lenin's Struggle against Sectarianism and Dogmatism on the National-Colonial Question", Lenin and National Liberation in the East(Progress Publisher:Moscow)p79~80; 전명혁, 위글, p203); 한편 위 대회에는 조선인 대표로 3명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John Riddle ed, 1993. To See the Down ; Baku, 1920-First Congress of the People of the East, (Pathfinder:New York), p242;전명혁, 위글, p203)

335) 여운형, 나의 회상기:여행편, 중앙, 1936년 3월 p65; 반병률, 위책, p347

336) 遊者, 一九二一—遊者觀察 新俄回想錄, (출판처, 장소, 연도미상), p153~154; 渡邊春男, 片山潛と共に, 和光社, 1955, p72~73, p102~103; 반병률, 위책, p347

도에는 제야허(結雅河)로 나온다. 스바보드니는 근래에 와서 미사일발사기지로 유명해졌다.³³⁷⁾ 스바보드니 끼로바거리가 된 옛 수라세프카 마을은 조선인들이 다수 살았던 마을이며, 독립군들은 이들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활동하였다. 1921년 6월 이 마을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안나 이바노브나(1913년생 끼로바 5번지거주)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안나는 당시 자신의 집 맞은편에 독립군참모장이 살고 있었고, 그는 그레골리³³⁸⁾라는 러시아인이었다 한다. 철도길 건너편에서는 총알이 날아들었고, 자신의 집에서도 총탄이 날아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총격전은 2시간가량 계속되었으며 그 후 러시아인 10여명이 참모장의 집으로 다가갔었다고 밝혔다. 수라세프카 역은 참변의 현장이다. 무장해제를 거부한 사할린의용군을 중심으로 한 대한의용군들이 스바보드니 남쪽 수라세프카역에 집결하여 대항하다가 패하여 약300명의 사망자가 나와 흑하에 이르는 제야강 일대가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³³⁹⁾

우사일행이 이르쿠츠크에 도착해 있었던 1921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르쿠츠크-국민의회파는 고려혁명군법원의 이름으로 6월 28일에 발생한 자유시참변 당시 체포되어 이르쿠츠크 군옥에 감금되어 있던 상해파 장교와 군인 50명에 대한 재판을 단행했다. 자유시참변재판은 고려혁명군여단 정치부장인 채동순을 재판위원장으로, 홍범도와 박승만등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당시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르쿠츠크에 집결해 있던 조선대표들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다.³⁴⁰⁾ 강만길은 ‘김규식등은 이르쿠츠크에서 홍범도가 재판장인 자유시사변 재판의 배심원이 되기도 했다.’³⁴¹⁾고 했으나 이는 오류인 듯하다. 재판장은 이르쿠츠크파인 채동순이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3명에게 2년 징역, 5명에게는 1년 징역, 그리고 24명에게는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17명은 방면하였다.³⁴²⁾ 여운형은 자유시사건을 “그 후 오랫동안 조선의 민중운동을 망쳐온 저 파벌투쟁의 선구였으며 또 가장 부끄러운 표현이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로 소위 상해파의 영향아래 있던 군단의 일단이 동만주에서 북만주로 몰려와 흑하지방에 이미 결집되고 있던 소위 이르쿠츠크파 영향하의 무장단과 합작되었던 것이 분파적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다시금 분리하고 탈주를 계획한 것이 이 잔인한 분파투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었다. 곧 뒤를 추격한 흑하군단은 이 탈주부대를 모조리 원대로 복귀시킨 다음 교묘한 수단으로 일제히 무장해제를 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하려고 이른 아침 상해파군대의 진영에 갔을 적에는 벌써 참호를 파고 응전준비를 튼튼히 한 그들 상해파군이 총부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간 정통적 지위만은 보장하고 있던 이르쿠츠크파는 마침내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정규의 적위군을 청해다가 이들을 강제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말았다. 물론 유순하게 무기를 버리는 자보다도 완강하게 대항하는 자와 탈주를 꾀하는 자가 많았다. 근 백명의 피가 흐르고 고귀한 목숨이 동지간의 암투에 의미 없이 낭비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의 앞에서 재판을 받은 수십명은 반항하거나 또는 탈주를 계획한 상해파 군단의 사람들이었다. 먼 지방에의 유형, 몇 해동안의 징역 또는 단순한 징계처분등 각종의 처벌이 오랫동안 감옥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각각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 재판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애석의 정과 암담한 우울로 나의 마음을 몹시 누른 사건이었다.

337) , 위책, p318

338) 그리고리예프, 극동공화국 인민혁명군 2군사령관으로 참변을 당한 사할린의용군의 지휘관이었다

339) 박환, 러시아한인유적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 p216~217. 현재 지역의 명칭은 미하일로 체스노코프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하일로 체스노코프는 아무르지역의 초대 철도국장이다.

340) 여운형, 나의 회상록: 여행편, 중앙1936년7월호, p112 이동휘

341) 강만길.심지연, 우사김규식생애와 사상1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우사연구회 엮음, 한울, 2000, p78

342) 붉은군사, 1921년12월24일자.

그는 자유시사건을 고려공산당내의 과벌사움의 결과라고 보았다. 희생된 용사들의 대부분이 이동휘의 추종자들이었고 그들에게 해를 끼친 세력이 이르쿠츠크에 자리잡은 소련공산당지부의 지시를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운형의 해석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측면에서만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지만 여운형의 손을 거쳐 궤이저우(貴州)군관학교를 졸업한 김홍일과 여운형을 따라 중국에 가서 윈난(雲南)군관학교를 졸업한 이범석이 현장에 있었다. 김홍일의 자유시사건에 대한 장황한 회고록에 의하면 유혈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할린부대(Sakhalin unit)’와 자유대대간의 충돌이었다. 사할린부대는 박일리아가 이끄는 빨치산부대로서 그곳 토착종족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박일리아는 일찍이 이동휘의 영향을 받은바 있는데다 그 자신도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충만해 있는 사람이었다. 한편 이르쿠츠크-국민의회파의 지도자 중 한사람인 오하목이 영도하는 자유대대³⁴³⁾는 주로 러시아화된 한국인들과 몽골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하목 자신이 철저히 소련의 체제내에 통합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오하목은 자유시에서의 핵심논란의 당사자였다. 사할린부대가 카란다라시빌리에 대한 명령복종의 조건으로 오하목등 이르쿠츠크-국민의회파 군지도자들의 축출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유대대의 우두머리는 극동에서 콜차크시절에 원정대장으로서 러시아군 대위 오가이-오하목이라는 자였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멀지 않은 빼안코프 공장에서 붉은 빨치산부대를 일소하는데 “영광”은 그에게 돌아갔다. 극동에서 오가이 오하목은 콜차크반동시대에 요주의 인물가운데 한사람으로 유명하다. 군사위원회는 최고령이라는 자에 의해 조직되었다. 1919년 아무르주에서 일본침략군의 청부인이었다. 국민의회군사부장은 김하석이 물망에 올랐다. 19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는 한인빨치산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폭탄을 체코인으로부터 구입할 시 비용 5천원을 명령하였다. 김하석의 공금형령사건은 한국의 혁명대중 특히 빨치산대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 빨치산들은 그를 결석 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아무튼 이같은 자유한인부대는 그 수적으로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빨치산부대들의 통합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³⁴⁴⁾

빨치산들은 혁명군사위원회로부터 과거의 치욕과 연관된 오하목, 최고령, 김하석등을 추방하도록 카란다라시빌리에게 집단적인 서명서를 제출하였다. 만약에 외국의 한인 빨치산들이 이 혁명군사위원회의 지도부에 누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들을 자극하여 이같은 전체빨치산부대의 통합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³⁴⁵⁾

그러나 카란다라시빌리는 이같은 요구를 묵살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본스파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은 한국독립군을 해체하고 자기들의 산하부대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르쿠츠크 볼세비키의 관심사는 시베리아의 불청객인 일본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었고 그를 위한 교섭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일본측은 한인부대들의 축출 내지는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볼세비키들은 대한독립군단을 그들의 휘하에 흡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즉 독립군을 무장해제하고 볼세비키당 휘하에 둬으로써 한인무장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은 볼세비키혁명으로 차르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혼돈상태에 빠진 것을 기회로 공백상

343) 1920 9월 당시 국민의회 휘하에는 나인역(驛)에 60명, 알렉세프스크시에 400명, 브라고웨렌스크에 70명이 있어 총500명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국민의회는 흑룡주와 연해주각지에 합법지부와 비밀지부를 조직하였다.(강덕상, 현대사자료, 27권 p296)

344)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203~204

345)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208

태에 빠진 시베리아에 대병력을 파견하여 독점적인 영향력하에 두려하고 있었다.³⁴⁶⁾ 미국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애당초의 계획은 이행될 수 없었으나 볼셰비키들에게는 힘겨운 일본병력이 연해주를 점령하고 있었고 일본은 공산혁명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철거가 중요한 과제였다.³⁴⁷⁾

일본에게 있어서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은 특별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중에는 1920년 4~5월에 니콜라예브스크(Nikolaevsk)에서 일본인들을 학살한 부대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³⁴⁸⁾ 니항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볼셰비키들에 대한 일본의 감정을 극도로 분개시켰고 군부가 일본군의 시베리아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된 사건이었는데³⁴⁹⁾ 한국독립군이 끼어 있었다. 니항은 흑룡강의 어귀 즉 흑룡강이 오츠크해를 만나는 곳에 있는 마을인데 이곳을 점령한 야코부 트리아피친(Yakov Triapitsyn)이 이끄는 공산계릴라들은 반동파속청이라는 명목하에 약 6천명의 주민을 참혹하게 학살하였는데 그중에는 약 700명의 일본거주민들이 있었고 일본영사도 포함되어 있었다.³⁵⁰⁾ 23세의 트리아피친은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한국독립을 위해서 도울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런 뜻의 합의서까지 서명하여 수백명의 한국청년들을 동원하였는데 이들은 트리아피친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학살의 주역이 된 것이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인부대는 러시아인으로 형성된 빨치산들의 약탈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³⁵¹⁾ 자유시에는 니항에서 이전해 온 병력과 함께 간도사변으로 근거지를 상실하고 노령으로 이동해 와 있던 서북간도의 한인독립군부대들은 1921년 3월경에는 거의 자유시에 집결해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청산리전투(1920년 9월)등에서 개가를 올렸지만 이에 분노한 일본군은 시베리아에 파송되어 있던 대병력 중의 일부와 한반도 점령군인 ‘조선방면군’의 일부를 북간도와 서간도에 파송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치타와 이르쿠츠크의 두 지도부는 1920년말 이후 흑하지역에 집결하고 있었던 연해주와 흑룡주의 한인 빨치산부대와 만주지역의 독립군에 대한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게 된다. 1920년 말과 1921년 초에는 한인부-상해파가 극동공

346) 유키오 小林幸男, 對蘇政策の推移と滿蒙問題, <太平洋戰爭への道>, 제1권 p168~170; 이정식, 위책, p316

347) 코바야시 유키오 小林幸男, 對蘇政策の推移と滿蒙問題, <太平洋戰爭への道>, 제1권 p172 p179; 이정식, 위책, p316

348) 자유시사건에 대해서는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이라는 아주 세밀하고 긴 문헌이 있는데 저자와 발행경위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글은 김준엽, 김창순공편,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자료편, 제2권, p1~54에 복간되었는데 저자는 이르쿠츠크 “고려군정회의” 사람인데 독립군 재편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갖가지 일들을 세밀하게 기술했다. 그는 분규의 충돌의 진원을 니콜라예브스크 즉 니항尼港에서 온 박일리아에게 돌리고 있다. ‘사할린 의용대’는 니콜라예브스크에서 후퇴한 부대의 명칭이고 자유시 충돌에서 살해된 사할린장병들은 36명이며 포로가 된 자가 864명이고, 박일리아가 데리고 도주한자가 34명이고 59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41)

349) 코바야시 유키오 小林幸男, 對蘇政策の推移と滿蒙問題, <太平洋戰爭への道>, 제1권 p177; 이정식, 위책, p316

350) A. Ya. Gutman(trans. by Ella Lury wiswell and ed. by Richard A. Pierce), The Destruction of Nikolaevsk-On-Amur: an episode in the Russian Civil War in the Far East, 1920, Kingston, Ontario and Fairbanks, Alaska: Limestone Press, 1993, pix-xi.; 이정식, 위책, p316

351) 굿트맨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한 기록에 의하면 첫 주일에 300명이 지원했다고 할 뿐 한국인 부대의 총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들의 부대장은 박이라는 교사였는데 그가 한국청년들의 애국심을 선동하여 부대를 확장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박이라는 교사는 김홍일이 말한 박일리아일 것이다. A. Ya. Gutman(trans. by Ella Lury wiswell and ed. by Richard A. Pierce), The Destruction of Nikolaevsk-On-Amur: an episode in the Russian Civil War in the Far East, 1920, Kingston, Ontario and Fairbanks, Alaska: Limestone Press, 1993, p123~124 ; 이정식, 위책, p316

화국 군부와 극동부의 지원으로 우세한 자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르쿠츠크파를 압도하고 있었다.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부대들의 병력을 보면 이르쿠츠크파의 자유대대가 400명정도, 박일리아부대를 비롯한 노령빨치산부대 병력이 1,000여명, 간도 독립군부대가 400명 정도였다.³⁵²⁾ 그런 우월한 위치에서 한인부-상해파 간부들은 제3국제공산당의 결정으로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던 전한공산당의 조직과 한인군대들에 대한 지도.관할권이 치타의 극동부에서 이르쿠츠크의 동양비서부로 이관된 사실을 알고도(1921년1월26일), ‘군인대표회’와 ‘전한공산당대회’를 종전대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³⁵³⁾ 상해파로서는 달리 사태를 반전시킬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한편 1921년 1월말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하여, 니항군대, 다반군대, 이만군대로써 사할린의용대를 조직하여, 자유대대와 간도 독립군부대들의 통합을 도모한 바 있는 상해파측의 박일리아부대가 1921년 2월말 우세한 병력을 바탕으로 이르쿠츠크파의 자유대대를 무장해제하였다.³⁵⁴⁾ 패권에 맞서 패권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좌경적 오류이다. 이는 헤게모니적 지배를 강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다.

한인부-상해파의 제안을 접수한 극동공화국 사령부는 크라스노야로보에서의 한인 빨치산대회 소집을 승인하였다. 한인빨치산부대의 모든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921년 3월15일 자유시에서 한인빨치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15명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와 3명의 작전참모부가 편성되었다.³⁵⁵⁾ 대회는 크라스노체코프의 적극적인 지지와 재정적 후원을 받았다.³⁵⁶⁾ 대회이후 모든 빨치산부대들이 망라된 대한의용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³⁵⁷⁾ 이후 극동공화국정부의 제안에 따라 사할린의용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원래 있었던 ‘대한’이란 말이 일본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하여 삭제되었다. 사할린의용대는 극동공화국의 제2군에 소속되었다.³⁵⁸⁾ 그러나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한인군대들에 대한 지도.관할권은 이미 이르쿠츠크에 주둔하던 제5군에게 있었다. 상해파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코민테른이나 그 상위차원의 대응이 있었어야 했다. 후에 이동휘는 모스크바를 상대로 움직였고 일정한 성과도 달성하지만 모든 상황은 이때 그의 역할이 필요했음을 증명한다. 소위 템포가 엇갈렸던 것이다. 역사란 지도자가 있어야 할 때와 장소에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결국 상해파리더십의 템포의 차이는 극적인 상황의 반전을 어렵게 했다.

한편 슈미야즈키세력이 한국민족운동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것도 사건 발단의 큰 원인이었는데 이는 자유신문제를 다루기 위해 떠나는 오홀라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였다.

352) , 망명자의 수괴, p95~96 ;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43. 金正柱, 조선통치사료 7권, p31~35 ; 반병률, 위책, p309. 한편 김규면은 자유시의 마사노프스크촌(사할린부대가 위치하고 있던 곳)에는 약 3천여명이 주둔해 있었다고 회고했다.(김규면, 노병 김규면의 비망록에서, p34~35); 김홍일의 말에 의하면 약 7천명의 독립군이 그 지역에 집결해 있었는데 앞서 말한 두 부대에 각각 천여명이 있었고, 이만근처에서 자원해 온 한인2세 독립군들이 400~500명, 만주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온 독립군부대가 4천여명에 달했다고 한다.(스칼라피노,이정식공저,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제1권, 돌베개, 1986, p72~73 재인용) 어쨌든 상해파의 이러한 군사력에서의 수적인 우세로 인하여, 이르쿠츠크파는 1921년 6월28일 러시아군대의 지원을 받아 자유시침변이라고 하는 엄청난 참극을 유발한 후에야 이들 상해파군대들을 무장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353) 동아국한인부일지, 1921년 1월26일; 상해파-한인부는 1921년 1월 16일 치타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한인빨치산 전체대회 소집을 위한 3인위원회(위원:박애,이다물,장도정)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박창은을 한인빨치산부대 임시총사령관으로 선임하고, 흑룡주로 급히 떠나도록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 권, p152~153, 373~375)

354)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17

355)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204, 431. ;반병률, 위책, p309

35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1, 387. ;반병률, 위책, p309

357) 계봉우, 조선력사,3권, p129 ;반병률, 위책, p309

358)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205, 431~432. ;반병률, 위책, p310

우리가 아직 이르쿠츠크에 있을 때 고려공산당대회가 개최된 후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반대집단에 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제기되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앞에는 모호한 형태로 제기되었고 오직 치타에 도착하고 나서 프체니친 동지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보고나서야 우리가 약삭빠른 수완가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우리는 치타에 있는 이 단체의 모든 추종자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였고 게다가 한인동무들이 이점에 대해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³⁵⁹⁾

이러한 무지는 쉽게 한쪽의 정보에 의해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하였고 ‘한인동무들’로 표현된 오하목등 국민의회파의 말만을 듣고 단체해산을 간단하게 결정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는 슈미야츠키의 동양비서부에게 극동지역에서의 모든 당적, 혁명적 사업에 관한 책임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는 6월까지도 크라스노체코프는 코민테른 대외사업의 관할문제를 놓고 싸우며 러시아공산당중앙위에 관할권문제를 해명하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³⁶⁰⁾ 특히 군권을 장악하고 자유시참변의 주역이 되는 카란다라시빌리에 대한 그의 감정은 격해 있었다.

한국국내진공작전의 우두머리에 극동지역에서 빨치산활동으로 유명한 카란다라시빌리라는 미친자가 위치하고 있다. 그는 나폴레옹의 모습과 유사하게 행동하였으며 극동공화국 전지역에서 한인을 통솔하고 있었다.³⁶¹⁾

그러나 크라스노체코프는 의지와 달리 갈수록 집행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슈미야츠키가 점차 명실상부한 권한을 확대해 가고 있었던 반면, 한인부의 절대적 지지자였던 크라스노체코프가 슈미야츠키와의 권력투쟁에서 밀리고 있었다는 점이 1921년 상반기에 양파의 경쟁을 좌우한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슈미야츠키등의 시베리아 강경파볼셰비키들은 크라스노체코프등 극동공화국 중심인물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시베리아국(시부르)의 파견대표로 극동부에 파견되어 온 이래, 크라스노체코프의 영향력 감퇴를 추진하여 왔다. 1921년 4월 크라스노체코프를 반대하는 극동공화국 지도부 6명이 그의 지도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문을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에 보냄으로써 그의 지도력에 타격을 가하였던 것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³⁶²⁾

슈미야츠키는 일본군 세력하에 있는 연해주지역과 만주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온 한인 빨치산 부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크라스노체코프와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극동지역에 출병한 일본군 철수문제를 두고 일본군과 극동공화국 사이에 따렌(大連)회담이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극동공화국으로서는 일본군을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한인무장부대를 자국관내에 주둔하도록 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다. 크라스노체코프는 일본의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질서 상태에 있는 브라고웨렌스크의 한인빨치산 부대를 가능한

359)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6

36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2

361)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4

362) Wiczynski Joseph L.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18(1984), p44; 반병률, 위책, p312

한 빨리 소비에트러시아 영토내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³⁶³⁾ 슈미야츠키 역시 같은 입장이었으나 한인빨치산부대의 이동이 한인빨치산부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극동공화국 영내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슈미야츠키에 의하면 “처음에 나는 완충지대로부터 소비에트러시아로 이동시킬 것을 제시하였지만 소비에트러시아로 한인을 추방하는 것은 그들 빨치산부대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일본과의 빨치산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에 이 부대는 가장 견고한 요소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억류자로서 완충지대에 남도록 결정하였고 이것에 관해 극동공화국사령부와 협의하여 크라스노체코프측과 전혀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다.”³⁶⁴⁾고 했다. 코민테른극동비서부는 소비에트러시아의 혁명성과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철수가 절대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혁명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의중이었다. 극동비서부는 “현금동양혁명에 대해 능히 도화선이 될 만한 것은 고려혁명”이라고 보았다.³⁶⁵⁾ 그것은 동아시아혁명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이 평가한 것이기도 하면서 한국내로의 진공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슈미야츠키가 한인빨치산부대를 극동공화국내에 잔류시키기로 했다면 그 관할권도 크라스노체코프에게 일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슈미야츠키는 한인빨치산부대가 군작전상 자기의 권한 내에 있는 소비에트사령부(소련적위군5군단)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인빨치산부대를 카란다라시빌리의 지휘하에 편입시켰다. 이에 비하여 크라스노체코프는 소비에트러시아 영토로 이동하기 전까지 한인빨치산부대는 극동공화국의 인민혁명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2군이 사할린부대의 보호막이 되어줄 상황은 아니었다.³⁶⁶⁾

또한 크라스노체코프는 슈미야츠키와 일부 한인들의 한국내로의 진공작전을 무모한 계획으로 보아 절대 반대하였다. 극동공화국대표 크라스노체코프가 모스크바외교인민위원부 치체린에게 1921년 6월3일 보낸 전문에 의하면,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필연적이다. 본인은 슈미야츠키와 한인들의 무모한 계획을 절대 반대한다. 이같은 계획은 일본인 스파이활동을 초래하고 게다가 일본의 침공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제1차대전시 대독연합의 측면에서 완전히 합리화 된다.’³⁶⁷⁾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내로의 진공작전은 이론상으로도 문제가 제기될 사항이었다.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에 따르면 부르조아국가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프롤레타리아국가의 침략을 환영하지만 이는 그들의 국가가 오직 진정으로 혁명적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다. 혁명적 상황에 충분히 처해 있다고 생각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형제적원조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선전할 시간이 없을 경우 침략받은 국가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프롤레타리아군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여 이를 격퇴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소련은 보았다.³⁶⁸⁾

슈미야츠키는 무력투쟁을 통한 일제타도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크라스노체코프는 평화협상

363) 극동공화국은 한때 자국영토에 주둔중인 한인무장부대의 해산까지 고려했던 것 같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동공화국정부는 소비에트러시아정부에 대해 한인무장부대를 해산시켜 버리자고 요청했다고 한다.(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37)

364)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1

365)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0;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337

366) 자유시참변과정에서 5군과 2군의 지휘계선은 격하게 충돌했지만 결국 2군사령부까지 참여한 가운데 사할린부대에 대한 진압작전이 일어났다.

367)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4

368) 1920년 11월20일 모스크바지방당회의에서 행한 연설; P.H.비거, 소련의 전쟁관,평화관,중립관, 형성사, 1984, p69. 레닌은 1920년 소련군대가 폴란드를 정복하여 볼셰비키화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주장하였다.

을 통한 일제와의 평화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결국 슈미야즈키와 크라스노체코프는 특히 무력으로 연해주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정세와 혁명운동의 진행에 대한 전망, 그리고 동아시아의 공산주의운동 특히 극동공화국내의 한인혁명세력의 관할문제에 있어서 크게 대립된 노선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상의 대립은 한마디로 슈미야즈키의 영향력하에 있는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극동부 그리고 크라스노체코프의 극동공화국간의 관할과 권한에 관련되는 매우 중대하고도 미묘한 문제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러시아공산당과 국제공산당은 한국혁명에 관한 이처럼 절박하고 긴요한 문제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유라시아의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비에트정부가 지닌 한계였다. 지역에까지 일관되게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의 한계와 그로 인한 소통에서의 불일치는 결국 현지세력간의 헤게모니 투쟁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1921년 4월 21일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즈키가 극동공화국에 한인빨치산문제를 동양비서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고, 인민혁명군에 편입되어 있던 한인빨치산부대, 즉 사할린의용대를 자신의 제5군으로 재편하기 시작하면서, 크라스노체코프의 극동공화국과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³⁶⁹⁾

코민테른 극동국장명의로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 몰로토프에게 전달된 1921년 6월 12일자 전문에 의하면 크라스노체코프에 대한 슈미야즈키의 일방적인 공격이 공식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완충지대로 간 한인빨치산들은 모스크바의 승낙없이 완충지대 정책책임자들에 의해 완충지대 수비대에 포함되었다. 거기에서 1921년 4월말까지 크라스노체코프의 전적인 지지로 체류하게 되었다. 그는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 극동국의 동의없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들에 대한 원조(박애, 박진순등의 모험주의적인 그룹과 연관)를 하였다. 극동국과 극동의 코민테른 비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완충지대내에서 한인빨치산대회의 개최를 승인하였다. 1921년 3월말 일본인과 중국인의 바로 눈 밑에서 그는 이 대회의 명예대표직에 임명되었고 한인빨치산부대의 일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들 소부대는 소비에트사령부에 의해 선출된 군간부에 대해서 극동공화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잔류하기 위해 투쟁을 벌였다.³⁷⁰⁾

한편, 동양비서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진행된 한인부족의 무리한 활동 역시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³⁷¹⁾ 결국 이르쿠츠크파는 후원자인 동양비서부를 배경으로 상해파의 철저한 배제, 자파주도의 단독 당대회 소집 및 한인군대 지휘권의 독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하여 이제껏 자금, 조직력,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었던 상해파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헤게모니쟁탈전의 현장에서 악전고투하게 됨은 물론 군.정 양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슈미야즈키의 동양비서부는 상해파 주요인물들에 대한 체포작업에 들어가서, 1921년 4월말 이르쿠츠크파는 상해파의 계봉우, 박애, 장도정, 김진을 ‘고려혁명군대를 선동하여 분열과 충동을 야기하였으며, 또는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서 조직한 고려혁명군정의회를 반대한’죄 즉 ‘반혁명분자’로 체포하여 이

369)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2~163. p388~389, p206, p434 ;반병률, 위책, p313

37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61,

371) 한인부는 ‘진한공산당’대회 개최장소를 치타에서 브라고웨렌스크로 변경하여 각 지방 대표자들을 혼란시키고 역량을 분산시켰다. 개최장소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각지 공산당대표들은 치타와 흑하에 흩어져 있었고 이것은 한인부가 개최하려던 ‘진한공산당’대회의 대표성에 결격사유로 작용하였다.

르쿠츠크로 압송 투옥시켰다.³⁷²⁾ 이들 체포된 상해파간부들은 1921년 5월 31일 이르쿠츠크파의 조선특별군사혁명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³⁷³⁾

또한 군권문제에 있어서도 극동비서부와 극동공화국 사이에 빚어진 정책논쟁은 극동비서부의 승리로 끝났다. 다만 조건부 승리였다. 상충된 두가지 요구를 다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하에서 고려혁명군정의회를 조직하기로 했던 것이다. 일본군철수촉진과 한인무장부대 강화라는 두개의 목표를 달성하자면 고려혁명군정의회를 조직함으로써 분산된 한인 무장부대를 신속히 결속하고 그 연합부대로 하여금 속히 공화국 관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³⁷⁴⁾ 이르쿠츠크의 고려부는 동양비서부와 합의하여 한인군대들을 지휘할 정식의 고려군정의회를 5월에 개최될 고려공산당대회에서 조직하기로 하고, 상해파를 배제한 채, 이르쿠츠크파 일색의 임시고려군정의회를 조직함으로써 자유시에 집결하고 있는 한인군대들에 대한 군권장악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령관에는 카란다라시빌리가 선임되었다.³⁷⁵⁾

한인빨치산의 정서가 국내진공작전 같은 무력투쟁을 지향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오히려 슈미야츠키의 정책과 일치하고 크라스노체코프의 정책과는 불일치하고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다. 어느쪽에서나 목적달성을 위해 한인빨치산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확고히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서는 공통되었다.

상해파의 리더십은 크라스노체코프를 통해 우회하기보다 슈미야츠키의 공세에 정면대응하여 그를 설득해내는 것이 가장 유리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한의용군의 입장을 설명하기위해 이르쿠츠크의 코민테른극동비서부에 파견되었던 장도정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슈미야츠키의 군사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충고하기위해, 우선 의병단체의 사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의병단체에게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총괄기관을 조직하면 의병단체의 반감을 받기 쉽다는 것, 그리고 의병단체들이 적대시하는 대한국민의회의 패거리를 군사위원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보고했다.³⁷⁶⁾

하향식집중보다 상향식민주제의 강조와 국민의회세력에 대한 견제로 압축되는 장도정의 의견은 수용되기는커녕 명령불복종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대화를 넘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대화의 맥락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슈미야츠키가 한인독립운동사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듯이 상해파 또한 시베리아 볼셰비키의 역사에 대한 풍부한 통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역사가 가정을 불허하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이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쉽게 보편원리의 비유나 상징으로서 가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역사로부터 배울 수

372) 간부로서 러시아공산당에 입당한 이들과 이르쿠츠크 한인공산당원들의 상해파인물들에 대한 무고 역시 상해파에 대한 슈미야츠키의 적대적 감정을 약화시켰다.(張道政 高麗共產黨의沿革, p12 ;반병률, 위책, p311참조)

373)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4,p54: 반병률, 위책, p314~315

374)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2006, p339

375) 3인 3두체로 된 간부구성은 총사령관에 러시아인인 카란다라시빌리, 의원에 김하석(국민의회파), 채성룡(이르쿠츠크파), 부사령관에 오하목(국민의회), 임시참모부장에 유수연이었다.(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20~21: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207, p435)

376) 장도정, 앞의글, p14~15 ;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2006, p343

있을 뿐이다. 설령 당파간의 갈등이 모든 선입견을 주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소통은 오해와 선입견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다. 상해파의 후원자인 크라스노체코프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 사할린부대가 지역주민들을 겁탈 강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카란다라시빌리는 오히려 현장조사결과 사할린부대주둔지의 농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음을 확인했다. 당파의 견해보다 현장에서의 사실확인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사례이다. 또한 사할린부대의 지도자인 박일리아는 충실하게 카란다라시빌리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다. 카란다라시빌리 또한 탁월한 빨치산지도자답게 사할린부대를 상대로 단합을 촉구하는 감동적인 연설로 사태를 수습해가는 듯 했다. 박일리아등의 카란다라시빌리에 대한 충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사할린부대의 절박한 요구였던 오후목등에 대한 처리를 분과활동으로만 이해하고 목살하므로써 강경대처해 나간 것이 사태악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결국 군권장악과정에서 슈미야츠키가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를 앞세운 것이 가장 큰 오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지정책집행자가 집행대상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 풍부할 때에만 세심하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케 한다. 결국 카란다라시빌리는 6월 13일 상해파의 군사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 흑하지방의 마사노프에 있던 박미하일(박영), 김규면등 13인을 체포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문서와 3만루블을 압수하였다.³⁷⁷⁾ 카란다라시빌리의 계속되는 이중행동 즉, 앞에선 단합을 촉구하고 뒤에선 상해파 군지도자들을 체포하는 그의 방침에서 이미 상해파군대의 반발과 오해, 충돌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었다.

결국 고려공산당창립대회 후 한달만인 1921년 6월 28일 흑룡주의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파의 고려군정의회가 극동공화국 제2군단 제29연대의 지원을 받은 상해파의 한인군대들, 즉 사할린의용부대를 무장해제 하는 과정에서 참혹한 살상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비극적이었던 것은 사할린부대가 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당함으로써 빚어진 참상이었기 때문이다. 자유시사변에 대해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인섭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평양 5형제파로 불리던 강영렬 청년은 성명하기를 “나는 차마 붉은 군인이나 제민족을 대항하여 죽이지도 못할 일이고 무죄하게 그들에게 죽기도 애매하니 자충한다”하고 자살하니 그 부대원들은 총을 끌어안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제야강에 빠져 죽기 시작하니 구루진 군인들은 총살을 정지하였다. 그리하여 24명이 총살을 당하고 수십명이 물에 빠져 죽은 군인은 단지 허영장의 군부로 간도에서 당도하였던 군인들뿐이었다.³⁷⁸⁾

고려혁명군 전권대표 오희라(Marta Iakovlevicha Okhola)는 자유시 참변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에 일지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압작전은 6월 28일 오후3시경 시작되어 4시간 반만인 7시30분에 끝났는데 가해자측은 1명 사망, 9명 부상이었고 피해자인 사할린부대는 36명 사망, 행방불명 60명이며 최종 무장해제된 사람들은 860명이었다고 한다.³⁷⁹⁾ 이 통계를 통해서도 사할린부

377)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73, p397; 이돈은 40만 루블 가운데 한형권이 가졌던 6만루블의 일부이다. 베르호네우진스크 회합직후 한형권은 곧바로 치타로 가서 김규면과 이용을 만나 협의한 후 “만주에서 이동하여 온 조선독립군”을 “빨치산군대와 연합시키는 사업준비에 부족품을 보충하는데 소용하라”고 하면서 4만루블을 건네주었다. (김규면, 노병의 비망록에서, p37~38참조) 김규면은 기독교 목사출신으로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신민단 단장, 19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재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부위원장겸 군사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차장등으로 활동하였다. 사실상 만주,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항일무장투쟁가로 홍범도, 김좌진장군에 견줄만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반병률, 위책, p315

378) 강만길, 내일을 여는 역사 참조

대측의 저항이 거의 없었음이 드러난다. 오히려 고령군정의 회측에 특별조사위원회(임시조사부)를 조직케 하였는데 이 위원회 임무는 ‘폭동과 선동행위의 주모자들을 밝혀내고, 이들이 사할린부대 밖의 다른 인물들과의 연락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³⁸⁰⁾

자유시참변 이틀후인 6월 30일에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포로군인들을 심사하여 총군부(독군부, 최진동, 허근부대)군인들은 무죄로하여 군정의 회에 편입하고 나머지 500명은 재차 심사하여 중대범죄 장교와 군인 72명은 이르쿠츠크로 압송하고, 나머지 428명은 극동공화국정부 제2군단에 인도하였다. 이들은 우수문으로 옮겨져 강제노동에 처해졌다.³⁸¹⁾

고령혁명군 지휘부는 자유시사건후 최초의 계획대로 한중국경지대로 진출하여 대일전쟁에 착수하고자 했다. 당시 군정의 회는 극동공화국 영내를 벗어나 압록강 두만강일대에 주둔하면서 유격투쟁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좌절되었다. 1921년 7월 5일 코민테른극동비서부는 “고령혁명군대를 만주로 출동할 계획을 정지하고 속히 군대를 영솔하고 이르쿠츠크로 입대하라”³⁸²⁾는 전보를 군정의 회 앞으로 발신했다. 왜냐하면 극동공화국과 일본사이에 상호 적대행위의 금지를 논의하던 ‘따렌(大連)회의’가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렌(大連)회의 석상에서 일본측 대표는 반일무장부대를 극동공화국 영내에 주둔시키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따렌(大連)회의’의 성공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반혁명간섭을 외교적수단으로 막아내고자 했던 극동공화국정부와 러시아공산당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 결국 고령혁명군은 극동공화국내에 주둔할 수도 유격전을 수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고령군정의 회와 사실상 이를 이끌고 있던 이르쿠츠크파 지도부는 코민테른극동비서부의 지시에 응했다. 그들은 극동공화국 아무르주 자유시를 떠나 러시아소비에트공화국의 영토이자 코민테른극동비서부가 소재하는 이르쿠츠크로 회군했다.³⁸³⁾

이는 전략차원에서 크라스노체코프의 승리이자 슈미야츠키의 실패였다. 또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이래 계속된 레닌의 유라시아평화공존정책의 재확인이기도 하였다. 국민의회-이르쿠츠크파를 앞세운 슈미야츠키의 전략적 오류와 전술차원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자유시참변이란 비극만을 초래한 셈이었다. 모스크바로부터 슈미야츠키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도 이동회의 탁월한 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미 대일정책에서의 전략적오류가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사일행이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여 자유시재판에 참여했을 때는 모스크바에서 레닌과의 담판으로 위기에 처한 상해파의 운명을 희생시킨 이동회가 이르쿠츠크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고령공산당 연합간부인 이동회와 홍도가 오기전에 이르쿠츠크-국민의회파가 서둘러 재판을 단행한 것은 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의 결정서에 박애등 한인부 간부들과 자유시참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석방을 지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유시참변등의 일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이동회와 홍도는 동양비서부 고령부당국과 국제공산당 검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이르쿠츠크의 고령혁명군대 내에 있는 친상해파 인물들과 접촉했다. 고령혁명군대 군인들을 상대로 이전의 혁명운동, 즉 한인사회당과 고령공산당의 역사와 사업성적 그리고 연합간부의 출범에 이르는 경과를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동회와 홍도가 상해파 고령공산당의 전신인 한인

379) ,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89, p414 ; 반병률, 위책, p328~329

380)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4권, p191, p416~417, ; 반병률, 위책, p329

381)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43 ; 반병률, 위책, p329

382)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43;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6, p414

383) 在魯高麗革命軍隊沿革 p44; 임경석, 위책, p415

사회당과 사회혁명당의 역사를 보고한 것은 상해파가 갖고 있는 민족혁명운동과의 깊은 연관성과 국내적기반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르쿠츠크파와 국민회의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고려혁명군연단군인들의 상해파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던 때문이다.

1921년 12월 21일 이동휘와 홍도는 고려공산당을 대표하여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 고려부의 비서인 한명세와 다비도비치(S. Davidovich)와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상해, 이르쿠츠크 양파의 연합에 관한 국제공산당집행위 감사위원회의 결정서에 대한 실천방안을 토의하였고 통합에 관한 중요한 합의들을 도출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양당이 연합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양측에서 6명의 위원들을 각지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들 파견원들은 국제공산당 집행위의 명령에 근거하여, 모든 지역에서 이전의 당파와 관련된 투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연합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해외에 나와 있는 새로운 연합간부들을 소환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1922년 1월에 개최되는 극동민족대회에 고려공산당중앙위에서 파견되는 6명의 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출된 대표들은 여운형, 조동호, 김동한, 한명세, 이석기, 문시환으로서 양파가 안배되었고 최고려의 경우는 대회의 의장단에 위임하였다. 1921년 12월 27일 이동휘는 고려공산당연합중앙간부 대표의 자격으로 이르쿠츠크의 고려혁명군대 제1여단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여운형은 이동휘와 조우하게 된다. 김규식도 함께 조우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혁명군 여단 정치부장 채동순이 개회를 선포하고 이동휘외에 극동민족대회참석차 머물던 여운형등이 참석하여 각 지방의 소식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휘는 극동민족대회를 준비중이던 ‘조선대표단’과도 만났으므로 이때는 분명히 조우했을 것이다. 이 회합에서는 양파의 통일을 위한 국민대표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되었다.³⁸⁴⁾ 따라서 우사일행이 이르쿠츠크에 머물던 시기는 다시한번 자유시침변의 상처를 딛고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의 통합이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도래한 희망의 시간이었다.³⁸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사일행이 이 기회의 시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다. 김규식도 여운형도 좌우합작과 독립운동의 통일에 진력했던 그 이후의 인생여정에 비추어본다면 이르쿠츠크에서 머무는 시간동안 의미있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특히 양파통합을 위한 국민대표회준비위원회를 결정하는 자리에 조선대표단으로 김규식이 참가하고 있었을 것을 예상하면 더욱 그렇다. 만약 이르쿠츠크파만이 있었다면 그같은 결정에 쉽게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스크바차원의 결정서가 갖는 위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그것을 번복하려한다면 다시 모스크바차원의 반전이 필요했다. 여운형의 여행기에서 가장 중요해야할 이르쿠츠크부분이 암흑으로 남아있는 것은 검열도 검열이었으나 당시의 상황전개를 희망으로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음을 감지케 한다. 이르쿠츠크의 공기를 지배하던 것이 슈미야츠키였음을 고려하면 한인운동가들에게 당파성을 뛰어넘는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희망의 불씨는 이후 모스크바에서 극동민족대회를 주도한 슈미야츠키의 반격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뒤 양당파의 통합은 돌아올 수

384) The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First Congress of the Communist and Revolutionary Parties of the Far East, <To the Executive Committee III Communist International>, 1922 4월 5일자, p3~4 ; 반명물, 위책, p346

385) 김정주의 자료에 의하면 동양비서부 고려부 당국자들과의 회의 직후로 보여지는 1921년 12월말 이동휘는 상해의 고려공산당 간부들에게 “양당이 합동일체로 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전에 진력한다면 유리하게 되는 고로 그곳에서도 쌍방협의를 다하고 더욱 합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스크바로부터 다액의 선전비를 취하여 상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쳤던 것이다. (김정주, 조선통치사료, 7권, p167)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결국 코민테른의 해체결정으로 아예 무산되고 말았다. 이 과정은 유라시아차원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라시아의제를 실행할 중심세력을 확고히 단합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우리의 독자적 힘에 의거하지 않은 운동의 통일이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를 우사는 깊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자유시참변의 후과는 실로 큰 것이었다. 홍범도의 경우는 자유시참변 당시 중립을 지켰다가, 이후 이르쿠츠크측에 적극 가담하여 자유시재판에서 최진동, 안무, 허근등과 함께 상해파에 대한 성토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후 슈미야즈키의 환대를 받으며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조선빨치산의 지도자로서" 레닌을 면담한 후 러시아 극동에 나왔다가 박일리아부대 군인들에게 암살당할 뻔하였다.³⁸⁶⁾ 그러나 김동한의 경우처럼 암담하고 우울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는 1921년 6월에 자유시 참변이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6인의 대표로 선발되나 결국 1922년 당적을 박탈당하고 블라디보스톡 감옥에 감금되었다. 1923년 석방된 뒤 중국 직예군벌 오패부군대에 가담했다가 1924년 소련 적위군에 체포되어 블라디보스톡 주재 일본영사관을 거쳐 조선총독부로 인계되었다. 그 뒤 그는 적극적인 친일파로 돌변했다. 그는 1931년 만주에서 민생단조직에 관여하게 되는데 자유시참변에서의 부정적 체험이 이 과정에서 역으로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1934년에는 일본군 특무조직인 간도협조회를 발기하여 본부 회장직에 올랐다. 이 단체는 항일 세력 파괴와 만주 지역 조선인 통제가 주요 목적인,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친일단체였다. 김동한은 간도협조회 성립을 주도하고 1935년부터 일본 관동군 헌병사령부의 복지과전공작반 반장을, 1936년부터는 만주국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본부장도 겸직했다. 이때 김동한이 받은 대우는 일본군 헌병 하사관 군조급 대우와 같았다.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김동한은 일본군 엔지 헌병대장과 단짝이 되어 대대적인 항일부대토벌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이간책과 유언비어 날조, 밀정 투입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김동한이 체포하고 투항시킨 항일 운동가의 숫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 내선일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황민화 정책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는 선전 작업도 병행했다. 간도협조회가 폐지되어 만주국협화회로 통합된 뒤 그는 1937년 1월에 만주국협화회 중앙본부 지도부 촉탁이 되었다. 6월부터는 항일 세력이 결집한 북만주 지역을 토벌하기 위해 만주국협화회 쟁장 성 특별공작부 부장이 되었고, 그해 12월에 동북항일연군 부대와 전투 중에 전사했다. 1940년 일본 정부는 김동한에게 훈6등 단광육일장을 추서했다. 매복 습격으로 김동한을 사살한 동북항일연군 측의 기록에 의하면, "민족의 망나니"인 김동한을 "정의의 탄알로 처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동한은 동북항일연군 군사정치부 주임 김근을 회유하는 공작을 진행하다가 살해당했다. 김근은 김동한의 목을 베어 대문에 걸어놓게 하였다. 김동한의 장례식은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이 참석해 조사를 읽는 등 대대적으로 치러졌다.³⁸⁷⁾ 민생단 사건을 직접체험하고 해결한 김일성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김동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은 김동한이 전향한 뒤에는 "자기를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라고 착각할만큼 일본인으로 철저히 동화된 자", "매국배족근성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수급역적"이 되었다고 표현했다.³⁸⁸⁾

386) 일지, 1958년 4월16일자; 반병률, 위책, p366

387) 만주국협화회는 김동한의 3주기에 조각가 김복진에게 위탁하여 동상을 제작해 건립하고 헌창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홍야운동의 선구자", "만주국 치안숙정의 공로자", "동아 신질서 건설의 공로자"로 묘사된 김동한의 이념을 기리기 위한 동상 제막식은 엔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쇼와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 야스쿠니 신사에서 개최된 일본 국가 행사에서 김동한의 유족들을 초대하여 그의 공적을 칭송한 일도 있었다.

38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12월), 김동한, 2007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

자유시참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의제의 실행주체내의 계통적 모순관계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즉 유라시아의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차원, 전략차원, 전술차원, 조직차원에서의 통찰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문제에서 핵심은 외교 과제인 민족, 식민지테제와 주권과제인 소비에트주권의 확립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러시아 공산당과 외무부, 적위군, 코민테른, 극동공화국등 다양한 층위가 충돌, 갈등하는 문제였다. 극동공화국은 전술적으로 중요했지만 정책이나 전략과제로서는 최하위일수 밖에 없는 구조였음은 자명하다. 실제 일본과의 평화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존재가 소멸하였다. 아나키스트빨치산에 대한 전술이 백위군적결 전략의 하위개념이었듯, 한국의 항일빨치산에 대한 전술도 최후까지 공동의 적으로 남아있던 일본과의 평화공존전략의 하위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공산당의 헤게모니 장악은 아나키즘세력이나 다른나라 혁명운동세력과의 연대보다 우선순위였음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구조에서뿐만아니라 다른나라의 공산당건설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정책과 전략의 결과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레닌의 이상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빛나고 있었고 당시의 행정력의 수준에서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레닌과의 답판이 항상 유라시아리더십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자유시사건에서 중요했지만 지나치게 강조되기도 하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갈등구조는 이르쿠츠크파가 가해자 편에 섰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비론의 관점으로는 ‘암담하고 우울한 애석의 정’을 느끼는 것 말고 어떤 역사적 교훈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르쿠츠크파의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시참변의 희생자였던 김동한이 가장 주도적인 가해자로 등장하는 1930년대 민생단사건에서 보여준 김일성부대의 리더십은 유라시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었음이 분명하나 자유시참변처럼 유라시아차원의 복잡한 층위가 동시에 작동했던 배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복잡한 배경을 배제할 수 있었던 능력을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우사는 이 상황을 해결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찰자의 입장이었지만 여운형과 다른 모든 운동가들에게 그렇듯이 유라시아적 리더십의 문제를 통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